

2022년 한국아동문학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제35회)

# 아동의 인권과 아동문학



- 일시: 2022년 4월 9일 토요일 13:00~18:00
- 장소: 비대면 학술대회(ZOOM)
- 주최: 한국아동문학학회, 경희대학교 한국아동문학연구센터

2022년 한국아동문학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제35회)  
‘아동의 인권과 아동문학’

**개회사**

13:00 ~ 13:10 개회사 (김용희 학회장)

**제1부: 기획발제**

사회: 정선희(성신여자대학교)

13:10 ~ 13:50 방정환의 아동관과 아동 해방

발표: 김용휘(대구대학교)

13:50 ~ 14:00 중간 휴식

**제2부: 기획발표**

사회: 김경희(가천대)

14:00 ~ 14:40 『어린이』 지 ‘어린이날 기념호’ 와 방정환의 어린이 해방 사상 조명

발표: 장정희(서울대학교) 토론: 박종진(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14:40 ~ 15:20 『학생』의 매체 특성과 방정환의 저항정신에 관한 연구

발표: 최미선(경상대) 토론: 이정석(아동문학평론가)

15:20 ~ 16:00 동화에 나타난 권위적인 아버지와 아동의 인권, 성장

발표: 선주원(광주교대) 토론: 김태호(춘천교대)

16:00 ~ 16:10 중간 휴식

**제3부: 개인발표**

사회: 김옥선(단국대)

16:10 ~ 16:40 백석의 동화시 속에 드러난 공동체성

발표: 박중빈(구미상모초) 토론: 지상선(성균관대)

16:40 ~ 17:10 북한 아동문학에 나타난 우화시 연구

발표: 김영옥(대구교대) 토론: 하근희(대구포산초)

**종합토론** 17:10 ~ 17:30

사회: 방은수(서울교대)

\* 회비 : 없음

# 기 획 발 제

# 방정환의 아동관과 아동해방

김용휘(대구대)

## I. 행복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아이들

오늘 한국아동문학회 제35회 춘계학술대회의 기조강연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아동문학과 인권’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린이날에 배포된 선언문은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1.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1.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절을 행하게 하라.

방정환은 특히 문학작품을 통해서 어린이를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개척해 나가는 주인으로 세웠습니다. 방정환이 문학 작품 속에서 그리고 있는 어린이를 살펴보면, 그는 어린이를 수난 당하는 민족의 주인공으로서 그러한 운명을 자각하여 씩씩하게 이겨내고 적극적으로 운명을 개척하는 당당한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방정환은 당시 어린이들이 문학작품을 통해 모든 억압과 굴레에서 진정 해방되어 자기 삶은 물론 역사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년이 지난 오늘날, 분명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비하면 확실히 어린이들은 훨씬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제 행복지표 조사에서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행복지수는 거의 하위권입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양보와 배려, 협동과 연대를 배우게 하기 보다는 경쟁과 대결의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아이들은 늘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강요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정서적 함양과 인격적 성숙, 영혼의 성장을 위한 교육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원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방정환이 추구했던 것이 오늘날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를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II. 어린이가 한울님이다

먼저 방정환이 어린이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방정환의 아동관을 ‘동심천사주의’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정환의 아동관은 동학의 인간 이해에 바탕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동학의 창시자 수운 최제우 선생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안에 거룩한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안에 초월적 차원으로 한울님을 모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에게 이기적이고 충동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밝고 신성한 빛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계승하여 2대 해월 최시형 선생은 사람만이 한울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물천·사사천’(物物天事天)을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존재가 곧 한울님이라고 했습니다. 해월은 한울님을 저 하늘 위에 있는 절대자로 보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에서, 빈천한 자들의 눈빛에서, 또 풀한포기에서 거룩한 한울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공경, 즉 마음을 공경할 것과, 사람을 공경할 것과 만물을 공경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삼경(三敬)을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섬겨야 할 존재가 저 하늘 위의 절대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옆의 평범한 존재들임을, 그 중에서도 가장 힘없고 낮은 자들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천대받던 노비들, 억압받던 여성들, 그리고 온전한 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던 ‘어린이가 곧 한울님’이라고 하면서 어린이를 한울님처럼 공경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어린이들은 오늘날처럼 부모들의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대우도 받지 못했습니다. 열 살도 안된 어린이들에게 부엌살림과 심부름 등 온갖 일을 시키기 일쑤였고, 때리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이에 해월은 어린이도 한울님을 모셨으니 일체 어린이를 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때리지 말라는 말이 평범한 말 같지만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전환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단지 손을 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언어를 비롯한 일체의 폭력성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방정환의 아동관은 이처럼 ‘어린이가 한울님’이라고 보는 동학의 시천주와 인내천의 인간관을 계승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방정환은 어린이가 미숙하고 불완전하여 보호만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저마다의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자기 안의 한울(天)을 실현할 온전한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봅니다. 방정환은 “그네는 훌륭한 한 사람으로 태어나오는 것이고 저는 저대로 독특한 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sup>1)</sup>라고 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저마다의 한울꽃으로 피어날 발현을 기다리는 온전한 한 인격체로 봅니다. 또한 그는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내 아들놈, 내 딸년 하고 자기의 물건같이 여기지 말고, 자기보다 한결 더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sup>2)</sup>라고 하면서, 어린이를 기성세대보다 더 새로운 존재, 더 진화된 존재로 봅니다. 미래를 기준으로 보면 어린이가 더 새로운 사람이며 더 앞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표준으로 어린이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기성세대보다 더 앞선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 방정환, 「소년의 지도에 관하여」, 『천도교회월보』 통권 제150호(1923년 3월)

2) 「조선소년운동협회 주체 제1회 ‘어린이날’ 선전문. 『동아일보』, 1923.5.1.

### 3. 어린이운동은 어린이해방운동이었다.

방정환과 김기전이 주축이 된 천도교소년회의 어린이운동은 그냥 단순히 어린이를 잘 보호하고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차원의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이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과 더불어 어린이를 일체의 억압에서부터 해방시키자고 했던, 사실상 ‘어린이해방’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이 공유한 문제의식은 하나는 ‘기존 유교적 윤리, 특히 장유유서의 차별적인 윤리였습니다. 김기전은 『개벽』지에 다음과 같이 역설합니다.

‘이놈’이 아니면 ‘이 자식’이라 하는 등 그들의 유년 학생에 대한 포박과 전횡은 실로 언어도단이라 하겠다. (중략) 어찌해서 유자(幼子)의 인격을 말살하였으며 자유를 박탈하게 되었는가? (중략) 한마디로 하면 옛 윤리 도덕의 남은 폐해, 줄여 말하면 소위 오륜 중의 하나인 장유유서의 말폐라고 나는 단언하노라.<sup>3)</sup>

유교의 윤리, 그 중에서도 장유유서의 윤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인격과 자유를 말살시켰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모의 장례를 화려하게 치루면서도 아이가 죽으면 거적에 둘둘 말라 산에 버리고 그후론 영영 돌아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겨울철에는 땅을 파기가 어려워 나뭇가지에 그냥 걸어두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억압입니다. 당시의 어린이는 한갓 집안일을 돕는 일꾼, 심부름꾼으로 전락하고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경제적 압박이니, 먼저 윤리적으로 압박하여 어린이의 정신을 침식하고, 다시 경제적 압박으로써 어린이의 몸뚱이를 결단낸다. (중략) 현재의 사회제도에서 오는 무산가정의 생활난의 영향은 그대로 그 가정에 있는 어린이에게 미쳐 즐겁게 놀아야 하고 힘써 배워야 할 어린이들이 불행하게도 노동을 하여야 하고 수난을 받아야 하는 그것이다.

이처럼 두가지의 압박, 즉 윤리적 압박과 경제적 압박에 고통받고 있는 아동, 소년들을 그 압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가장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김기전과 방정환은 이처럼 어린이해방, 소년해방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소년해방에까지 이르러야지 진정한 인간해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sup>4)</sup> “우리가 먼저 우리의 발 밑에 있는 남녀 어린이를 해방치 아니하면 기타의 모든 해방운동은 실제로 철저히 되지 못할 것이다.” 인간해방의 끝은 어린이해방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어린이 운동은 어느 정치운동이나 부인운동이나 노동운동과 같이 인류 중의 어느 부분 운동이 아니라 그 맨 밑에 바닥을 짓는 인간 운동, 즉 인간 주체를 형성시키는 기초운동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기전과 방정환이 주도한 어린이운동은 단순한 어린이 보호운동이나, 인권운동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어린이 해방을 부르짖음으로써 진정한 인간해방을 꿈꾼 개혁운동이었던 것입니다.

3) 김기전, 「장유유서의 말폐 - 유년 남녀의 해방을 제창함」, 개벽 통권2호 1920, 7월호

4) 김기전, 「개혁운동과 합치되는 조선의 소년운동」, 개벽 통권35호 (1923년 5월호)

## 4. 방정환과 아동문학, 그리고 동심

이러한 어린이해방운동은 주로 아동문학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방정환은 동화를 통해서 당시 억압받던 어린이들에게 씩씩하고 기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었습니다. 또한 수필을 통해서 어른들에게 아이들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그의 아동문학은 무엇보다도 동심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아동의 마음! 참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아동 시대의 마음처럼 자유로 날개를 펴는 것도 없고, 또 순결한 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연령이 늘어 갈수록 그것을 차츰차츰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그 대신 여러 가지 경험을 갖게 되고 따라서 여러 가지 복잡한 지식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 경험과 지식만을 갖는다 하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라, 경험 그것이 무익한 것이 아니요 지식이 무익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늘어간다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인생으로서**의 자랑할 것은 못 되는 것이다. 더구나 그 경험 그 지식이 느는 동안에 한편으로 그 순결한 그 깨끗한 감정이 소멸되었다 하면, 우리는 어찌랴... 그 사람은 설사 냉랭한 마르고 언 지식의 소유자일망정 인생으로서의 역시 타락한 자일 것이다. 아아, 우리는 항상 시시로 천진난만하던 옛-고원-아동의 세계-에 돌아가 마음의 순결을 빌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sup>5)</sup>

방정환의 아동문학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동심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심에 대한 낭만적 예찬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이 자기 안에 있는 본래의 맑고 밝은 마음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소중한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방정환은 아이들이 주눅들고 눈치보고 짓눌린 어두운 마음이 아니라, 본래의 맑고 순수하고 밝은 마음으로 살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의 몸과 마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할 것을 강조합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다른 아이, 생명, 풀한포기, 돌맹이조차 소중히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른들의 역할을 중시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마음을 존중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그들의 욕구와 감정, 의지와 생각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자연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또 동화를 통해서 밝고 씩씩한 기상을 길러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생 있는 형이여, 어린애 기르는 부모여, 어린이 가르치는 선생님이여, 원하노니 귀여운 어린 시인에게 돈 주지 말고, 과자 주지 말고, 겨울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신성한 동화를 들려주소. 때때로 자주자주.<sup>6)</sup>

자연 속의 신비와 아름다움 속에서, 또 동화와 같은 예술 경험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자기 안의 맑고 밝은 마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정환 단순히 아이들에게만 동심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동심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영원한 아동성’을 이 아동의 세계에서 온전하게 잘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요, 또 나아가 세련되게 가꾸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우리는 자주 그 깨끗

5) 방정환, 새로 개척되는 ‘동화’에 관하여, 『개벽』 31호, 1923 (『방정환전집 2』, 689-690쪽).

6) 방정환, 어린애 기르는 부형과 교사에게, 『천도교회월보』 126호, 1921.

한, 그 곱고 맑은 고향—어린이 마음에 돌아가기에 힘쓰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sup>7)</sup>

모든 어른들이 숲속 나라로, 동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 때 모두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울고 있는 내면아이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따르는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5. 어린이에게 삶의 자기결정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오늘날 어린이들은 예전에 비하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변화가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여전히 온전한 한 인격체로 존중되지 못하고, 단지 보호되어야 할 수동적 존재, 미숙한 존재로, 즉 소유적 관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삶의 자기결정권’은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정환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함을 누차 강조합니다.

어린이는 결코 부모의 물건이 되려고 생겨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기성 사회의 주문품이 되려고 낳는 것도 아닙니다. 그네는 훌륭한 한 사람으로 태어 나오는 것이고 저는 저대로 독특한 한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sup>8)</sup>

지금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은 여전히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들이 여전히 어른들의 소유적 관계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욕구와 감정, 의지와 생각은 온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일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오늘의 행복이 유보되고 저당잡히고 있습니다.

방정환은 ‘아이들은 스스로 자라고, 기쁨으로 자란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은 아이들에게 삶의 자기결정권을 돌려주고 기쁨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방정환이 어린이운동을 통해, 아동문학을 통해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방정환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소중하게 대할 줄 알며, 주변의 동무들, 풀한포기, 그리고 사소한 물건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는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스스로의 재능과 소질이 온전히 싹을 틔움으로써 조화로운 인격형성은 물론, 그 재능이 우리사회를 보다 아름답게 하는 데 활용되는 나라, 어릴 때부터 ‘생명을 모시고 살리는 신생(新生)의 원리를 체득한 아이들이 펼치는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오늘날 아동문학이 이러한 방정환의 꿈을 계승하여, 그가 꿈꾼 어린이나라, 숲속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7) 방정환, 새로 개척되는 ‘동화’에 관하여, 『개벽』 31호, 1923-

8) 『방정환전집 5』, 448-449쪽.

# 기 획 명 표

# 『어린이』 지 ‘어린이날 기념호’와 방정환의 어린이 해방 사상 조명

장정희(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책임연구원)

1. 들어가며
2. 『어린이』 지 ‘어린이날 기념호’ 발행 현황
3. 『어린이』 지 ‘어린이날 기념호’의 전개 양상
  - 3.1. 성장·도약기(1923~1925)
  - 3.2. 중단·파행기(1926~1927)
  - 3.4. 수난·탄압기(1928~ )
4. 어린이날 제정 정신과 방정환의 어린이 해방 사상
5. 나오며

## I. 들어가며

이 글은 『어린이』의 ‘어린이날 기념호’를 대상으로 삼아 1920년대 초기 어린이날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어린이날 운동에 담긴 방정환의 어린이 해방 사상의 측면을 조명해 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주지하듯, 올해는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어린이날 제정 당시의 정황은 방정환의 평문 「조선 소년운동의 역사적 고찰」(조선일보, 1929.5.3.~5.14. 6회)이라는 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소파 방정환을 주축으로 한 어린이날의 제정이 ‘1922년 5월 1일’을 그 기점으로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실증적 문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 방정환은 “임술년(1922년)에 이르러 460명의 소년 군중을 가진 천도교소년회와 각 신문사 및 사회 유지와 동경 유학생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 “소년운동의 일반 이해를 철저(徹底)시키고 또 각지에 이 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어린이달인 5월을 택하고 “5월에도 제1일을 잡아 어린이날로 정하여 운동의 기세를 크게 올리”<sup>9)</sup>게 되었다고 쓰고 있다. 그리하여 이 어린이날 제정을 통해 ‘소년운동의 필요’가 전 민족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곧 조선 소년운동의 역사를 상고하여 돌아볼 때 어린이날 제정이 어린이 운동을 보다 본격화하고 기세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어린이』에 대한 많은 연구는 이 논고에서 모두 언급할 수 없으리만치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어린이』의 ‘어린이날 기념호’를 중점 자료로 하여 그 속에 내재한 방정환의 어린이날에 대한 의지와 그 사상적 측면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이에 본고는 지난 ‘어린이날 제정의 정신과 그 100년의 역사’<sup>10)</sup>의 후속 연구로서 『어린

9) 방정환, 「조선 소년운동의 역사적 고찰 (1)」, 조선일보 1929.5.3.

10) 어린이날 제정에 대해서는 필자의 최근 논문을 참조.

장정희, 「어린이날 제정의 정신과 그 100년의 역사」, 『아동문학평론』 통권 182호, 아동문학평론사, 2022.3.1.

이』의 ‘어린이날 기념호’ 발행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방정환의 ‘어린이 해방’ 사상에 대한 조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조극훈의 「소춘 김기전의 동학 이해와 평등사상-근대 계몽기 소년해방 운동을 중심으로」,<sup>11)</sup> 김정희의 「소춘 김기전의 소년해방 운동」, 「소년운동을 통해 본 동학혁명」<sup>12)</sup> 등에서 김기전의 소년운동과 어린이 해방의 조명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주영의 『어린이문화운동사』, 『어린이 해방-그날로 가는 첫걸음』, 『방정환과 어린이 해방 선언 이야기』<sup>13)</sup>를 통해 방정환의 어린이 해방론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며 어린이 운동사의 사회적 용어로 점차 담론화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어린이 해방은 오래 잊힌 우리 어린이의 미래이며, 미성년 보호라는 미명 아래 어른 사회가 누르고 있는 세계인지 모른다.

1976년 보성사에서 영인본 『어린이』를 낼 때 윤석중은 잡지 풀이말을 쓰며 한국사상연구회에서 엮은 『한국사상』 제12집(원곡문화사, 1974)에 「천도교 소년운동과 그 영향」이라는 글 끝에 다음과 같이 글을 맺었다고 쓰고 있다.

천도교 소년운동의 불멸의 유산은 어린이 가슴마다 심어 주는 3.1정신과 민족정기요, 해마다 맞이하는 어린이날에 모든 어른이 결의를 새롭게 하는 「소년해방(少年解放)」의 마음다짐이다. 천도교 소년운동 만세! 어린이 3.1운동 만세! 어린이 해방운동 만세! 그리고 소파(小波)·소춘(小春) 만세!

이렇듯, 어린이 운동을 해 온 어른이나 어린이 운동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에게 ‘어린이 해방’은 그리 낯설거나 머나먼 용어는 아니다. 방정환의 어린이 운동 역시 어린이 해방의 관점에서 재인식하고 그 역사적 맥락을 조명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본고는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의 경축과 더불어 어린이날 제정 정신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토론과 우리 사회의 진지한 각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방정환 어린이 운동에 대한 핵심적 사상으로서 ‘어린이 해방’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 보고, 그 가치의 사회적 확산에 대한 토론을 제기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이 연구의 기초적 작업으로서 방정환 ‘어린이날 운동’의 집약체인 『어린이』의 ‘어린이날 기념호’를 검토한다. 『어린이』가 ‘어린이날 기념호’를 내며 어린이날을 어린이의 ‘명절’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어린이날의 전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일제로부터 어떤 탄압을 받아야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방정환이 총력을 기울여 일으키고 정착시켜 나간 어린이날 운동의 정신사적 측면으로서 그 핵심의 기저에 있는 어린이 해방 사상이 얼마간 조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어린이』 지 ‘어린이날 기념호’ 발행 현황

11) 조극훈, 「소춘 김기전의 동학 이해와 평등사상-근대 계몽기 소년해방 운동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41호, 2016.12. 253~280면.

12) 김정희, 「소춘 김기전의 소년해방운동」, 『구천(龜泉) 원곡한 교수 정년기념논총(상)』, 혜안, 2000, 463~486면.

\_\_\_\_\_, 「소년운동을 통해 본 동학혁명」, 『실학사상연구』 5·6합호, 모악실학회, 1995, 301~315면.

13) 이주영, 『어린이문화운동사』, 보리, 2014.

\_\_\_\_\_, 『어린이 해방-그 날로 가는 첫걸음』, 우리교육, 2017.

『어린이』만큼 ‘어린이날’을 집중적으로 기념하고 ‘어린이날’을 위해 철저히 준비를 해 온 아동 잡지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동시대에 간행되었던 아동 잡지류와 비교해 보더라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이다. 『신소년』은 1927년 5월호에 신명균이 권두언 격으로 「어린이날」이라는 글을 발표한 것 외에, 따로 잡지 자체를 ‘어린이날 특집호’를 기획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린이』는 달랐다. 『어린이』는 매해 돌아오는 ‘어린이날’을 어김없이 기념하고, 그 특집호를 마련하는 한편, 『어린이』가 어린이날 기념의 중심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어린이』를 창간하던 1923년 그 해부터 ‘어린이날 기념호’를 발행하는 등, 『어린이』는 ‘어린이날의 기념과 계승’을 중요한 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실, ‘어린이날 기념 특집호’는 유독 방정환이 창간한 『어린이』지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1920년대 개성 지역에서 간행된 『새별』지가 ‘2권 5호(1924.5.)’를 ‘어린이날 기념호’로 발행하기도 한 바 있으며,<sup>14)</sup> 이 역시도 방정환과 색동회, 개성 지역 어린이운동가의 연계성 위에 이루어진 기획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 『어린이』 122호에 남아 있는 ‘어린이날 기념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어린이』의 ‘어린이날 기념호’ 발행과 일제의 검열 압수 현황

발행호 표기	『어린이』 권호	비고
어린이의 날號	4호(1923.5.1.)	기념호 발행 (미발굴)
어린이날 축복호	2권 5호(1924.5.11.)	기념호 발행
5월 어린이날 기념 소년소녀대회호	3권 5호(1925.5.1.)	기념호 발행
어린이날 기념호	4권 5호(1926.5.1.) *방정환, 「어린이날」 발표 *순종 국상으로 어린이날 중지	기념호 발행
(계획) ‘어린이날 축복호’	5권 4호(1927.4.1) ‘봄맞이호’ 발행 후 5권 5호 (1927.6.1.)를 ‘5·6월호’로 발행함	기념호 미발행
(검열 압수) ‘어린이날 기념호’	6권 2호(1928.3.20.) 창간 5주년 발행 후 6권 3호 (1928.5.20.)를 ‘5·6월 합호’로 발행	검열 압수 기념호 미발행
어린이날 기념호	7권 4호(1929.5.10.) ‘어린이날 기념호’ *원고 대부분 불허가 *최청곡의 「어린이날 일기」 검열로 삭제	원고 검열 압수 기념호 발행
옛동무 작품호	8권 5호(1930.5.20.)	기념호 미발행
어린이날 기념호	9권 4호(1931.5.20.) ‘어린이날 기념호’	발행

『어린이』의 ‘어린이날 기념호’ 발행은 방정환이 『어린이』를 창간하던 1923년 5월호부터 그가 작고하는 1931년 5월호까지, 7권 4호(1929.5.10.)만 ‘옛동무 작품호’로 계획된 것 외에, 부단히 발행하고자 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력을 통해 방정환이 생존

14) 장정희·서희경, 「1920년대 개성 아동지 『새별』 연구」, 『한국문학논총』 84호, 2020.4.

해 있는 동안 『어린이』의 ‘어린이날 기념호’는 매년 5월 맞이하는 ‘어린이날 선전’과 일체가 되어 함께 움직여 나갔음 또한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어린이』 4권 5호(1926.5.)는 ‘어린이날 기념호’로 발행되었으나, 그 해 순종 황제 국상으로 인해 ‘어린이날 선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어린이』 5권 4호(1927.4)는 ‘어린이날 축복호’로 편집할 계획이었으나 방정환이 ‘개벽 필화 사건’으로 차상찬과 검사국에 한 달 가장 검속되어 있다가 어린이날을 앞둔 4월 26일<sup>15)</sup> 석방되어 ‘5·6월 합호’로 발행 연기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1928년 5월 ‘어린이날 기념호’는 일제의 검열 압수로 발행되지 못하고 또 다시 ‘5·6월 합호’로 발행되는 수난을 겪었으며, 1929년 5월 ‘어린이날 기념호’ 역시 일제의 검열에 어린이날 특별 원고 대부분이 불허가되었는데, 이 글 가운데 방정환과 이정호의 글이 포함되었다.

유일하게 ‘어린이날 기념호’로 기획되지 않은 것은 『어린이』 8권 5호(1930.5.20.)가 ‘옛 동무 작품호’로 발행된 것이 유일하고, 방정환이 작고한 1931년 5월에는 ‘어린이날 기념호’가 발행되었지만, 방정환의 건강과 요양으로 실질적으로 그의 글은 전혀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로 보면 『어린이』의 ‘어린이날 기념호’와 ‘어린이날 선전’이 상호 추동력을 가지면서 힘차게 발전해 간 시기는 ‘1923년부터 1925년까지’였으며, 우리나라 어린이날 운동의 황금기를 이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Ⅲ. 『어린이』 지 ‘어린이날 기념호’의 전개 양상

이 장에서는 『어린이』의 ‘어린이날 기념호’의 발행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서 어린이날의 전개 과정을 들여다 본다. 크게 ‘성장·도약기(1923~1925)’ ‘중단·파행기(1926~1927)’ ‘수난·탄압기(1928~ )’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논의해 본다. ‘어린이날 기념호’ 계획 및 어린이날 준비 과정에 대한 자료는 지면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전문을 인용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 1. 성장·도약기 (1923~1925)

##### ☐1923년 『어린이』 4호(1923.5.1.): 인류 평화 지향의 어린이날 세계관

현재 『어린이』 4·5·6·7호는 미발굴 상태이다. 그러나 영인본으로 현재 남아 있는 『어린이』 3호(1923.4.23.)에는 4호를 ‘어린이의 날號’라고 예고하고 있으며, 국립한글박물관의 개관 기념 전시 때 4호 소장자의 허락으로 어린이날과 관련된 일부 내용이 공개된 적이 있어 본 논의와 관련하여 소개를 한다.

먼저, 『어린이』 3호의 12면<sup>16)</sup> 하단에 짧게 소개된 ‘어린이의 날호’ 예고편을 보자.

요다음 4호는 5월 1일에 내이게 되자 5월 1일은 1년 중에 제일 깃븐 날.  
어린이의 날

15) 「차상찬 방정환 양씨 석방」, 동아일보 1927.4.29.

16) 『어린이』는 창간호부터 7호까지는 12면 46배판 신문형태로 나왔다.

입니다. 이날은 세상 모든 사람이 1년 3백 60일 중에 이 날 한 날을 특별히 어린이의 날로 명해 노코 어린이를 위하여 일하고 어린이를 위하여 생각하고 어린이를 위하여 놀자는 날입니다.

그럼으로 맞침 이 깃븐날에 ○○되는 우리 「어린이」 잡지는 특별히 더 크게 더 재미있게 꾸여서 어린이의 날을 축복하고 또 기념하기 위하여

#### 어린이의 날號

로 하기로 합니다.

보통 책 외에 세계 각국 어린이의 사진을 모아느코 재미있는 동화와 소설은 물론 세계 소년 소개 꽃 이야기 외에 처음 보는 재미있는 것을 갖듯이 내이겠습니다.

아아 일년 중에 깃븐날 어린이와 ○께 어린이의 날號가 나올 5월 1일을 기다려 주십시오.

- 「어린이의 날」, 『어린이』 3호, 1923.4.23. 12면.

1922년 5월 1일 첫 어린이날이 시작될 당시에는 어린이날을 ‘어린이의 날’이라고 명명했기 때문에 창간 무렵 『어린이』에서도 ‘어린이의 날’ ‘어린이의 날號’라고 인쇄된 것을 볼 수 있다. 방정환의 『어린이』는 실로 ‘어린이날’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어린이날 운동은 곧 그의 어린이 운동과 합일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과연 『어린이』의 첫 어린이날호는 어떠한 면모를 보였는지 보기로 하자.

#### 어린이의 날

이 즐겁고 깃거운 어린이의 날을 축복하십시오.

오월의 첫날을 축복하십시오.

네전 네-전부터 이 날게 천명의 소녀들이 종잘새보다 일즉 깨여서 봄을 차즈러 갖다는 날이 이 날이며 깃뵈히고 배 주린 못 사람이 생명을 차즈러 나선 날이 이 날이며 세상 모든 사람이 오즉 어린이를 위하여 일하고 생각하고 놀고 하여 평화롭게 지내자는 날이 이 날입니다.

이 날에 한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린이에 돌아오는 날이며 이 날에 한하여 사람사람의 마음에 간격(間隔)이 업시 어린이의 나라에서 한테 영키어 5월의 세상가티 신선하고 맛듯한 평화의 봄날을 니루는 것입니다.

어린이답게 질겹게 깃겹게 뛰고 놀고아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질겹게 하고 깃긋하게 하여 무한히 즐겁운 중에 이 날을 보내십시오. 이러케 이 날 하로를 잘 보낸은 그 해 일년을 질겹게 하는 것일지요. 해마다 해마다를 이러케 보낸은 그것어 엇더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어리게 깃긋하게 하는 것이며 딸하서 얼마나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힘잇는 가륙한 일이겠습닛가.

자아 모다 모히어 소리를 합하여 노래를 부르십시오.

세상과 사람을 위하여 가장 거룩한 이 날을 축복하기 위하여.

- 「어린이의 날」, 『어린이』 4호(1923.5.1.) 1면

이 『어린이』 4호는 ‘발행 기일’을 ‘5월 1일’로 하였지만, 실제의 인쇄는 ‘5월 7일’ 발행은 ‘5월 8일’로 되어 있다. 이 글은 무기명으로 발표되었으나 방정환의 글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창간호에서 사용한 ‘어린이의 나라’라든지, 그의 글에서 종종 표현되는 ‘한테 영키어’라든지 하는 예술적 특징들이 이러한 판단을 가능케 하는 한 요소가 된다. 이 글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은, ‘어린이의 날’을 통해 방정환이 지향하고 있는 인류 평화 지향의 세계관이다. ‘어린이의 날’이 있어 모든 사람이 ‘어린이에 돌아오는 날’이 될 수 있고, ‘사람사람의 마음에 간격이 없이’ 어린이의 나라에서 한테 어울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해마다 해마다’ 이 어린이날을 기념해 가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깃긋하게 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가륙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방정환에게 어린이날은 단순히

어린이를 위한다는 단계를 넘어 모든 사람이 어린이날 어린이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는 날이었다. 이 짧은 머리말에서 “축복”이란 표현은 3회 사용되었고, “평화”라는 표현도 3회나 사용되었다.

### ☑1924년 『어린이』 2권 5호(1924.5.11.) ‘어린이날 축복호’: 34만 장 어린이날 선전지의 전국 요청과 배포

앞서 ‘어린이날’과 관련하여 방정환이 가장 많이 쓴 상징적 표현이 바로 ‘축복’과 ‘평화’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린이』 2권 4호(1924.4.)에는 다음호 ‘어린이의 날 축복호’를 예고하는 광고가 크게 실려 있다. 그 표지를 예고하면서 “우선 것장부터 평화로운 희망에 빛나는 녹색으로 빛나게 하고”<sup>17)</sup>라고 쓰고 있다. 또 ‘남은 잉크’에서는 “5월 1일은 어린이의 날이닷가 어린이운동도 크게 선전하러니와 어린이 잡지는 또 특별축복호로 굉장하게 꾸밀 터”<sup>18)</sup>라고 하였다. 어린이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데 대한 방정환의 기대 심리와 함께 목표의식 또한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방정환은 어린이날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한 창작동화 「4월 그믐날 밤」을 발표한다. 이 동화에서 그는 ‘5월 1일 초하루’를 “참말 새 세상이 열리는 첫날”<sup>19)</sup>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렇게 1924년 5월 어린이날을 어떻게 준비해 나갔는가 하는 것은, 『어린이』 2권 5호(1924.5.11.)와 2권 6호(1924.6.10.)에 잘 나타나 있다.

□ 『어린이』 2권 5호(1924.5.11.) ‘편집후기’

-사고(社告)-

원래의 예명은 이번 특별 부록으로 어린이 뽑기라는 그림 찬란하고 재미나는 교육(教育) 작란감을 댄들어 드릴 작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21일부터 방선생님은 물론이요 우리 사원이 모다 나서서 「어린이날」 준비에 착수하여 5월 5일까지 15일 동안 눈코뜰 사이 업시 뵈쁘게 지내느라고 그것을 댄들 사이가 업섯습니다. 어린이날 준비도 역시 여러분을 위해 한 일이지만 너으러던 것을 너치 못한 것은 엇더케 말하랴 수 업시 섭섭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사진 부록을 너기로 하고 큰 도회지에 계신 독자들께는 활동 사진을 보여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 사정을 곱히 짐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2권 6호(1924.6.10.) ‘편집후기’ (방정환, 5월 14일 작성)

○4월 보름께부터 5월 열흘께까지 거운 한 달 동안을 「어린이날」 준비와 또 선전으로 하여 한시 잠시 안저 잇을 사이 업시 뵈쁘게 지내엿습니다. 하고한날 일훈 아츨부터 밤중이 지나고 다시 새벽 세 시 네 시가 되기까지 일을 하기를 꼭 보름 동안이나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강진동(姜鎭東)씨 정병기(鄭炳基) 갓흔 이는 병이 나기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5월 엿새날까지 다- 치루고나니 누구에게 흠뻘 두들겨 마진 사람가티 원 전신이 압히고 느런하게 느러지면서 코피가 작고 쓰다졌습니다. 참말이지 처음 당해 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치루어 늦코 보니 그릇케 마음에 갓겍고 유쾌한 일은 업섯습니다. 34만장의 선전지를 식골마다 보내늦코 여긔저기 식골 소년회에서 던보(電報)가 작고 오고 5백리 6백리 나 되는 먼 식골서 던화(電話)로 선전지 어서 보내라는 독촉이 작고 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괴운이 북적 들어가는 것을 늦겼습니다. 괴운이 나고 신이 생겨서 몸이 부서줄 뻔하여도 모르고 그냥 즐

17) 『어린이』 2권 4호, 1924.4. 뒷표지.

18) 「남은잉크」, 『어린이』 2권 4호, 1924.4. 48면.

19) 소파(방정환), 「4월 그믐날 밤」, 『어린이』 2권 5호, 1924.5. 36면.

거운 마음으로만 일하셨습니다.

○넘어 몹시 피곤하여서 한 2,3일 동안 편히 수이려고 하닛가 큰일났습니다. 『어린이』 편집이 또 늦지 안엇습닛가. 그레 한시도 쉬지 못하고 힘업시 느러진 팔에 철필을 잡고 모진 악을 써가면서 이 책을 편집했습니다. 그러나 피곤하였다고 이번 어린이에 힘을 덜 쓰지는 결코 안엇습니다. 이 귀중한어린이의 한 줄 한 귀라도 소홀히 할 수는 도더히 업섯습니다.(5월 14일 方)

1924년 5월 어린이날을 당하여, 『어린이』 편집을 포함하여 어린이날 준비를 위해 ‘4월 보름부터 5월 10일 무렵’까지 거의 ‘한 달 간’ 준비한 고생의 기록이 잘 나타나 있다. 방정환을 위시한 『어린이』의 편집진이 총력으로 준비하였다. 특히, 1924년 어린이날을 다 치르고 ‘5월 14일’에 쓴 방정환의 글은 행사 총평 격이어서 눈길을 끈다. 먼저, 이 글에 “5월 엿셋날까지 다 치루고 나니”라고 한 점으로 보아 당시 어린이날 선전이 5월 1일 하루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 주간 동안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당시 제작된 어린이날 선전지가 “34만장”이었다는 점도 확인된다. 1922년 5월 1일 첫 어린이날에는 ‘2만 1천매’(천도교회월보 1922.5.), 1923년 5월 1일 제1회 어린이날에는 ‘20만매’(동아일보 1923.4.20.)이었던 데서, 1924년 5월 어린이날 맞이해서는 한 해 전에 비해 무려 14만 장을 더 찍었다는 것이며, 이는 그만큼 각 지역에서 선전에 참가한 소년 단체와 어린이의 참여 숫자가 많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 ☒ 『어린이』 3권 5호(1925.5.1.) ‘5월 어린이날 기념’: 전국 어린이 참가 ‘소년소녀대회’, 조선·일본 동경에서 어린이날 행사

1922년 5월 1일 첫 어린이날이 시작된 후, 1923년에는 4월 17일 소년 단체가 연합하여 ‘조선소년운동협회’가 결성되었고 그 해로부터 ‘1회’라는 회차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방정환은 「조선소년운동의 역사적 고찰」이라는 글에서, 어린이날의 횡수를 ‘1922년 5월 1일’을 기점으로 추산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필자 역시 1923년에 사용된 ‘1회’의 ‘회’가 ‘돌아올 회(回)’, 즉 그 당대에 ‘돌’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sup>20)</sup>

1923년 『어린이』에는 ‘어린이의 날’로 사용되던 명칭이, 1924년 『어린이』부터는 ‘어린이날’로 축약해 쓰기 시작한 것이 보고, 1925년 『어린이』에서도 ‘어린이날’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으로 봐 1924~25년 사이에 ‘어린이날’이라는 명칭으로 정착되어 간 것을 볼 수 있다. 1925년 5월호 『어린이』는 표지에 ‘5월 어린이날 기념’과 ‘소년소녀대회호’ 2개의 문구를 인쇄하고 있다. 『어린이』 잡지 차원에서 ‘조선소년소녀대회’를 열게 되고, 일본 동경 색동회 회원들이 ‘특별한 어린이날의 선물’로 보내온 원고를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sup>21)</sup>

대체적으로 5월 1일 어린이날 준비를 위해서 『어린이』는 4월호부터 미리 예고를 내고 준비할 사항을 알려주고 있다. 1925년 5월 1일 어린이날 기념 과정은 준비 단계의 『어린이』 3권 4호(1925.4.1.), 3권 5호(1925.5.1.)의 ‘편집후기’, 어린이날을 치르고 난 뒤의 『어린이』 3권 6호(1925.6.1.) ‘편집후기’에 잘 나타나 있다.

20) 장정희, 「어린이날 제정의 정신과 그 100년의 역사」, 『아동문학평론』 2022. 봄호. 33면.

21) 해당 잡지의 ‘편집을 마치고’(20~21호)를 보면, “동경 색동회의 여러분이 특별한 어린이날의 선물로 여러 가지 우너고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편집이 끝난 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레 보내주신 뜻을 생각하여 편집된 것을 다시 헛치고 몇 가지를 빼인 후에 그 대신 동경에서 온 것을 너엇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 『어린이』 3권 4호(1925.4.1.) ‘4월호’ 「편집을 맞치고」

○나는 이 책의 편지를 맞치고 다시 지방으로 갑니다. 몇 군대의 소년소녀대회에 참여하려고 나의 사랑하는 어린이 동모를 만나 뵈오려고 깃브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골 동모들을 차져 갑니다. 만나서 만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말씀할 기회가 업스니 지금 여기에 간단히 말씀해 둡니다. 5월 1일! 발서 아시겠지만은 1년 중에 데일 즐거운 날 『어린이날』이 갓가와 옵니다. 다- 각기 이 어린이날을 더할 수 업시 즐겁고 또 갑있게 마치하기 위하여 다- 가티 준비하십시오.

○소년회에서는 모다 4월부터 미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문제강연 소년연설 소년의 운동 소년토론 될 수 잇스면 5월 1일부터 여러 날 계속하여서 해도 조흐니 그 몇칠 동안은 일군(一郡) 일촌(一村) 사람이 모다 어린이날의 의의를 잘 알고 어린이 어린이 하고 지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년회 업는 곳에선 립시로라도 조흐니 소년들이 모여서 어린이날 축하회를 하여도 좃코 또 소년회 업는 곳에서는 개인으로라도 경성으로 선전 광고지를 청구하여 동리에 뿌려서 소년운동 등에 힘써 주시는 것이 조흔 일일 것갓습니다.(方)

□ 『어린이』 3권 5호(1925.5.1.) ‘어린이날 기념호’ 「편집을 맞치고」

펼 뒤송송한 속에서 5월호가 간신히 편집되었습니다. 5월 1일의 『어린이날』 준비를 시작하랴 또 한편으로 기자대회가 잇서서 수선스럽고 하여 몹시 수선스런 속에서 짜여졌습니다.

□ 『어린이』 3권 6호(1925.6.1.) ‘6월호’ 「편집을 맞치고」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에 어린이날 준비를 위하여 아모 것도 업는 빈 손으로 여러 가지를 주선하노라 낮에 밤을 잇고 밤에 낮을 대여 일하고 괴어코 5월 1일 밤에는 언단 우에서 말하다가 코피를 쫓아 수치를 당하고 다시 뒤엿일을 치닥거리 하노라고 5월 10일까지 골몰하고 그리고 어린이날까지에 쓴 돈이 부족하여 빚에 줄리다가 괴어코 산보(散步) 한 번 못하고 몸조섭도 못하고 그냥 뒤니어 편지를 시작한 꼴이 하도 피곤한 꼴이라 간신히 간신히 하여 인제야 편집해 노은 꼴이 애쓴 만큼 그리 샷뜻하게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미안한 말씀을 길게 쓰지는 말기로 하고 이번 어린이날 축하와 선전 운동은 대단히 규모가 크게 질서 잇게 잘 되어서 마음이 한업시 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상황을 여러분에게 자상하게 알려 드리려 하였스나 뜻과 갓치 되지 못하고 종의도 좁아서 그만흔 이야기를 도저히 쓸 수 업시 되었습니다.

○다만 그날 원 묘선 10만여 명의 동모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밤을 새여 선전에 노력한 일과 경성에서는 유치원 아기씨들과 맨발 버슨 빈한한 동모들까지도 다- 참여하여 기 행렬에 참가한 것이 특서할 일이고

○동경에서 색동회 여러 어른의 주선으로 어린이날 축하가 가장 찬란하고 가장 감격 만흔 중에 성대히 된 것이 더할 수 없이 갓븐 일이었고

○특별히 소년회가 업는 지방에는 선전을 부탁할 곳이 업서서 생각다 못하여 「어린이 애독자」에게 부탁하였더니 개인 개인의 몸으로도 그 날 일을 수이고 훌륭히 힘써 선전해 주신 일은 우리 10만 독자와 갓치 깃버하고 갓치 감사하고 심흔 일입니다.(方)

1923년 5월호부터 계속 소식을 신고 잇는 ‘어린이날 준비’ 내용은 3년째 해를 거듭할수록 내용도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운동을 움직여 나가고 있음이 확연해진다. 1924년부터는 전국에 조직된 소년회가 자발적으로 움직여 ‘어린이날’ 선전지를 요청하기 시작했고, 1925년부터는 전국 소년회는 물론 이미 10만 독자를 확보한 『어린이』의 개인 애독자까지 일부 가담하였다. 특히 1925년 5월 어린이날에는 동경 유학생이 중심이 된 <색동

회>가 동경에 있는 조선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날’ 축하를 했다는 것이 특별한 기사로 다루고 있다.

“이번 어린이날 축하와 선전 운동은 대단히 규모가 크게 질서 있게 잘 되어서 마음이 한 없이 유쾌”하였다고 쓴 것으로 보아, 1925년 5월 어린이날 준비에 방정환은 크게 흡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이미 1922년 5월 1일 첫 어린이날로부터 4년째 되는 1925년 어린이날까지 치러 내면서 건강에 무리가 되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여러 가지를 주선”해야 했고, “낮게 밤을 잇고 밤에 낮을 대어” 일을 하다가 결국 어린이날 당일인 ‘5월 1일’ 연단에서 연설을 하다가 ‘코피’를 쏟아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 ‘코피 사건’은 1924년 어린이날 때도 이미 ‘4월 보름부터’ 근 한 달 가량 어린이날을 준비하고 선전하면서 그 뒤 끝에 코피가 자꾸 쏟아진 사건이 있었다. 벌써 두 해째 ‘코피 사건’을 겪고 있는 상태였다.

최근 발굴 소개한 이정호의 「어린이날 이야기-어린이 운동의 발현과 ‘어린이날’의 창정(創定)」(신여성 47호, 1932.5.)에 의하면,<sup>22)</sup> 1925년 5월 1일 어린이날에는 ‘기념식과 기행렬’에 참가한 어린이가 전국에서 약 ‘30여 만’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위에 인용한 방정환의 ‘편집후기’에서 방정환은 『어린이』의 ‘10만여 명’ 어린이들이 선전에 노력하여 경성에서는 ‘유치원’ 어린이들과 ‘맨발 벗은 빈한한’ 어린이들까지도 기행렬에 참가하였다고 ‘특서(特書)’할 일이라고 쓰고 있다.

## 2. 중단·파행기 (1926~1927년)

### ☒ 『어린이』 4권 5호(1926.5.1.) ‘5월 어린이날 기념호’: 순종 국상으로 인한 ‘어린이날’ 중지

그런데 1926년 5월 1일 어린이날의 기념과 『어린이』의 발행 내용은 다소 불일치되는 면이 있는데, 이는 어린이날 기념이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국상(4.25. 승하, 장례식 6.10.) 등으로 ‘어린이날’을 처음으로 치르지 못하게 된 것이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

1926년 5월 1일, 방정환이 주축이 된 ‘조선소년운동협회’가 어린이날을 기념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린이』 부록 신문 『어린이세상』 8호(1926.6.)에 실린 입장문 <지방 소년 단체에>라는 글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된다.

이 입장문에서 조선소년운동협회 측은 “금년(1926년: 인용자 주) 『어린이날』은 아조 중지되었습니다.”라며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다. “선전지 1백만 매”를 인쇄해 놓고 “기행렬 준비”까지도 해 놓았으나 “국상으로 인하여 음력 5월 1일에도 못하게” 되어 구차하게 연기하는 것은 오히려 “『어린이날』의 진정한 의의를 감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순종 황제가 갑자기 ‘4월 25일’ 승하함에 따라 어린이날의 변경 및 이동이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26년 음력 ‘5월 1일’은 마침 순종 황제 장례식으로 예정된 ‘6월 10일’이었던

22) “이 「어린이날」 기념이 첫 해(1922: 인용자 주)에 있어서는 일반에게 대한 선전이 미급한 관계상 그에 대한 의식이 명확하게 되지 못하여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해가 거듭함에 따라 놀라운 성적을 얻게 되어 1925년의 이 날에는 처음으로 전국에서 약 30여 만의 어린 사람이 이 운동에 참가(기념식과 행렬에 참여한 것을 표준한 것)하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정호, 「어린이날 이야기」, 『신여성』 47호, 1932.5.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 4권 5호(1926.5.)는 ‘어린이날 기념호’로 발행되었다. 앞선 조선소년운동협회 입장문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선전지 1백만 매’를 인쇄해 놓았을 정도였으니, ‘1926년’ 이 해 어린이날 선전에 방정환이 얼마나 의욕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했는지 충분히 짐작되고도 남는다. 1924년에 ‘34만매’를 인쇄한 후 2년만에 그 3배 가량의 선전지를 인쇄하였음은, 어린이날의 기세가 그만큼 더욱 높아졌음을 방증하는 것

地方少年團體에

금년『어린이날』은 아조중止되었습니다。선전지百萬枚도 다박여노았고 旅行列준비도 다해노았으나 국상으로연하야 음력五月一日에도 못하게된고로 더이날 저날 구차히 연기하는것은『어린이날』의 진정한 의의를 감하게하는일이고 따라서『어린이날』의 힘을 약하게하는일이고 어느해에던지 五月一日에 못하게되면 그해는 中止하야 몇달해나 몇사람의 의견으로 이리저리연기할수업는것인줄로 알게할필요가잇서 아조중止하기로하였습니다。 그리고 五月단오에나 또다른날에나 조흔기회에어린사람을즐겁게놀리거나 『어린이保育』선전하는일은 마음대로 얼마던지 할씨할일이외 역시로 『어린이날』이란 이란인공으로 할必要도업거나와 그리하는것은 不可한일인즉 단오나 다른날에하는일은 『어린이날』이라 하지 말고 『단오노리』라 하던지 『어린이노리』라 하던지 다른일을 勿쳐서 하자고결의되었습니다。 地方단체에서도 이뜻을 斷혀 贊成하시교되도록 그리하시기바랍니다。 朝鮮少年運動協會

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고는 이 시기가 어린이날이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한 시기이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로 중단된, 다소 역설적인 시기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이 해에는 방정환이 처음으로 ‘어린이날’의 운동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한 글 「어린이날」을 발표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본고가 해명해 나가고자 하는 방정환의 ‘어린이 해방 사상’이 집약적으로 담겨 있는 글이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 사회주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린이 활동과 시설에 대한 박봄의 「어린이날을 마즈면서 요선 소년 동모들께」라는 글도 소개하고 있다.<sup>23)</sup> 방정환의 「어린이날」 기사와 그의 어린이 해방 사상에 대해서는 4장에서 따로 다루기로 한다.

그러면 조선소년운동협회의 공식 입장에 따라 1926년 5월 1일 어린이날 기념이 결국 중지 결정이 되었지만, 『어린이』 4권 5호(1926.5.) ‘어린이날 기념호’에 남아 있는 당시의 어린이날 준비 상황을 상고해 보기로 한다.

- 『어린이』 4권 5호(1926.5.1.) ‘어린이날 기념호」 「편집을 맞치고」
- 이번 5월호는 「어린이날 기념호」 인고로 다른 때보다 특별히 굉장한 차림을 할 요량이었것만 어린이날 준비하는 때 이 책도 편집하게 된고로 몹시 맞브고 어수선한 중에 편집되어 처음 계획과는 몹시 달라졌습니다.
- 이 책이 여러분의 손에 퍼지게 될 날은 5월 1일! 우리의 마음이 다갓치 뛰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는 이 책이 그 날 여러분 품에 안김으로써 그 날의 깃뚝이 족금이라도 여러분께 더 하여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여러분 다갓치 재조갓 마음갓 금년의 어린이날을 즐겁게 깃브게 지내십시다. 그리고 될 수만 잇스면 자기 지방의 소년회에 뛰여 들거나. 또 맞들어서 선전에 힘을 맞치십시다. 그리하여 이 「어린이날」이 완전히 명절이 될 때까지…….

이 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 4권 5호(1926.5.) ‘어린이날 기념호’ 편집은 순종 황제 승하(4.25.) 전에 이미 완료되었다는 것이다. 원고를 편집하여 일제의 검열국을 거쳐 허가를 받기까지는 약 ‘20여 일’<sup>24)</sup> 정도 소요된다고 감안하였을 때 인쇄일은 ‘4월

23) 두 편의 글은 본고의 말미에 부록으로 첨부해 둔다.  
24) 『어린이』 창간호를 낼 무렵 “소위 원고 검열하는 절차가 어떻게 까달아운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어느덧 이십여 일이 획 지나가고 인쇄하는 동안에 또 며칠이 걸리고 하야”라는 내용을 실은 「사고(謝

30일’, 특히 위의 글에서 “이 책이 여러분의 손에 퍼지게 될 날은 5월 1일”이라고 언급한 대목을 주목해 볼 때 적어도 이 ‘어린이날 기념호’는 4월 중순에 편집이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방 소년 단체에」라는 글에 언급되었던 어린이날 기념 선전지 ‘1백만 매’의 선전지 배포의 문제와도 연결된 지점이라고 짐작된다. 이렇게 방정환이 매년 어린이날 기념 선전을 확장해 나갔던 이유는 바로 위의 글에서 그가 쓴 것처럼 “이 「어린이날」이 완전히 명절”이 되기를 바랐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 『어린이』 5권 5호(1926.6.1.) 계획으로만 멈춘 ‘어린이날 축복호’

『어린이』 5권 4호(1927.4.1.) 「편지를 맞치고」에서 이정호는 다음과 같이 어린이날 기념호에 대해 예고한다.

○5월달이 또 갖가왔습니다. 5월 초하로날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린이날이 안이갓습닛가? 그래 어린이날 운동도 굉장히 선전하고 힘쓰려니와 어린이 5월호는 특별히 『어린이날』 축복호로 훌륭하게 꾸밀 껍니다.

-정호(이정호), 「편지를 맞치고」, 『어린이』 5권 4호, 1927.4.1. 66면.

그러나 ‘어린이날 축복호’로 발행 계획이던 『어린이』 5권 5호(1927.6.1.)은 ‘5월호’를 내지 못하고 결국 ‘5, 6월호’ 합호로 내게 된다. 이 해 5월은 방정환이 ‘개벽 필화 사건’으로 ‘30일 동안’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sup>25)</sup> 결국 이 사건으로 편집에 전혀 관계하지 못하게 되었던 듯하다. 『어린이』 5권 5호는 6월호를 내야 할 시점에 겨우 ‘5,6월호’로 합본 발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도 방정환이 노심초사하며 걱정한 것은 ‘5월 어린이날’과 ‘『어린이』 발행’이었다.

□ 『어린이』 5권 5호(1927.6.1.) ‘5,6월호’ 「편집실에서」

내가 이려고 잇노라고 『어린이』가 발행이 못 되거나 몹시 느저지거나 하면 그 노릇을 엇지 하며 5월 1일 어린이날 일이 끄세가 꺾기면 엇지 하나…… 오죽 그 두 가지 일 때문에 마음이 몹시도 괴로왔고 밤에도 잠이 평안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아 참말 10만 독자의 기대와 나의 소중한 책임을 생각할 때에 내 가슴은 불에 타는 듯이 압혔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중에서도 어린이날 일에는 소년운동협회의 여러분 동무가 있고 『어린이』에는 나의 가장 믿는 이정호 씨와 색동회의 여러분이 계시닛가 내가 업서도 잘들 보아주려니 생각할 때에 얼마나 기쁘고 다행하였는지 모릅니다. 그 두 가지 믿음으로 나의 괴로운 마음은 저으기 저으기 구원되었습니다.

告)가 있다. 『어린이』 창간호, 1923.3.20.

25) 『신여성』이 폐간되면서 연재하던 ‘은파리’가 『별건곤』 1927년 2월호로 옮겨가서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 호에 방정환은 개벽 필화 사건으로 비화한 글을 실게 된다. 이 글에서 “남편을 다섯 번씩” 갈았다는 ‘처녀 시인’을 언급하는데, 이 글에서 ‘그녀’가 자신의 과거에 썼던 풍자 기사를 문제 삼아서 항의한 내용을 언급하게 된다. 바로 『개벽』 1921년 3월호 ‘은파리’에서 남성을 수도 없이 만나고 다닌다던 독신주의 시인 ‘김양’이라고 써 놓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독자들은 『별건곤』에 등장하는 백상규가 새로 만나는 ‘○○○여사’를 ‘김명순’으로 의심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 기사에 대해 ‘색마’로 묘사된 ‘백상규’와 ‘처녀시인’으로 지목된 ‘김명순’이 함께 명예훼손 고소를 함으로써, ‘은파리 방정환’과 ‘개벽사 별건곤 발행인 차상찬’은 서대문형무소에 구금되었다. 결국 백상규의 고소 취하로 개벽필화사건은 일단락되었으나, 『신여성』을 창간 발행하며 방정환은 그 편집의 책임자로서 김기진이 발표한 「김명순의 공개장」에 대한 김명순의 반박문을 실지 못한 점, 결국 개벽사 김명순 필화사건이 비화된 『신여성』의 발행인이라는 점과 관련해서는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방정환에 대한 마녀사냥식의 접근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을 보면 방정환이 바깥일을 못 볼 때 ‘어린이날’은 조선소년운동협회, 『어린이』는 이정호와 색동회 동지들에게 심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방정환은 “5월 1일 어린이날 일이 기세가 꺾이면 어찌하냐”라고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면모는 ‘어린이날 운동’이 곧 그의 어린이 운동 자체였다는 점과 깊이 관련이 있으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어린이날 운동에 담긴 방정환의 사상적 측면에 대해 다시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 3. 수난·탄압기 (1928~ )

#### ☒ 『어린이』 6권 3호(1928.5.20.) ‘어린이날 기념호’ 원고 압수

1928년도는 『어린이』가 가장 적게 발행된 해였다. 이 해는 10월 ‘세계아동예술전람회’가 개최된 해이기도 했지만, 신년호부터 일제의 총독부 경무국으로부터 ‘압수의 명령’을 받아 ‘300여’ 곳에 배포되어 있던 『어린이』지를 모두 ‘몰수’ 당하는 일을 겪게 되었다. “내지 못할 말을 냈다는 이유”가 일제 검열 당국의 입장이었다. 1928년 『어린이』 신년호에 발표한 송영의 글 「쫓겨가신 선생님-어떤 소년의 수기」를 문제 삼았으리라는 것이 기존 연구를 통해 논의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일제의 눈을 거슬리게 한 대목이 없지는 않았다. 바로 「상무적(尙武的) 소년이 되라」<sup>26)</sup>는 김동환의 글이다. 이렇게 1928년도는 신년호부터 『어린이』는 검열과 핍박을 더 심하게 받기 시작하였다. 『어린이』 6권 2호(1928.3.)의 ‘사고(社告)」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동모들께 고합니다」와 ‘편집후기’를 보면, 방정환은 직접 불러 다니면서 조사를 받고 날마다 총독부에 들어가서 교섭을 하지만 끝내 좋은 해결을 못 본 것으로 쓰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이 와중에 ‘창간 3주년 기념호’로 낸 『어린이』 6권 2호(1928.3.) 편집후기에 분명히 ‘어린이날 기념호’를 내겠다고 쓰고 있는 내용이다.<sup>27)</sup>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린이』는 ‘어린이날 기념호’를 발행하지 못하고 어린이날이 한참 지난 뒤라 ‘5월 6월 합호’로 내게 된다. 이 역시 원고 검열로 발행이 늦어지자 초래된 결과이다.

그런데 『어린이』 6권 3호(1928.5.)에는 ‘어린이날 기념호’ 원고로 써 둔 편집후기가 그대로 실려 있다. 일제의 검열로 원고가 압수되어 실린 같은 호 ‘사고(社告)’ 내용을 견주어 보기로 하자.

26) “여러분! 하고 심흔 말을 다 할 수 업스나 잊겠든 부리부리한 사람이 되십시오. 암전하다거나 품행이 조타거나 하는 것보다 나는 여러분이 사자가티 용맹스럽게 뛰어나는 그런 피에 끌는 소년소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무용(武勇)을 숭상할 때가 온 것이니까.”(김동환, 「상무적 소년이 되라」, 『어린이』 6권 1호, 1928.1.)

여기서 ‘상무적’이라면 ‘무예를 숭상하는’ 그런 소년이 되라는 취지이다. 조선 사람은 밤낮으로 “장담이나” 하고 “붓이나” 들 줄 알았지 “용기있게” 나서는 백성이 아니었기에 “오늘의 경우를 당한 것”이라고 쓰고 있다. ‘오늘의 경우를 당한 것’이라면 독립국이 되어야 할 조선의 형편이 일제의 지배 아래 놓여 핍박을 받게 된 경우를 말함일 것이다.

27) “그리고 또 한 가지 5주년 기념으로 특별 선물을 독자에게 만드려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조선에서 처음 보는 조흔 것입니다. 지금 작고 작고 만드는 중인데 미처 다 되지 못해서 요 다음 책 『어린이날號』에 꺼서 드리기로 되었습니니다. 그것이 대체 무엇일까…… 보기만 하면 늙은이도 달겨들어 욕심낼 물건…… 5월 초하룻날까지만 기다려 주시되 당신의 동모에게 미리 미리 자랑해 주십시오. 미리 미리 주문해 두라고요.(사고) (밑줄: 인용자)

사고, 「편집을 맞치고」, 『어린이』 6권 2호, 1928.3.20. 68면

□ 『어린이』 6권 3호(1928.5.20.) 「사고(社告) 이 책을 기다려 주신 동모들께」

이 책은 실상은 5월 1일에 발행할 것인고로 4월 보름께 편집하되 『어린이날 기념호』로 특별 편집해야 전에 못 보던 새로운 기사를 만히 실었고 『어린이날 선물』로 작란감 그림도 준비하였  
섯난대 그것이 불행히 (모다 온건치 못하다는 리유로) 압수를 당하여서 인쇄를 못하게 된고로 다  
시 곧 새로 편음을 갖쳐 하여서 다시 허가를 맞느라고 날자가 만히 걸려서 5월달에는 발행이 되  
지 못하고 이제야 간신히 발행되게 되어서 오늘까지 궁급히 기다려 주신 여러분에게 미안하기 그  
지업습니다. 이렇케 괴로운 사정을 짐작하시고 너그러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사를 세 분이나 느리여 일이 몹시 속하게 되었으므로 이 다음 달부터는 특별히 더 내용이 조와  
지고 반듯이 네 날자에 나오게 될 것을 갖분 마음으로 말씀드려 둡니다.(사고) (밑줄: 인용자)

□ 『어린이』 6권 3호(1928.5.20.) 「편집실에서」

○ 어린이날이 가까와 옵니다. 여러 가지 풍파로 말성 중에 하로하로를 마지하면서 그래도 깃분  
과 감격에 가슴이 뛰웁니다. 어린이날 어린이날 아아 생명이 춤추면서 뛰노는 거룩한 명절을 다-  
가티 건강한 몸으로 즐거히 마즈십시다.

○ 어린이 편음이 끝나는 오늘 지금 이것을 쓰고 안젓는 들창밧게는 비단결가티 부드럽고 고흔  
봄비가 옛날이약이하듯 부실부실 나리고 잇습니다. 이 보드러운 비에 나무란 나무의 넙사귀가 한  
층 더 새파래질 것입니다. 그 새따운 파란밧. 나는 그것이 꽃보다도 더 좃습니다. 어린이날의 깃  
봄은 거기에도 잇는 것입니다.

○ 어린이날이 5월 6일이니 5월 5일 밤에 우리들은 마루 끝 침하 끝에 색등(色燈)에 불을 켜달  
고 어린이날을 마지하십시다. 그 등불 하나로 윈 집안 구석구석이 어린이날 명절이 숨어드는 것  
입니다. 그리고 그 등 밧헤 집안 식구 중의 어린 사람들 일흠을 일일이 딴 종의에 써서 매달어  
두십시오. 그들의 생명을 축복하는 의미입니다.(방)

실질적으로 신년호인 ‘6권 1호’를 문제삼아 일제의 검열 당국이 전 책사를 대상으로 잡지를  
몰수하면서 잡지의 발행은 계속 연기가 되었다. 내용에서도 ‘검열·삭제·압수·몰수’로 『어린  
이』는 점차 위기에 봉착하는 듯했다. 결국 ‘4월 보름께’ 특별 편집을 마친 ‘어린이날 기념  
호’는 ‘모두 온건치 못하다는 이유’로 압수를 당해서 다시 편집과 허가를 받는 과정에 결국  
‘5월호’를 발행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 ☒ 『어린이』 7권 4호(1929.5.10.) ‘어린이날 기념호’ 원고 압수

다행히 『어린이』 7권 4호는 ‘어린이날 기념호’로 발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정호는  
이 호를 정말 힘들여 편집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원고의 대부분이 불허가”<sup>28)</sup>되었다  
고 서두의 ‘사고’에서 밝히고 있다. ‘불허가’된 어린이날 관련 원고로는 권두언으로 쓴 이정  
호의 「어린이날 이야기」, 방정환의 「어린이날을 당하야」, 최청곡의 「어린이날 일기」  
3편이 현재 목차상의 기록으로 남아 있다. 유광렬이 쓴 감상의 글 「어린이날 3대기」는 검  
열에 통과하여 수록되었다.

최근 최미선의 연구에서는 “총독부가 『어린이』에 유난히 검열의 칼날을 들이댔던 중요  
한 이유는 방정환 주도의 조선 ‘어린이 인권운동’이나 『어린이』가 주도한 ‘소년운동’에 원  
인이 있었던 것” “『어린이』가 주도적으로 일으킨 ‘어린이 인권 운동’은 식민 지배에 저항  
하는 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했기 때문”<sup>29)</sup>이라고 밝히고 있다.

28) 이정호, 「사고 어린이 애독자 여러분께」, 『어린이』 7권 4호, 1929.5. 1면.

『조선출판경찰월보』 9호(발신 1929.5.16.)에는 ‘불허가 압수 및 삭제 출판물 기사 요지’로 『어린이』에 실린 「어린이날 취지」를 기록해 놓고 있다. 내용은 조선 소년들이 봉건제하에 인격 무시와 학대 밑에 있는 상태에 대한 고발이다. 필자에 대한 정보는 따로 적혀 있지 않다. 또한 1929년 5월 5일자 동아일보 기사에는<sup>30)</sup> 천도교소년연합회에서 ‘어린이에게 주는 뼈라’와 ‘어른에게 주는 뼈라’ 10만매에 ‘2자 삭’ ‘2행 삭’이란 여섯 자를 넣어 인쇄했다고 압수하여 다시 십만여 매를 찍어 어린이날을 준비한다는 기사가 실리고 있다. 이렇게 일제는 『어린이』 잡지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통해 이루어진 어린이 운동, 그 중심의 ‘어린이날 운동’을 집요하게 탄압하고자 했다. 실로 방정환은 온갖 수난과 탄압을 받으면서도 『어린이』를 발행하고, 이를 무대로 어린이날 기념호를 내며 ‘어린이날’을 어린이 명절로 정착되도록 악전고투를 했다고 할 것이다.

#### ☒ 『어린이』 9권 4호(1931.5.20.) ‘어린이날 기념호’

『어린이』 9권 4호 ‘어린이날 기념호’는 방정환이 작고하던 해 나온 마지막 ‘어린이날 기념호’가 되었다. 어린이날에 대한 기사로 정홍교의 「우리의 어린이날을 국제 소년일로 정하자」, 최청곡의 「생명의 기념일 어린이날을 맞으며」, 김기진의 「어린이날의 희망」, 무명초의 「어린이날과 5월의 자연」 등의 글이 실렸지만, 방정환의 글은 실리지 않았다. 이정호는 「편집을 마치고」에서 “지난 달에도 이 난을 통하여 말씀했지만 본지 주간 방 선생이 역시 건강이 회복되지 못하여 또 이 달 호에 아모 것도 쓰지 못하신 것”<sup>31)</sup>이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밝히고 있다.

### IV. 어린이날 제정 정신과 방정환의 어린이 해방 사상

이 장에서는 『어린이』의 ‘어린이날 기념호’ 발행 과정을 통해 점차 발견되어 나타난 방정환의 ‘어린이 해방’ 사상에 대해 조명해 본다. 1923년 5월호 ‘어린이날호’로 발행한 『어린이』 4호에 방정환은 권두언 「어린이의 날」을 발표한다. 이 해의 글을 보면, 방정환은 어린이 해방이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3년 뒤인 1926년 5월호 『어린이』에 발표한 「어린이날」에서는 ‘어린 사람의 해방 운동’이라고 명칭하며 소년회 조직과 뻗어가는 어린이날의 기세를 언급하고 있다.

다음 글은 『어린이』 4권 5호(1926.5.)에 실린 방정환의 글 「어린이날」 전문이다.

#### 어린이날

돈 없고 세력 없는 탓으로 조선 사람들은 이때까지 내리눌리고 짓밟히어 아프고 슬픈 생활만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불쌍한 사람 중에서도 그 쓰라린 생활 속에서도 또 한층더 내리눌리고 학대 받으면서 무참하게 짓밟혀만 있어 온 참담한 중에 더 참담한 인생이 우리들 조선의 소년소녀였습니다.

29) 최미선, 「일제 검열에서 드러난 『어린이』 사상 특징과 시대적 임무 고찰」, 『방정환연구』 7호, 2022.3. 180면.

30) 「어린이날 뼈라 압수」, 동아일보 1929.5.5.

31) 이정호, 「편집을 마치고」, 『어린이』 9권 4호, 1931.5. 74면.

학대 받았다 하면 오히려 한몫 사람값이나 있었다 할까. 갓 나서는 부모의 재롱감 장난감 되고 커서는 어른들 일에 편하게 썩우는 기계나 물건이 되었을 뿐이요 한몫 사람이란 값이 없었고, 한몫 사람이란 수효에 치우지 못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어림(幼)은 크게 자라날 어림이요 새로운 큰 것을 지어낼 어림입니다. 어른보다 10년 20년 새로운 세상을 지어 낼 새 밑천을 가졌을망정 결단코 결단코 어른들의 주머니 속 물건만 될 까닭이 없습니다. 20년 30년 낡은 어른의 발밑에 눌러만 있을 까닭이 절대로 없습니다.

새로 피어날 새싹이 어느 때까지든지 내리눌러만 있을 때 조선의 슬픔과 아픔은 어느 때까지 든지 그대로 이어만 갈 것입니다.

×

그러나 한이 없이 뻗어날 새 목숨 새싹이 어느 때까지든지 눌러 엎드려만 있지 않았습니다. **5년 전의 5월 초하루! 몇백 년 몇천 년 눌러 엎드려만 있던 조선의 어린이는 이날부터 고개를 들고 이날부터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리운 것은 헤치고 덮힌 것은 벗겨 던지고 새 세상을 지어낼 새싹은 우쭐우쭐 뻗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기세는 마치 5월 햇볕같이 찬란하고 5월 새잎(新綠)같이 씩씩하고 또 5월의 샘물 같이 맑고 깨끗하였습니다. **어린 사람의 해방 운동이 단체적으로 5백여 곳에 일어나고 어린 사람의 생명 양식이 수십 가지 잡지로 뒤이어 나와서 어린이의 살림이 커지고 또 넓어졌습니다.**

아아 거룩한 기념의 날 5월 초하루! 기울어진 조선에 새싹이 돋기 시작한 날이 이 날이요 성명도 없던 조선의 어린이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날이 이 날입니다.

엄동은 지나갔습니다. 적설(積雪)은 녹아 없어졌습니다. 세상은 5월의 새봄이 되었습니다. 놀리우는 사람의 발밑에 또 한 겹 눌러 온 조선의 어린 민중들이여! 다 같이 나와 이 날을 기념합시다. 그리하여 다 같이 손목 잡고 5월의 새잎같이 뻗어 나갑시다. 우리의 생명은 뻗어 나가는 데에 있습니다. 조선의 희망은 우리의 커가는 데에 있을 뿐입니다.

-방정환, 「어린이날」, 『어린이』 4권 5호, 1926.5.

“몇백 년 몇천 년” 눌러서 엎드려 있어야 했던 조선의 어린이가 마침내 “고개를 들고”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며 “외치기 시작”했다는 운동, 바로 이 운동이 어린이 운동이요, 소년회 운동이요, 어린이 해방 운동이라는 관점이다. 어린이가 짓밟히고 눌러 있는 자기들의 목소리를 사회를 향해, 그 사회의 어른을 향해 선전하고, 또 그들 스스로도 5월의 생명과 같이 뻗어 나가며 씩씩하게 자라자는 운동의 핵심에 어린이 해방 정신이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 해방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1923년 5월 1일이다.

이번에 고조(高調)하는 그 협회(조선소년운동협회: 인용자 주)의 소년운동의 진의가 那邊에 있슬가 함에 대하여는 우리가 아직 (이 글을 쓰는 4月 20日까지) 그 자세한 것을 아러 엿지 못하였으나 그 운동이 우선 조선의 소년을 표준하여 기획되는 것이라 한즉 금일 조선 소년의 특수한 처지에 거울하여 묻져 「소년해방(少年解放)」이란 그것을 목표 삼아 나아갈 것은 想必 의심 업는 사실일지며 또는 그것이 사실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

우리는 지금 민족으로 정치적 해방을 부르짖고 인간적으로 계급적 해방을 부르짖는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되 우리가 묻져 우리의 발 밧헤 잇는 해방치 아니하면 其他의 모든 해방운동을 사실로써 철저히 못하리라 한다. 군자의 道는 그 곳이 夫婦에서부터 지여진다는 옛말이 잇거니와 우리는 써하되 해방의 道는 그 곳에 어린이를 해방함에서 지여지리라고 한다.

-기전(김기전), 「개벽운동과 합치되는 조선의 소년운동」, 『개벽』 35호, 1923.5.1. 19면

김기전은 『개벽』 35호(1923.5.1.)에 「개벽운동과 합치되는 조선의 소년운동」을 발표

하며, 조선의 소년운동이 ‘어린이 해방’(당시 표현은 ‘소년 해방’)을 목표 삼아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기전은 “소년을 해방 한다 하면 소년을 압박하는 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아니치 못할 것”<sup>32)</sup>이라며 ‘조선 소년의 윤리적 압박’ ‘보다 심한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어린이를 해방시켜야 할 사회적 당위 요구를 제창하였다. 김기전은 모든 해방 운동은 그 끝에 어린이 해방함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어린이 해방’ 문제를 뒤에 두고 오늘의 현상 위에서 ‘소년보호’와 ‘소년수양’을 말하는 것은 ‘아주 틀린 생각’이라고까지 직설하였다. 그는 비유를 들어, 반석 밑에 눌린 풀씨가 있다면 그 반석을 두고서는 풀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김기전의 주장으로부터 시작하여 1923년 5월 1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소년운동협회 명의로 소년운동의 선언, 세 가지 조건 ‘어린이 해방 선언’이 발표되었다. 근본적으로 ‘어린이 해방’은 어린이가 처한 현실에서 ‘내리눌리고 짓밟히고 있는’ 상황이나 문제는 없는지, 그 원인 해결에서부터 어린이 운동을 해야 한다는, 어쩌면 기본적인 개념에 가까운 것이기도 하다. 1923년 5월 1일 천도교당에서 낭독함으로써 공포된 ‘어린이 해방 선언’이 1921년 5월 천도교소년회를 조직하고 그 어린이운동의 지도자가 된 김기전과 방정환의 합의된 공통의 지향점이라는 것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방정환이 『어린이』 창간을 준비하면서 ‘경성 조정호 형’에게 보낸 편지글 「소년의 지도에 관하여」(천도교회월보 1923.3.)은 방정환의 ‘어린이 해방’ 사상이 그의 가정과 학교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실천 방법으로 나타난 글이다.

한 가지는 아아 지금의 이 사회 이 제도는 불합리 불공평한 것인즉 새로운 장성(長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불합리 불공평한 제도에서 고생하지 안토록 하여 주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자에서는 필연으로 강제와 위압적 교육이 생기는 것이요 후자에서는 필연으로 애(愛)와 정(情)의 지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형님 우리는 이 두 가지에서 그 어느 것을 취하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의 우리 조선에 있어서 우리는 그 어느 것을 취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후자를 취하고 나스지 아니하면 안이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몇 겹 몇 겹의 위압과 강제에 눌러서 인형 제조의 주형 속으로 휩쓸려 드러가는 중인 소년들을 구원하여 내지 아니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자유(自由)롭고 재미로운 중에 저의끼리 괴운것 활활 뛰면서 훨씬훨신 자라가게 해야 합니다.

이윽고는 저의끼리의 새 사회가 슬 것입니다. 새 질서가 잡힐 것입니다.

-소파(방정환), 「소년의 지도에 관하여-잡지 『어린이』 창간에 제하야」(천도교회월보 1923.3.)54면.

방정환은 현 교육제도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 등에서 정면으로 어린이에 대한 관점을 바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교육에서는 ‘강제와 위압’의 교육이 아닌 ‘애와 정’의 지도를 주장하며, 당시의 조선 사회의 제도에 대해서도 어린이들이 ‘불합리 불공평한 제도’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며, ‘몇 겹 몇 겹의 위압과 강제에 눌러서 인형 제조의 주형’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어린이들을 ‘구원’해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쓰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와 어린이 운동, 어린이날 운동은 ‘새 사회’가 서고 ‘새 질서’가 잡히도록 하기 위한 방정환의 사상적 실천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2) 위의 글 21면.

김기전과 방정환을 필두로 한 우리나라 어린이 운동의 ‘어린이 해방’ 사상은 세계어린이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1923년 5월 1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표된 이 선언은 해방 후 1957년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보다 ‘34년’ 앞선 것일 뿐만 아니라, 1924년 스위스 ‘어린이 권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보다 1년 앞선 ‘어린이 해방 선언’(Declaration of the Liberation for the Children)<sup>33)</sup>을 먼저 선언했다는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다.

각각 다섯 가지, 세 조항으로 된 두 선언문의 전문은 익히 알려진 바, 다음과 같이 부연해 둔다.

### **어린이 해방 선언 (1923, Declaration of the Liberation of the Children)**

1922년 방정환 초안/ 조선소년운동협회(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 공포)<sup>34)</sup>

---

33) ‘어린이 해방 선언’의 세계화 영문명과 3개 조항의 영문 번역은 향후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자 한다.

34) 본 선언문의 내용은 1923년 5월 1일 동아일보 수록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 소년운동의 선언 세 가지 조건

본 소년운동협회는 이 어린이날의 첫 기념되는 5월 1일인 오늘에 있어 고요히 생각하고 굳이 결심한나마에 심히 아래와 같은 세 조건의 표방을 소리쳐 전하며 이에 대한 천하 형제의 심심(深甚)한 주의와 공명 또는 협동 실행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1.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1.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1.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할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 어른에게 드리는 글

1.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 보아 주시오.
1. 어린이를 늘 가까이 하사 자주 이야기하여 주시오.
1.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럽게 하여 주시오.
1.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1.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1. 산보와 원족(소풍: 인용자 주) 같은 것을 가끔 가끔 시켜 주시오.
1.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
1.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 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1.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 어린 동물들에게

1. 돈을 해와 지는 해를 받드시 보기로 합시다.
1. 어른에게는 물론이고 당신들끼리도 서로 존대하기로 합시다.
1. 뒷간이나 담벽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 같은 것을 그리지 말기로 합시다.
1. 길가에서 때를 지어 놀거나 유리 같은 것을 버리지 말기로 합시다.
1. 꽃이나 풀을 꺾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기로 합시다.
1. 전차나 기차에서는 어른에게 자리를 사양하기로 합시다.
1. 입은 꼭 다물고 몸은 바르게 가지기로 합시다.

## 어린이 권리에 관한 선언 (1924,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에글랜타인 잭/ 국제어린이구호협회(1924년, 국제연맹에서 제네바선언으로 채택됨)

1. 어린이에게는 물질과 정신 양면에서 정신적으로 자라나는 데 필요한 수단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배고픈 어린이는 먹여 주고, 몸이 아픈 어린이는 돌보아 주고, 뒤쳐진 어린이는 도와 주고, 잘못 비뚤어진 어린이는 바로잡아 주고, 부모 없고 집 없는 어린이는 있을 곳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
3. 어린이는 재난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구조되어야 한다.
4. 어린이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어야 하고,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5. 어린이는 자기의 모든 재능을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데 바쳐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길러져야 한다.

#### IV. 나오며

본고는 『어린이』 자료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날 기념호’ 발행 과정에 주목하여 방정환의 어린이날의 준비 과정과 일제 검열로 인한 수난 탄압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방정환의 어린이 운동 사상의 기저에 있는 ‘어린이 해방 사상’을 얼마간 조명해 보고자 했다. 앞으로 보다 면밀한 어린이날 자료 보완이 필요하고, 어린이 해방 사상에 대해서도 세계 어린이 운동사의 맥락에서 이론적 보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온갖 수난과 탄압을 받으면서 어린이날을 지키고자 했던 방정환의 노력은 실로 악전고투였다고 할 것이다. 『어린이』의 ‘어린이날 기념호’에 남아 있는 기록들은 실로 그 파편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1921년 5월 1일 천도교소년회를 조직하여 어린이 운동을 일으키고, 그 이듬해 소년회 창립일을 그대로 인용하여 1922년 5월 1일 어린이날을 제정·선포하고, 1923년 3월 『어린이』를 창간하면서 매년 ‘어린이날 기념호’를 발행함으로써 ‘어린이날’을 우리나라 어린이의 명절로 자리잡도록 하는 데 방정환은 실로 큰 공헌자였다.

끝으로, 올해 1922년이 우리나라 어린이날 제정 원년의 해로 바로 정립되어야 하는 것처럼, 1923년 내년은 세계 어린이 운동의 큰 봉화가 될 ‘최초 어린이 해방 선언’의 해로 정하고 여기에 대한 아동문학계와 어린이 문화 예술계, 일반 사회의 합의 단계까지 이끌어 나가면 어떨까 한다. 그리하여 2023년부터 우리나라는 물론, 전쟁, 고통, 학대 등으로부터 신음하는 지구 어린이에게 희망이 되는 어린이 해방 운동의 신기원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하며 글을 마친다.

# < 『어린이』 지 어린이날 기념호와 방정환의 어린이 ‘해방’ 사상 조명 >에 대한 토론문

박종진(연세대)

장정희 선생님의 발표문은 『어린이』지의 ‘어린이날 기념호’를 대상으로 1920년대 어린이날 기사를 통해 방정환의 ‘어린이 해방’ 사상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 ‘어린이날 100회 기념’ 같은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 차이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어린이날’ ‘100년’이라는 단락적인 의미지만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린이날 제정에 관해서는 발표자가 선행연구를 통해 명쾌하게 정리했으며, 이번 발표는 그것과 이어지는 후속연구입니다. 덕분에 어린이날의 역사적 전개 및 의미와 함께 방정환의 어린이 해방 사상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표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일제 강점기의 온갖 수난과 탄압 속에서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 교육, 예술, 문화, 인권 운동을 주창하고 실천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고, 『어린이』지는 중요한 실천의 장이 되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어린이』지의 ‘어린이날 기념호’를 중점 자료로 삼아, 그 속에 내재한 방정환의 사상적 측면을 읽어내려한 발표자의 연구 시각은 매우 중요하며, 어린이 해방 사상을 규명해가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표를 맺는 부분에서 ‘1922년 5월1일이 우리나라 어린이날 제정 원년의 해’로 정립되어야 함을 밝히고, ‘1923년을 최초 어린이 해방 선언의 해’로 정하는 사회적인 합의까지 제안한 점은, 우리 어린이 해방 운동을 세계 어린이 운동사의 맥락에서 파악하려는 확대된 시각을 느끼게 합니다.

발표자의 문제 제기와 제안에 크게 공감하며, 이런 방대한 시각의 연구 논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발표문을 읽으며 일었던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린이날 기념호’의 특징 및 역할에 대해서입니다.

발표자는 『어린이』의 사고(社告)와 편집후기를 통해서, 어린이날 준비상황, 전개 양상, 일제의 탄압에 대해 살펴보며, ‘어린이날 기념호’에서도 주로 어린이날 관련 ‘소식’에 주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이를 통해 어린이날이 어떻게 전개되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얼마나 일제의 탄압이 극심해졌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방정환의 수난과 불굴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발표문의 핵심이 잘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어린이』에서 ‘어린이날 기념호’가 지닌 특징과 역할은 어떤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호’를 기념호라 칭하는 것은 작품 구성이나 편집에서 다른 호와 차별화되는 특징을 지녔기 때문은 아닐까요? 또한 이에 따른 독자들(어린이)의 반응은 어떠했을까도 궁금합니다.

둘째, 『어린이』지 ‘어린이날 기념호’라는 표기와 시기 구분이 지닌 한정성입니다.

발표에서는 『어린이』지의 ‘어린이날 기념호’ 전개 양상을 크게 세 단계(성장·도약기, 중

단·파행기, 수난·탄압기)로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 ‘수난·탄압기’의 기간 표기는 1928년 이후 공란으로 비워두었습니다. 발표자가 이 기간 표기를 주저한 의미는 무엇이였을까요?

방정환이 세상을 떠난 시기를 의식한 구분이라면, 1931년 이후에도 ‘어린이날’ 관련 기사는 매년 꾸준히 게재되었다는 점에서 검토 범위를 좀 더 확대되어도 좋지 않을까요? 또한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어린이』 122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948년 123호로 복간된 『어린이』 지가 1948년 5월 5일을 발간일로 삼았으며, 발간사 「‘어린이’를 다시 내면서」를 통해 ‘축복받은 우리들의 명절 어린이날’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날 기념과 계승’은 『어린이』에서 이후로도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발표문에서 제시한 1928년 이후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시점인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발표자의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정희 선생님은 이번 연구를 방정환의 어린이 해방 사상을 규명해 가는 기초적 작업이라 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분석과 연구 성과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학생』의 매체특성과 방정환의 저항의식에 관한 연구

최미선(경상국립대학교)

- I. 머리말: 연구의 필요와 문제제기
- II. 『학생』의 기획 특성과 서지적 고찰
- III. 담론의 목표와 편집 정책
- IV. 일제의 검열에 드러난 방정환 저항의식
- V. 맺음말

## I. 머리말 : 연구의 필요와 문제제기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29년 3월에 창간된 중등 학생 이상의 전문 잡지 『學生』은 1930년 11월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발행된 이유 때문인지 매체의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는 연구에서 소극적인 면이 있었다. 개벽사에서 『學生』은 ‘중학생 이상, 전문(專門) 학생을 위한 잡지’라고 천명하고 발행된 만큼, 편집 체제가 상당히 선진적이고 기획과 연재물이 독창적이었으며, 유독 많은 논설과 이념적인 글이 실렸다.

『學生』은 창간호부터 ‘進軍喇叭(진군나팔)소리’라는 상징적 표현으로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시대적 의무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실었고, 매호 ‘조선 학생의 임무’, ‘한글교육운동’, ‘농촌계몽운동’과 같은 글을 실어 독자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시말하면 창간 초부터 검열과 원고 삭제를 우려하는 후기(後記)가 실릴 정도로 저항적인 잡지였고, 매호 일제의 검열 때문에 원고차압, 삭제, 압수의 행정 명령을 받게 된다.

조선총독부 경찰국 도서과에서 비밀문서로 작성한 『조선출판경찰월보』에 남아있는 검열 결과는 총독부 경찰국에 대항하는 『학생』 편집인의 저항을 보여주는 근거로 충분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學生』에 실린 글을 분류, 분석하여, 잡지가 표방했던 담론의 목표는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밝히고, 아울러 발행인 겸 편집인 소파(小波) 방정환의 저항정신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사 검토>

『學生』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이명희(2001.2005.)<sup>35)</sup>, 이정석(2018. 2021.)<sup>36)</sup>, 장정희

35) 이명희, 「청소년을 위한 문화 활동에 주력한 잡지- 어린이 자매지 학생의 문학사적 의미」, 『문화예술』,

(2021)<sup>37)</sup> 등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이명희에서는 『학생』의 창간배경과 편집체제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면서 비슷한 시기에 발행된 여러 잡지들 사이에서 『학생』을 고찰하면서 문화사적 의의에 대해 규명하였다. 즉 『학생』이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세대를 대상으로 ‘뚜렷한 세대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문화 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했다.

이정석(2018)에서는 방정환이 『학생』에서 보여준 ‘실용주의 정신’을 고찰하면서 편집방향에 나타난 방정환의 역사의식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일제 식민지 핍박을 받고 있는 우리 민족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타개’하려는 의지를 보인 매체로 평가하면서 ‘폐간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정석(2021)에서는 당시 농촌을 살려야 할 당위성을 강조한 ‘브나로드 운동’에 초점을 두고 『학생』의 역할을 살펴보고 있다.

장정희는 『학생』에 실린 방정환의 글에 주목하여, 방정환 집필 규모 전체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동시에 어린이 운동 뿐만 아니라 학생운동을 전민족적 운동으로 실행하려 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로 보면 『학생』에 게재된 논설에 대한 세부 분석은 아직 과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어느 잡지보다 비중 있는 담론의 의미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히면서 방정환의 저항 의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우선 『학생』 기획에서 특성을 찾아보고 담론 분석을 통해 지향하는 목적을 밝히게 된다. 그리고 발행인이나 편집책임을 맡은 방정환의 저항의식을 규명하는데 까지 논의를 전개하게 된다.

## II. 『學生』의 기획특성과 서지적 고찰

### 1. 기획특성 사례

개벽사에서 발행한 잡지로 『별건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삼은 잡지이고, 『어린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學生』은 어른과 아동의 중간 계층인 학생, 즉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은 잡지로 규정되어 있다. 『學生』은 (학생)독자의 ‘인격도야’, ‘건전한 취미생활 도모’, ‘진로 제시’를 발간 목적으로 표방하면서 민족의 미래 향도자(嚮導者)로 기르려 하였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그것은 창간호에서 나타나 있는데, 『學生』이 잡지로서 표방하려는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간파할 수 있다.

『학생』은 대중매체인 만큼 시의성(時宜性)과 시사성(時事性)을 중시하고 있는 것을 편집체제에서 알 수 있다. 책의 서두는 계절을 나타내는 시(詩)와 산문 혹은 사진 등으로 시의성을 적절하게 나타냄으로 대중성을 보여 준다.

학생에서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기획 중에서 <學生 小說 創作 리레이> 공모는 독창적이고 시대적 사명이 두드러진다. <소설 창작 리레이> 공모에 응모한 학교는 휘문(徽文), 양정(養正), 중동(中東), 동덕여고보 등 서울의 유명 사립학교는 물론이고, 함경북도 경성(鏡城)고보(高普)부터 마산(馬山)의 호신(濠信)학교까지, 명실상부 전 조선(全朝鮮) 20여 개 학교이다.

2001.5, 이명희, 「『어린이』 자매지 『학생』의 의미」, 『상허학보』 Vol.8, 상허학회, 2002.  
 36) 이정석, 「1929년 창간된 『학생』지와 소파 방정환」, 『한국아동문학연구』 제35권, 한국아동문학학회, 2018, 이정석, 「방정환의 『학생』지에 나타난 브나로드 운동 고찰」, 『방정환연구』 Vol.6, 방정환연구소, 2021.  
 37) 장정희, 「『학생』지에 실린 방정환의 글 텍스트와 학생운동의 방향성 고찰」, 『방정환연구』, Vol.6, 방정환연구소, 2021.

각 학교별로 4명씩 팀을 만들어 참여하여, 릴레이 주자마다 각각 1회씩 소설을 쓰고, 4명이 연작형식으로 소설 한 편을 완결하는 창작 방법이다.

각급 학교 학생 4명이 팀을 이루어 집단창작의 형식을 보여주는 릴레이 소설 쓰기 인데 공동 문예 창작이라는 독특한 방식이다. ‘연작 소설쓰기’가 아니라 스포츠 형식을 빌려 ‘릴레이 소설’대회로 명명한 것이 새로운 기획이다.

소설 릴레이 창작은 당대 학생들의 열망과 사회적 요청이 담겨있는 기획이라고 이해된다. 당대 고보(高普) 이상의 젊은 지성인들의 사상을 볼 수 있는 기획이고, 공동 문예창작을 뛰어 넘어 집단 지성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기획으로 이해된다.

특이한 것은 기획 단계에서 <소설 릴레이 대회>로 명명한 것과 참여 필진을 ‘출전 선수 명단’으로 지명한 데서 시대적 상황의 엄중함을 읽을 수 있다. ‘대회’라는 명칭과 ‘선수 명단’이라는 용어는 문예창작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스포츠계에서 통용되는 어휘들이다. <소설 릴레이> 제1회를 발표하는 지면은 스포츠 도너먼트 대진표처럼 만들었고, ‘출전(出戰)’이라고 해서 전투력을 드러냈다.<sup>38)</sup> 이처럼 스포츠 용어를 사용하여 전투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는 이유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해 해야 된다고 본다. 문예 창작이라는 대표적인 예술 활동마저도 문약(文弱)에 치우치지 말 것을 강조했으며, 젊은이들이 일제에 맞서 나가야 할 현실을 직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學生 소설 창작 릴레이>에 출전자 중에는 나중에 기성 문인으로 성장한 대구고보 김사엽, 보성고보 승응순, 양정고보 윤석중 등의 이름도 확인된다. 고등보통학교(高等普通學校) 이상의 학력이면 그 당시로는 엘리트 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 그들 나름의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문예창작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획이라고 본다. 국권 상실의 위난기에 나라잃은 백성으로 전락한 학생들이 국난 위기에 대응하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양상을 『학생』 기획에서 볼 수 있다.

『學生』의 성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획한 중 하나는 「學生의 노래募集」이다. ‘우리들이 부를 노래’라는 표제로 시작된 이 공모전은 남녀 학생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학생들의 건전한 의식을 표방할 수 있는 노래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조선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역할을마들우리學生들이즐거부를노래를 우리는가지지못하여왔다.(…)그렇다고 時俗踐踏의 流行歌를 차즐것인가하면그것도 안된다. 오직 無分別한 歡樂과 刹那의銳利한 感覺을 頹廢的으로 高調하여 蕩子の 醉興에 迎合하기로만 汲汲한 世紀末의 노래에서 어찌한時인들 健全하여야 마음을맛길수 잇으랴(…)39)

위 인용문은 「학생의 노래」 공모 기사이다. 학생들의 생활에서 취재한 내용으로 경쾌한 유머가 있고, 구투(舊套)를 벗어나야겠고, 백번 천번 불러도 싫증이 나지 않을만한 매력(魅力)과 기개(氣概)가 있는 노랫말을 모집한다는 사고(社告)다. 그만큼 당시 학생들에게 적합한 노래가 없었다는 것이다. ‘오직 무분별한 환락과 찰나적 예리한 감각을 퇴폐적으로 고조

38) 소설릴레이 제1회 발표 지면은 ‘全朝鮮南北二十中學出戰’으로 공고하면서 마치 스포츠의 대진표를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학생』 제1권7호, 1929.10, 66쪽. 이 논문에서 본문 인용 등은 발표 당시의 표기, 띄어쓰기, 맞춤법을 준수함을 밝혀둠

39) 「다시 「學生의 노래」懸賞募集에 對하여 社告」, 『學生』 제2권6호, 1930.6, 77쪽.

하여 탕자의 취흥에 영합하기에만 급급한 세기말적 노래'가 시류에 넘쳐서 젊은 학생들의 생각을 퇴폐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를 노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속(時俗)유행가, 퇴폐와 저급적(低級的) 연애에 빠트리리지 않을 멋있는 유행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걸핏하면 비판하고, 걸핏하면 애상에 빠지기도 하는 종류의 노래를 쫓아낼만한 노래를 모집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상에서 '우울할 때나 기쁠 때나 사람들은 노래 없이 살지 못하는데' 학생들의 정신을 침식하는 '요녀(妖女)의 감즙(甘汁)과 같은' 노래도 부적합하고, 세기말적 퇴폐에 젖은 노래에 '건전하여야 할 조선 학생의 마음을 맡길 수 있냐'고 반문 했다.

조선학생들에게 필요한 노래는 '경쾌한 유머'가 있어야 하고, '구태를 벗어나야겠다'고 강조하는 이 노래 공모 사업에 『학생』이 지향하는 편집 기획력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공모 사업은 『학생』의 돌연한 폐간으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지만, 당시의 청년 학생들의 의식을 계몽 선도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보여준 기획 중 하나로 보는 것이다.<sup>40)</sup>

## 2. 서지적 고찰

『學生』은 중학생 이상 전문(專門)학생을 위한 잡지로 규정하고 “우리 학생들의 성정(性情)을 도야(陶冶)하고 취미(趣味)를 향상(向上)시키는 선량(善良)한 동무가 되며 때로는 손목을 잡고 그들의 나아갈 바 향로를 지시하며 목표를 가르쳐 주는 일을”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하고 발행되었다.

무엇보다 책의 도입에 고정적으로 실리는 시사 담론은 『學生』의 성격과 지향점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당시 가장 유력한 교육 지도자 혹은 오피니언 리더들은 학생들에게 절실하게 ‘조선학생의 임무’를 호소하고 있다. ‘조선 학생이 해야 할 임무’, ‘조선 학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 ‘조선 학생이 가져야 할 태도’ 등에 대해 사계(斯界)의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의 훈시, 훈화로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의 계몽 담론을 담아냈다.

‘나라를 잃은 백성’의 처지에 놓인 조선 학생의 임무가 그만큼 중대했던 것이고,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있는 『學生』독자들은 이런 시대적 사명을 각성이 해야한다는 호소가 매호 이어졌다. 이념과 사상은 자주와 자립을 함의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국권회복을 위한 내용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말글의 가치’(이운재, 「한글기념날을 맞으며」), ‘우리 역사의 중요성’(최진순, <조선 역사강좌>), ‘웅대한 조선지리’(이극로, 「백두산 탐방기」) 등 조선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사를 연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긍심과 깨달음을 동시에 주고자 했다.

주요 필진으로는 권덕규, 김진구, 문일평, 신명균, 이병기, 이운재, 이태준, 차상찬, 최진순 등 당대를 대표하던 학자, 교육자, 종교인 등이다. 소설가 이태준은 편집에도 직접 관여했고, 독자투고의 글을 가려 뽑는 일을 맡았으며 소설 연재도 직접 이어갔다.

무엇보다 중학생 이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던 잡지였던 만큼 글의 이면에 담겨 있는 필자의 의도를 찾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어려운 시기에 창간된 『학생』은 조선 학생들의 길잡이, 스승이 되기를 자처했는데, 창간호 편집 후기에서 확인된다.

잡지의 편집 후기라고 하면 남은 이야기 정도의 한담(閑談)이지만, 『학생』은 「속직

40) 「학생의 노래」 공모는 1930년 11월 『學生』의 돌연한 폐간으로 인해 이 사업이 완결되지 못하게 됨을 알리는 기사가 종간호 1930년 11월에 실린다. 『학생』 제2권10호, 1930.11, 114쪽.

실」로 명명하며 ‘實上 이것이 編輯餘錄蘭 人대 學校敎員이 그날 敎務를 마치고 明日上學時間까지 學校 안에서 수이는 곳이 宿直室이니 敎員은 아닐망정 今月號를 맞쳐놓고 來月號 始作되기까지(…)’<sup>41)</sup>라고 하면서 보통의 잡지와는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편집후기마저도 ‘다음 날의 수업을 준비하는 교원’의 의지를 보여줌으로 학생들과 일체가 되고자 하는 적극성을 보여주었다.

『학생』은 개벽사에서 발행한 어떠한 잡지보다 강한 목적의식을 드러냈다. 식민지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세기말적 우울에 함몰될 것을 우려하여 ‘경박과 사치와 타락에 빠져 안 될 것’을 거듭 강조했고, 화사부박(華奢浮薄)을 경계하는 글로 그 성격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 Ⅲ. 담론의 목표와 편집 정책

#### 1. 여학생의 상무적(尙武的) 감각 고양

『學生』에서 가장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여학생 담론이다. 『學生』은 당시의 여자 고보(女子高普) 학생들에 주목했고, 여학생들이 가져야 될 선진적 의식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상무적(尙武的) 감각과 이에 비견되는 활달한 건강미를 강조했다는데, 이는 당시 조선 여학생들이 떠맡아야 될 시대적 임무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여자도 劍을 알자」(姜樂遠)<sup>42)</sup>라는 글은 상무(尙武) 정신을 강조하면서 국가적 위난의 시대를 살고있는 여성들의 용단과 결단, 현명함을 강조하였다.

그 國民의 氣魄은 그나라어머니들의 그 눈알을通하여 새어나오는 말업는 魂의 敎育에서 左右되는 것이다. 어머니가 劍을알고물으는 것은 그 國民이 劍을알고 물으는 것이된다. 「칼이란 사내나찰것이라」는 말이 오늘날의우리를 만들어노흔 것이다. 前號에서도 말하엿거니와 劍이란 도마우에서쓰는 칼이안이다. 한덩어리의 精神이다. 한덩어리의 統一된 精氣의 化身이劍이다.<sup>43)</sup>

위 인용문에서는 검(劍)이 상징하는 상무정신(尙武精神)을 여학생이 더 알아야 함을 강조했다. 검(劍)이란 ‘도마 위에서 사용하는 칼이 아니’라 ‘통일된 한 덩어리의 정기의 화신’이라고 했다. 남자에게 무력의 검이 필요하다면 여자에게도 자녀 교육을 위해 검이 필요하면서 ‘한 명의 새 인간을 말없이 양육하기 위해’ 검의 정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시 조선 여성 교육이 시대 상황에는 걸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다시 말해 당시 조선 여성 교육은 불란서(佛蘭西)나 미국(米國)과 달라야 한다고 말한다.

여성 교육에서 ‘검’의 정신을 강조한 것은 ‘문화생활 향유’가 여성 교육의 요체가 되어서

41) 「宿直室」, 『學生』 제1권제1호, 1929.3.

42) 姜樂遠: 일제 강점기와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활동한 체육인. 강원도 춘천 출신, 경성부에서 공부하고, 일본에서 검도 연마, 이후 휘문고보, 연희전문 등에서 체육 지도, 한국 검도와 유도 선구자. 이상재의 소개로 만나 결혼한 부인 오현주는, 1919년 발생한 3·1 운동 직후 투옥자들을 뒷바라지하는 자선 단체 형성 부인회를 조직한 신여성.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도를 받아 대한민국애국부인회 결성. 나무위키(<https://ko.wikipedia.org/>)참조. 2022.2.25.

43) 강낙원, 「여자도 劍을알자」, 『學生』 제1권2호, 1929.4.56쪽. 이번 원고에서는 발표 당시의 띄어쓰기와 표기를 따름을 밝혀둔.

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학생도 ‘검’으로 상무적 정신을 갖추어야 함을 말했다. ‘같이란 사내나 잘 것이라는 인식이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한 것은 상무적 정신을 가볍게 여겨서 결국 국권 상실의 위난을 당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朝鮮은 검(劍)에 주려 있다’면서 남자 이상으로 검(劍)이 의미하는 무예 정신을 여학생이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내용과 맞물려 여학생 담론에서 주목해 보는 것이 건강한 활동성과 진취성이다. 「世界女學生夏休生活」에서 이태리, 독일, 러시아, 미국 등 구미(歐美) 여학생들의 여름 생활상을 소개하면서 진취적이고, 활동적이며, 무엇보다 야생적 건강미를 강조하는 글이 실렸다. 이태리 여학생들이 파시스트 당원으로 정치적 훈련을 받는 여름방학의 생활상이나 독일 여학생들이 남학생들과 동등하게 등산대원을 구성하여 산행을 하는 것을 소개했으며, 미국 여학생들은 방학과 동시에 천막생활대를 조직하여 집시와 같은 표박(漂泊) 생활상을 소개했다. 러시아 여학생들은 농사실행연구단을 조직하여 모스크바나 레닌 그라드를 떠나서 코카서스 지방이나 크림 지방으로 곤충, 식물 채집을 떠나는 공부와 봉사활동을 겸하는 여름방학을 보내는 것을 소개했다.

㉠(…)캠핑보다도 海水浴보다도 『파시스트』黨員으로서의 訓練을받기爲하여 放學들이 되는대로 女學生들임에不拘하고 騎馬隊를組織합니다. 그래가지고 國內에잇는 古代城跡들과 古代英雄烈士들의墓地를 차저단이는것입니다. 途中에 都市를 지날때마다 그곳시민들의 歡迎裡에서 그곳남학생과合하여 廣場에서 大分列式을하고 例의 「쫂비넛다」를 高唱하며 市街를一周합니다. 쓰거운伊太利의녀름임에도不拘하고 況且女學生들로서 이와가티 豪壯한 旅行을하는 것은 이태리 여학생의 자랑일것입니다.<sup>44)</sup>

㉡(…)有名한傳說들이 모다森林에서나오는이약이기때문에 그곳여학생들은 어렸슬때부터 森林을 僻으나 동경하고자라합니다. 그럼으로녀름放學에는 남학생들과가티 등산대를지여가지고 모다森林地帶로旅行을써나갑니다. 그들은女學生이라도 조선남학생들보다도 더것츠른 것으로 의복을지여넙고 털 스타킹에 兵隊구쓰를신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女學生여러분은 들고쌍금도 못할무거운 排囊을질머지고(…)45)

㉢그들은 史跡의研究와 昆蟲, 植物의採集으로 멀-리 「구라이나」 「코-카사스」 「크리미야」 等地까지단이는데 男女學生間의 風紀는 우리가豫想되는것가티 그릇케紊亂하지 안습니다. 어려서부터男女共學이고 쫂이와가튼 여행에 끼이는學生들은 男女를勿論하고愼重한 學者的態度로 各其研究에만 全心全力한다합니다.<sup>46)</sup>

44) 「伊太利女學生의 豪壯한 生活」, 『學生』 제1권5호, 1929.8, 45쪽. 인용문 안의 ‘쫂비넛다’는 사회주의 파시즘을 의미하는 Sozialfaschismus의 음차표기로 이해된다.

45) 「獨逸女學生의 登山生活」, 『學生』 제1권5호, 1929.8, 47쪽.

46) 「露西亞女學生의 農事生活」, 『學生』 제1권5호, 1929.8, 49쪽.

인용문 ㉠, ㉡, ㉢은 유럽 여학생들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여름방학 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 이태리 여학생들은 ‘해수욕’이나 ‘캠핑’보다 ‘파시스트’ 당원으로 사회주의 이념 훈련을 받기 위해 기마대를 조직하여 고대영웅열사의 묘지를 답사하는 여름방학을 보낸다는 내용이다. 광장에서 사회주의 구호를 외치며 지역 남학생들과 연대해서 분열식 행사를 하는 호장(豪壯)한 여름방학을 보내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 독일여학생들은 무거운 배낭을 직접 메고 삼림으로 찾아가서 병영의 군대보다 더 거친 생활로 장부(丈夫)의 생활로 연마한다는 내용이다. ㉢ 러시아 여학생들은 모스크바와 레닌 그라드를 떠나서 크림반도나 코카서스 지방을 찾아 식물과 곤충을 연구하는 학습의 연장으로 여름방학을 보내는 것을 소개했다. 러시아 여학생들은 화씨 100도의 염천에 농가부녀들과 같이 김을 매는 학습 생활은 ‘조선의 여학생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용문을 통해 유럽 여학생들은 거의 중성적(中性的) 태도로 거칠고 활달한 연구와 활동으로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호 대상으로서의 여성의식을 탈피하기 위해 ‘劍’이라는 상징물로 담론의 주제를 드러냈고, 여성의 나약함이나 연약함은 무기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보호의 대상으로서 여성이 아니라, 과단성과 결단력을 갖춘 여성을 강조하였다. 그간의 조선여성들이 받았던 교육은 ‘조선의 기대’를 충족할 수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안이한 생활을 벗어나 ‘家庭劍化’에서 출발해야 함을 말하였다. ‘劍’이 상징하는 의미를 여성의식과 연결한 것은 여성의식의 방향과 지표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을 다루는 문제를 정신의 통일과 연결하는 내용인데, 불안했던 조선의 시대상황과 직결되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글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여학생은 무엇을 배울가」<sup>47)</sup>에서 ‘조선의 女學生은 영국이나 미국의 여학생과는 다른 처지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 위치가 특별하다고 했다. ‘남들이 받기 어려운 여학교 학생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선에서 여학생이 되었다면 나라 사정을 알아야하며 정치와 경제 및 세상을 알고 실생활과 사회생활(사교생활)도 터득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學生』의 여학생 담론은 그간 조선 여학생 교육, 여성교육을 탈피해야함을 말하고 있다. 여성이 보호 대상이 아니고 상무정신으로 무장한 결기와 단호함과 엄격함을 갖춘 여성교육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치적 상황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국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여성의 결기가 국권 상실의 국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성의 담력과 결기를 요청하는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인문 지리와 역사의식 제고

『학생』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역사 담론과 인문지리 및 우리말글과 문학에 대한 기사는 단순한 교양의 목적을 넘어선다.

최진순은 「古代朝鮮記」(1930.1~2.), 「三國記」(1930.3), 「南北朝記」(1930.7~8) 시대 순으로 조선의 역사를 쓰고 있다. 국권 상실의 시기에 조선의 고대사를 고찰하면서 유구한 조선 역사와 문화 전체를 환기 시키고 있다. 특히 최진순의 「南北朝記」에서 보여준 역

47) 李晟煥, 「朝鮮의 女學生은 무엇을배울가」, 『學生』 제1권2호, 1929.4.9쪽.

사의식은 탁월하다. 「南北朝記」는 통일 신라부터 발해까지 남에서 북으로 조선의 영토가 가장 확장되었던 시기였던 점을 기억하게 한다.

高句麗에서는 慧灌, 惠便, 惠慈, 日雲微 等, 百濟에서 惠聰, 道藏, 道染, 日雲慧 等, 高僧들이 日本에 건너가서 佛敎를 널리 傳하였다. 그리하여 日本에서도 佛敎가 旺盛하여 모든 文化가 이로 因하여 매우 向上發展되었다.<sup>48)</sup>

위 인용문은 고구려, 백제 삼국(三國) 고승(高僧)이 이미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사실을 적었다. 최진순은 삼국에서 일본에 건너간 고승을 나열하며 고구려, 백제에서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였고, 일본 내에서 불교가 왕성하여져 일본 문화가 발전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다. 특히 신라 문화의 우월성을 설명하면서, 종교와 신라 건축, 조각, 회화의 예술성을 거론했고, 고분에서 발굴된 금관(金冠), 식대(飾帶), 곡옥(曲玉)까지 설명하고 있다.

「남북조기」에서 옛 고구려 땅에 발해가 일어나고, 통일 신라는 唐나라의 세력을 구축(驅逐)하고, 국력이 강대해졌으며 제도가 완비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북으로 고구려 땅 발해부터 남으로 통일 신라까지 가장 광대한 영토와 빼어난 문화 예술로 큰 조선을 보여주는 역사의식은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그 시사하는 바가 의미 심장하게 보인다.

白頭山은朝鮮의聖岳입니다. 그옛날에神市는 이곳에서 세웠섯다하며 檀君어른께서도 이곳에 나리섯섯슬것이라고 史家들은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누구나 白頭山을 우러러볼새 그雄且大하며 壯且嚴한데 無限한神祕와崇嚴을 甞기게되고 쫓머리숙이지안을수업습니다.<sup>49)</sup>

위 인용문은 팔도(八道)의 명산 중 백두산의 웅장함과 장엄함을 말하고 있다. 백두산에 대해 남북 천여 리(南北千餘里), 동서 육백리(東西六百里) 일대(一大) 현무암 대지(臺地)로 소개하면서, 백두산 현무암은 ‘알칼리 조면암으로 암석학상(岩石學上)의 진품(珍品)으로 세계에서 다시 비교할 수 없는 제일’이라고 설명했다.

이극로의 「백두산 기행」은 단순한 명산 가이드가 아니다. 웅대한 민족정기(民族正氣)를 말하고 있으며, ‘단군이 내리신 신시(神市)’라고 하면서 민족의 기원을 거론하는 내용이다.

‘팔도명산순례기’는 표면상으로 백두산을 포함한 금강산, 한라산까지 조선의 7대 명산 소개로 보인다. 하지만, 이극로의 백두산 소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기획은 단순한 명승지 안내로 보기 어렵다. 그 하나의 근거로 이 책 목차는 특집 ‘팔도명산순례기’로 되어있지만, 본문 안에서는 ‘神域三千里八道名山巡禮’라고 했다. 다시 보면 삼천리 조선의 팔도 명산은 ‘신의 영역’(神域)이라고 했다.<sup>50)</sup> 조선 명산은 조선 민족의 산이지만, 신의 영역에 있는 산이라며 ‘숭엄(崇嚴)’함을 강조했다. 그런 곳이 백두산이며, 조선의 명산이라는 의미다. 조선 민족의 자긍심을 찾기 위한 글임을 알 수 있다.

48) 崔瑠淳, 「南北朝記 1」, 『學生』 제2권제7호, 1930.7, 74쪽.

49) 李克魯, 「神域三千里八道名山巡禮 白頭山」, 『學生』 제2권제7호, 1930.7, 37쪽.

50) 잡지의 기획물에서 목차와 본문에서 소제목을 달리한 것은 총독부의 검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잡지 ‘목차’로 검열을 받은 뒤, 본문을 편집하면서 편집자의 의지를 담았다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學生』에 실린 3대 지역 학회 활동 보고서는 중요한 글이다. 「기호학회 건설기」<sup>51)</sup> 「관동학회 활약기」<sup>52)</sup>, 「서북학회 성쇠기」<sup>53)</sup>는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되기 전후로 ‘인재양성과 상호 단결’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결성된 지역학회이다.

을사늑약(乙巳勒約)이후 국권이 침탈당하자 반제(反帝) 문제가 전면에서 부각되면서 위로부터의 변혁운동을 추진하던 문명개화론자들은 좀더 광범한 대중으로까지 운동을 확대시켜 나갔다. 잃어버린 국권을 되찾기 위해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國權회복 계몽운동이 일어났고, 이에 계몽운동은 大韓自強會, 大韓協會, 新民會, 그리고 각 학회 등의 사회운동단체를 중심으로 계몽활동을 전개하면서, 각 지방에도 支會를 설치하게 된다.<sup>54)</sup>

(…) 乙巳五條約이 성립되자(中略)人心은 波動이되며 激奮에 날뛰게되는 한편으로 鎖國의 목적은 思想을 버리고 開化進取하자는 新思潮가 조선천지에 답히게 되었다. 그새에 西道(平安南北道와 黃海道)의 先進人物 李甲 柳東說 安昌浩 朴殷植 盧伯麟諸氏가 發起하여 人才養成과 相互團結을 目的하고 서우학회를 조직하였으니 그해가 乙巳年(…) <sup>55)</sup>

위 인용문은 西北學會 결성과정을 설명한 글이다. ‘정미칠조약’, ‘보안법’, ‘신문지법’ 등의 일제강압책(日帝強壓策)과 탄압기구의 강화 속에서 1908년 1월 서우학회, 한북흥학회(漢北興學會)가 통합하여 설립되었다.<sup>56)</sup> 서북학회의 이갑(李甲)은 이후 안창호(安昌浩)와 이토 히로부미 회견을 주선하기도 하였고, 헤이그 밀사 파견에도 동참하는 독립운동을 펼친 인물이기도 하다.

기호흥학회(畿湖興學會)<sup>57)</sup>도 물론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났다. 서북학회, 호남학회에 이어 설립된 기호흥학회는 개신유학자층과 전현직 관료, 지주, 상인 등 자산가층 등이 주축이 되어 기호지방을 근거로 교육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관동학회는 1097년 7월에 창립되었다.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남궁억이 창

51) 李光鍾, 「畿湖學會建設記」, 『學生』 제2권6호, 1930.6.4.쪽.

52) 車相瓚, 「關東學會活躍記」, 『學生』 제2권6호, 1930.6.9.쪽.

53) 明以桓, 「西北學會盛衰記」, 『學生』 제2권6호, 1930.6.2.쪽.

54) 乙巳勒約(1905.11.)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하게 되자, 잃어버린 국권을 되찾기 위해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國權회복운동이 일어났다. 곧 관료층, 식자층, 중심의 계몽운동과 민중층 중심의 의병전쟁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두 운동은 운동의 주도세력, 이념과 방법에서 크게 대비되었다. 의병운동은 국권 상실이란 민족적 위기에 직면하여 일제에 맞서서 무력으로 투쟁하여 즉시 국권을 되찾으려는 무력항쟁이었다면, 계몽운동은 한국이 일제에게 국권을 박탈당한 근본원인은 ‘實力’ 곧 힘이 부족한 때문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교육과 경제 방면에서 실력을 길러 自強을 이루고 이를 통해 국권을 회복하려 했던 실력양성운동이었다. 曠대성, 「畿湖興學會 啓蒙運動研究」,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논문, 2001, 참조, 이송희, 「大韓帝國末期 愛國啓蒙學會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85, 참조.

55) 明以桓, 「西北學會盛衰記」, 『學生』 제2권6호, 1930.6. 2쪽.

56) 서우학회와 한북흥학회의 통합 가능성은 두 단체의 설립 초기부터 예견되어 질 수 있었다. 서북, 관서, 해서 지방의 두 단체 지도층, 참여층들은 출신 지역만 다를 뿐 설립시기(1906)가 같고 목적과 취지가 동일하였으며, 지도층 인사끼리의 교류가 밀접하였다. 또 활동상도 거의 동일하였기 때문에 언론이나 사회에서는 이들 두 단체를 동시에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의 실제적 통합 계기를 가져다 준 것은 1907년 3월 서북학생친목회의 결성이었다. 서북학생친목회의 활동 가운데서 서북학회와 한북흥학회는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었다. 이송희, 앞의 글, 70쪽 참조.

57) 당시 한성을 포함한 경기와 충청을 중심으로 1908년 1월 한성부에서 조직되었다. 초대회장은 이용직, 부회장 지식영, 총무는 정영택이 맡았고, 이혜조는 기관지 『기호흥학회월보』 편집을 맡아 발행했다. 이 회의 기본 정신은 기호적이 아니고 국가적이라고 하여 지방적 분열이 아님을 분명히하였고, 정치적이 아니라 교육적 인 운동임을 아울러 밝혔다. 曠대성, 앞의 글, 5-13쪽 참조.

립했고 회장이 되어 학회 운동에 펼쳤다. 관동학회는 민간인의 의연금과 출자금을 통해 운영되었으며 초기에 활발한 발전의 모습을 보였으나 일제에 의한 학회령의 발표, 언론의 탄압 등에 의하여 쇠퇴하다가 1910년 8월 일제의 금지가 내려 문을 닫게 되었다. 『學生』이 3대 지역 학회 활동 보고서를 게재한 것은 식민지 배경과 반제국주의를 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윤재는 「한글기념날을 맞으며」(李允宰, 1930.11.)에서 훈민정음반포기념일 484년째 되는 해를 맞아 훈민정음에 담긴 뜻과 의미를 강조하면서 세종대왕의 업적과 한글의 가치에 대해 숨김없이 적었다.

권덕규 「가갸도 學問이다」는 가갸글(한글)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제말을 아름답게 쓸수업스면남의말도 아름답게써줄수업슬 것이다. 가갸를 숭상하자 가갸글시대를 만들자. 가갸를 研究하자. 가갸도 학문이다”<sup>58)</sup>라고 강조했다. 일제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지상에서 일본말 번역투 사용’을 비판하면서 ‘가갸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글이다.

이병기 「시조와 그 연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이퇴계 선생을 ‘海東의 孔子’로 소개했다. 그리고 국학을 진흥한 인물로는 설총(薛聰), 대동여지도 김정호, 이성계, 을지문덕, 김옥균, 정몽주, 권율, 임경업, 이율곡, 효종, 박지원 등의 위업을 매호 게재함으로써 민족적 자긍심을 확인하게 했고, 민족의 얼을 소환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조선학생들의 정신무장을 독려하였다.

#### IV. 일제 검열에서 드러난 방정환의 저항의식

『학생』 발행 동안 매호 검열 받은 사실을 보여준다. 조선총독부<sup>59)</sup>는 1926년 4월에 보안과의 기능을 조정하면서 경무국에 도서과를 설치하고 치밀한 검열을 시행하게 된다. 그리고 검열 내용을 『조선출판경찰월보』<sup>60)</sup>(이후 『월보』로 통칭)라는 비밀문서로 편철 한다.

『월보』<sup>61)</sup>는 1차, 2차 총 1천300여종의 출판 납본물 검열물을 정리하였고<sup>62)</sup> 체계는 8가지 정도로 구분된다. 문건이 정리된 앞 달에 해당하는 출판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① 전체 출판물 납본수 및 출판 출원기록 ② 출판물 행정처분 건수표 ③ 신문지 행정처분 건수표 ④ 행정처분 통계 ⑤ 주의 통계 ⑥ 차압 삭제 및 불허가 출판물 목록 ⑦ 차압 삭제 및 불허가 출판물 기사 요지 ⑧ 조선 내 출판 단행본 목록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체 123호까지 11년에 걸쳐 생산된 이 문건은 ①~⑦항까지 대부분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방대한 자료가

58) 권덕규, 「가갸도 學問이다」, 『學生』 제1권2호, 1929.4, 14-15쪽. ‘가갸글’이란 훈민정음 창제 시기에도 한글을 지칭하는 여러 이름 중 하나였고, 한글날 기념식을 처음 거행한 1926년 11월 4일은 ‘가갸날’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됐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https://www.korean.go.kr> 참조, 2022.3.26.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59) 총독부는 1910년 8월 국권침탈 직후 조선 국내의 신문, 잡지, 단행본류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 사실을 공시하면서 빠른 속도로 여론을 통제하면서 다각도로 사상 통제 정책을 시행했다. 가장 구체적으로 출판물의 사전, 사후 및 교정쇄에 대한 검열로 나타난다.

60) 『조선출판경찰월보』는 조선총독부 출판경찰에 의해 1928년 9월부터 1938년 11월까지 발행된 비밀 검열 자료이다. 현재 12권을 제외한 전체 111권은 자료가 전해지는데, 여기에는 식민지 시기 일제의 출판 검열 기록이 남아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www.history.go.kr](http://www.history.go.kr) 참조.

61) 『월보』 체계를 참고하면 발신일 있고, 편철기간이 있다. 발신일은 검열의 결과를 해당 출판사에 통보한 내용이고, 편철기간은 전체 출판물 검열 내용을 묶음(편철)하여 『월보』로 편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편철기관은 경무국 도서과로 나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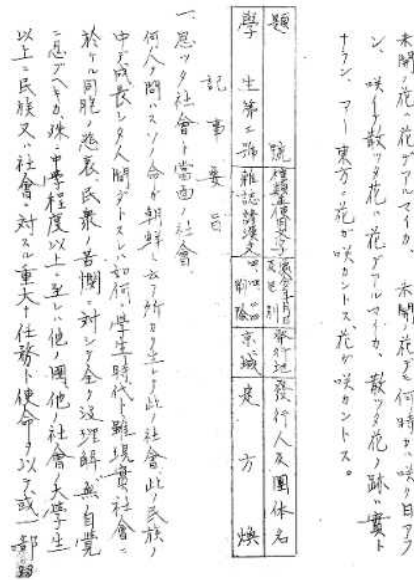
62) 문한별, 『조선출판경찰월보』에 수록된 납본 도서의 시기별 변화 양상과 의미, 79쪽 참조.

다.

<표-1>을 참고해 보면 『學生』에서 검열 내용은 ‘자주 독립’, ‘교육제도 비판’, ‘학생단결 독려’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표 1- 『학생』 出版警察概況-不許可 差押 및 削除出版物記事要旨 >

號數	잡지명 (문서제목)	연도 (통권)	기사 요지(내용)	발신일	편철 기간	편철기관 (비고)
월보 6	학생	1권1호	教育制度 비난	1929. 02.25	1928.04 .17.	경무국 도서과
7	학생	제2호	각 학교에서 조선어가 교육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맹휴학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	1929. 03.18	1929. 05.07.	
8	학생	제3호	학생은 민족과 사회의 중대한 임무와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는 내용	1929. 04.24.	1929. 04- 05.	
9	학생	제4호	農村啓蒙活動의 方法論	1929. 05.25	1929.05	
10	학생	1권4호 추가	社會主義 經濟學과 資本主義 경제학을 통해 현실 사회의 모순을 파악하도록 주장	1929. 06.08.	1929. 08.08.	
12	학생	제6호	프랑스인들이 普佛戰爭 때 파리를 사수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 조선인도 거국일치로 단결하여 함께 적을 排擊해야 한다는 내용	1929. 08.14.	1929. 09.26.	
15	학생	1권8호	(日帝에 對항하여) 용감히 斗격하여 싸워야 함	1929. 11.01.	1930. 01. 04.	이하중략



『학생』은 총 18호가 발행되는 동안 『월보』에 14회의 검열 기록이 남아있다.<sup>63)</sup> <그림 1>은 『월보』 8호에 실린 『學生』 검열 기사 내용이다.

『월보』 8호 편철 기간은 1929년 4월부터 5월까지이고, 압수기사 발신일은

1929년 4월 24로 나와 있다. 즉 『學生』 3호(1929년 5월호)<sup>64)</sup>에서 ‘學生은 民族과 社會의 중대한 임무를 수행 해야한다’는 내용을 ‘불허가 차압 삭제’했다고 밝혔다.

63) <표-1>에 실리지 않은 『월보』 13, 14, 27호는 결호이다. 『월보』 결호 사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검열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관리 소홀로 분실되었을 가능성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검열 분량은 현재 확인되는 것 보다 더 많아진다.

64) 『學生』 제1권3호(1929.5.)에는 방정환의 「朝鮮學生氣質問題 朝鮮의 學生 氣質은 무엇인가」 등의 글이 실려 있다. 『월보』 8호 원본 이미지<그림-1> 내용을 살펴보면, “(...) 조선이라는 곳에서 태어나 이 사회, 이 민족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라면 (어린) 학생이라할지라도 현실 사회에 대한 동포의 비애, 민중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각하지 못할리 없다. 게다가 중학생 이상만 되어도 그 나라 그 사회의 대학생 이상으로 민족과 사회에 대한 중대한 임무와 사명을 띠고(...)”로 나와 있다.

이처럼 일제 총독부는 『學生』 창간호(1929.3.)부터 1930년 10월호까지 매호 검열을 했고, 기사를 압수, 차압, 삭제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 것이다.

방정환은 무엇보다 중등학생 이상의 『學生』 독자들이 일제의 대항하는 의식을 가져주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저항성을 드러냈다. 불과 2년여 정도의 발행기간동안 거의 매호 총독부의 검열을 받은 매체였다. 저항성과 총독부의 검열 강도는 정비례의 수치로 설명이 되는 것이다. 이는 발행인이자 편집자인 방정환의 저항성으로 귀결되고, 방정환의 저항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V. 결론

『학생』은 창간호부터 매우 적극적으로 일본 제국주의 침략정치를 비판하고 거부하는 글을 꾸준히 게재함으로써 발행목표와 창간 이유를 분명히 드러냈다.

특별한 편집 기획으로 독자(학생)들의 강건한 국권 회복 의지를 독려했고, 여학생들의 의식 개선을 강조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인한 정신을 요청하는 담론이 이어졌고, 여학생들이 구습을 탈피해야할 것을 요청했다.

全 朝鮮 학생들이 참여하는 <學生 小說 創作 리레이>이는 전국의 학생들이 문예창작 역량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었다. 표면적으로는 문예창작 역량의 집결이지만 이는 전국의 학생들을 하나로 결집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해된다. 개인이 아닌 결집의 의미를 보여주는 기획이고, 위난의 시기에 대응하는 양식을 제시한 것으로도 이해된다. 개인보다는 집단적 행동의 의미를 말하고 있으며 문예활동마저도 문약에 빠질 것을 우려해 스포츠 방식과 연계했고 집단 지성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편집 기획으로 보인다.

편집 책임자 방정환은 자신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학생』의 곳곳에 조선의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하며, 어떤 목표를 가져야하는지 마치 경고라도 하듯이 학생들을 독려했다. 『學生』에서 내세웠던 이러한 글은 학생들의 봉사활동과 계몽운동, 정신운동을 이끄는 역할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창간호부터 거의 매호 빠지지 않고 기사 압수를 당했고, 혹독한 검열을 겪었다.

##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學生』 18권(보성사, 1977 영인본)

### 2. 논문 및 단행본

고시용, 「방정환의 어린이관과 도덕교육의 의미」, 『宗教教育學研究』 제41집,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곽대성, 「畿湖興學會의 啓蒙運動 研究」,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권오상, 「舊韓末西北學會研究」,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77.

김대용, 「방정환의 『어린이』와 『소년』 개념에 대한 논의」, 『한국교육사학』 제 32집, 한국교육사학회 2010.

김용희, 「방정환의 교육철학과 동학사상 -무위이화의 생명원리와 모심의 영성을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제 57집, 한국사상사학회 2017.

김정의, 「방정환의 소년인권운동 재고」, 『역사와 실학』 제 14집, 역사실학회 2000.

김중호, 「서북학회월보에 나타난 애국계몽사상」.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4.

명지원, 「방정환의 아동교육사상에 대한 연구」, 『열린 유아교육연구』 제15집,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10.

민윤기, 「방정환의 사상과 생애」, 『문예운동』 제141집, 문예운동사 2019

박현수, 「한국 근대문학의 재생산 과정과 그 의미-方定煥을 中心으로」, 大東文化研究 제5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2006.

백지은, 「근대 초기 문학 담론에서 "문학성"의 향방」, 『現代文學理論研究』, 제57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송준석, 「소파(小波) 방정환(方定煥)의 아동존중 교육사상의 실천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제 18집, 한국교육사학회, 1996.

신정아, 「방정환의 민족주의와 어린이 문학교육」, 『동아인문학』 제 46집, 동아인문학회, 2019.

안경식, 「소파 방정환의 아동교육운동에 있어 근대와 전통」, 『教育思想研究』 제 18집,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06.

염희경, 「방정환의 민족주의와 우리말글 사랑 정신」, 『나라사랑』, 제 128집, 외솔회 2019.

-----, 「소파 방정환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논문, 2007.

오문석, 「근대문학의 조건, 네이션≠국가의 경험」,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9집, 한국근대문학회, 2009.

원종찬, 「방정환 담론 변천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3집,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8.

이동재, 「근대성 담론과 한국 근대문학사」, 『現代文學理論研究』 제32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7.

이명희, 「청소년을 위한 문화 활동에 주력한 잡지- 어린이 자매지 학생의 문학사적 의미」,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1.

이송희, 「大韓帝國末期 愛國啓蒙學會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1985.

- 이윤미, 「소파를 통하여 보는 교육사 : 소파 방정환 교육론의 교육사적 의미」, 『아동과 권리』 제 3집, 한국아동권리학회, 1999.
- 이재연, 「소파 방정환과 한국아동의 권리」, 『아동과 권리』 제2집, 한국아동권리학회, 1999.
-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 이정석, 「1929년 창간된 『학생』지와 소파 방정환」, 『한국아동문학연구』 제 35권, 2018.
- , 「방정환의 『학생』에 나타난 브나로드 운동 고찰」, 『방정환연구』 Vol.6, 방정환연구소, 2021.
- 이주영, 「대한민국 <어린이선언>의 시대적 변화 과정과 의미」, 『방정환연구』 제1집, 방정환연구소, 2019.
- 이준만, 「韓末 西北學會의 教育運動과 愛國啓蒙思想에 관한 研究」,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8.
- 이지원, 「일제시기 젠더 문화의 일면 - 젠더사로 다시 읽는 방정환」, 『동방학지』, 제 186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9.
- 이진경, 「소파 방정환의 저작과 서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08.
- 이현식, 「한국근대문학사론과 근대성의 담론들 : 1930년대 후반 비평사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집, 한국근대문학회, 2001.
- 임성규, 「방정환 아동문학론의 문학 교육적 함의(含意)」, 『한국아동문학연구』 제14집, 한국아동문학학회, 2008.
- 임환모, 「한국 소설의 근대성 실현에 관한 연구 : 근대성 담론과 연구사를 중심으로」, 『現代文學理論研究』 제 23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4.
- 장정희, 「『학생』지에 실린 방정환의 글 텍스트와 학생운동의 방향성 고찰」, 『방정환연구』 Vol.6, 방정환연구소, 2021.
- 정용서, 「1930년대 개벽사 발간 잡지의 편집자들」, 『역사와실학』 제57집, 역사실학회, 2015.
- 조은숙, 「방정환 전집의 체제 변화 과정과 새로운 과제」, 『국제어문』 제 70집, 국제어문학회, 2016.
- 조현욱, 「西北學會의 啓蒙運動 : '西北學會月報'의 分析을 중심으로」, 成均館大學校 석사논문, 1995.
- 최미선, 「일제강점기 어린이문학 매체에 행해진 검열 실제와 문화 억압 양상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제40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21, 4-6.
- 崔志勳, 「小波의 文學이 오늘의 우리 兒童文學에 갖는 意味」, 『한국아동문학연구』 제10집, 한국아동문학학회 2004.

# ‘『학생』의 매체특성과 방정환의 저항의식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이정석(아동문학평론가)

『학생』지에 대한 연구는 발표자 논문의 연구사 검토에서 언급하였듯이 『학생』지 발간 70년이 지난 2000년대 들어와 겨우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으로는 2020년 전후로 『학생』지 원문 읽기를 위시로 『학생』지 폐간 문제, 『학생』지에 나타난 학생운동의 방향성 등 『학생』지와 관련된 주요 논문들이 잇따라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학생』지 연구에 참가한 본 토론자로서 『학생』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이 발표문은 『학생』지의 기획 특성을 찾아보고 담론 분석을 통해 지향하는 목적을 밝히면서 방정환의 저항의식을 규명하는 논문입니다.

이 글 본론에서는 ‘Ⅱ. 『학생』의 기획 특성과 서지적 고찰, Ⅲ. 담론의 목표와 편집 정책, Ⅳ. 일제의 검열에 드러난 방정환 저항의식’ 등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전개하고 있는데 Ⅱ의 1. 기획 특성 사례에서는 첫째 독창적이고 시대적 사명이 두드러진 <學生 小說 創作 리레이> 공모에 대하여, 둘째 「학생의 노래 모집」은 돌연한 폐간으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지만, 당시의 청년 학생들의 의식을 계몽 선도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보여준 기획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2. 서지적 고찰에서는 당시 가장 유력한 교육 지도자 혹은 오피니언 리더들의 시사 담론 연재 내용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시대적 사명을 각성, 조선민족의 정체성을 가져 자긍심과 깨달음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Ⅲ에서 먼저 1. 여학생의 상무적(尙武的) 감각 교양에서는 여성이 보호 대상이 아니고 상무정신으로 무장한 결기와 단호함과 엄격함을 갖춘 여성교육을 강조하였으며, 2. 인문 지리와 역사의식 제고에서는 역사 담론과 인문지리 및 우리말글과 문학에 대한 기사는 단순한 교양의 목적을 넘어선다고 분석하였습니다. Ⅳ에서는 『조선출판경찰월보』 검열 내용은 ‘자주 독립’, ‘교육제도 비판’, ‘학생단결독려’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이것은 방정환의 저항성으로 귀결되고, 방정환의 저항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Ⅱ의 1. 기획 특성 사례에서는 첫째 <學生 小說 創作 리레이> 공모의 글에서 시대적 사명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하면서 발표자는 본문에서 ‘문예창작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획이라고 본다. 국권 상실의 위난기에 나라 잃은 백성으로 전락한 학생들이 국난 위기에 대응하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양상을 『학생』 기획에서 볼 수 있다.’ 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學生 小說 創作 리레이>는 전국 20개 학교가 참여하여 각 학교 4명이 연작형식으로 소설 한편을 완결하는 창작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문예창작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기획이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작품의 목록이나 구체적인 작품 분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학교 작품인가요?

둘째 II의 1. 기획 특성 사례 둘째인 「학생의 노래 모집」에 대한 질문입니다. 토론자인 제가 『학생』 전체를 다시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학생의 노래 모집」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①『학생』3월호에 처음으로 「학생의 노래」 가사를 모집하는 광고가 실림 ②4월호에는 ‘학생계 유행가에 대한 논의’가 안재홍의 ‘유행 추수는 불가’, 이하운의 ‘유행가의 건실화’, 유광열의 ‘새노래 유행 방책’, 정홍교의 ‘가곡에 대한 조건’ 4편으로 ‘남녀간 퇴폐적 야비한 노래, 외국 실망자의 한탄 곡 등은 이성이 채 발달되지 못한 소년이 부르지 않게 천진한 동요로 바꾸자(이하운)’ 등의 주장이 실림 ③5월호 편집후기인 ‘숙직실’에 두 달 동안 응모 작품이 무려 368편이라고 밝힘 ④6월호에는 위와 같이 수준 낮은 작품에 대한 문제점 제시, 「학생의 노래」 가사에 대한 창작 방향 제시 ⑤9월호에는 9월 30일까지 「학생의 노래」 응모 연장한다는 사고 게재 ⑥10월호에는 응모를 시작한 지 6개월만에 드디어 「학생의 노래」 첫 번째 당선작 없이 佳作 4편이 발표. 응모한 작품 수가 천여 편이라고 함 ⑦학생지 11월 폐간호에서 ‘본지 4월호부터 모집하여 오던 「학생의 노래」는 아직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집은 《별건곤》부에서 引續하여 원만하게 마치려고 합니다’(114쪽)라고 사고을 냄. 토론자가 찾아낸 「학생의 노래」 사업의 진행 내용입니다.

다음은 ⑥과 관련하여 가작으로 뽑힌 김사엽의 「학생가」입니다.

소리쳐 울고 싶게 감감한 가슴/ 누구를 붙잡고 풀어나 볼까/ 책보 놓고 싹터로 뛰어나갈까/ 상처 많은 이 가슴 누구가 알리  
 (후렴) 우리에게겐 삶의 날이 언제나 오나/ 울음 걷고 기뻐 될 날 언제나 오나  
 검붉은 피 뛰노는 굵은 이 팔뚝/ 일천마력 돌돌 도는 가슴의 모터/ 우리들 무기는 이것뿐일세/ 이 두 팔 이 모터 쓸 곳이 많다  
 (후렴) 우리에게겐 삶의 날이 언제나 오나/ 울음 걷고 기뻐 될 날 언제나 오나  
 바위를 때려 부셔 시원하다면/ 바위 아냐 태산인들 못 부실 텐가/ 배우는 그 동안에 정신 차려요/ 하나 둘 험한 바위 박차 버리세  
 (후렴) 우리에게겐 삶의 날이 언제나 오나/ 울음 걷고 기뻐 될 날 언제나 오나  
 金剛白頭 靈氣 탄 우리 형제야/ 조금도 낙심 말고 싸워 나가자/ 조밥 한 술 물 한 모금 목숨이어도/ 살아가세 천만 일꾼 이곳에 있네  
 (후렴) 우리에게겐 삶의 날이 언제나 오나/ 울음 걷고 기뻐 될 날 언제나 오나

발표자께서는 위 「학생의 노래」 사업의 진행 내용을 논문에 보충할 의향은 없으시지요? 그리고 예로 든 김사업의 「학생가」 등 가작 4편에 대한 작품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거나 방정환이 정한 당선작에 대한 예상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IV. 일제의 검열에 드러난 방정환 저항의식에서 서술한 『학생』지 ‘2년여 정도의 발행기간 동안 거의 매호 총독부의 검열을 받은 매체였다. 저항성과 총독부의 검열 강도는 정비례의 수치로 설명이 되는 것이다.’ 라는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소제목으로 쓰인 ‘저항의식’은 본문에서 전혀 쓰이지 않고 ‘저항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논문 흐름으로 보아 저항성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제목과 같은 방정환의 저항의식은 어떻게 정리되어야 할까요?

넷째 질문입니다. 발표 논문에서 발표자가 가장 공들여 분석한 부분은 ‘Ⅲ. 담론의 목표와 편집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여학생의 상무적(尙武的) 감각 고양과 2. 인문 지리와 역사의식 제고 부분은 집필 분량이 많아 이 논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논문의 제목은 ‘『학생』의 매체특성과 방정환의 저항의식에 관한 연구’입니다. II와 IV에 관련 있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목으로 바꿀 의향이 있는지요?(끝)

# 권위적인 아버지의 해체와 어린이의 인권, 성장

선주원(광주교육대학교)

- I. 머리말
- II. 아버지의 존재성과 어린이의 인권
- III. 동화에 나타난 아버지의 권위와 어린이의 성장
- IV. 친밀성에 의한 가족관계의 변화와 성장
- V. 맺음말

## I. 머리말

어린이는 어른이 그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상관없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존재해왔다. 객관적으로 존재해 온 어린이를 오늘날처럼 인식하게 된 것은 풍경으로 존재해왔던 어린이를 근대적으로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이다. 근대적인 발견 이전에 어린이는 어른의 입장에서 생각되었으며, 어린이 스스로의 입장에서 생각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는 작은 어른으로 인식되거나 어른의 권위에 순응해야 하는 존재였다. 이 점은 어린이와 아버지의 관계에서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

역사적으로 아버지는 가족의 질서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절대적 권위를 지니면서 어린이를 훈육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였다. 그런 존재로서 아버지는 늘 눈앞에 존재했던 어린이의 인권이나 의지를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지, 가족의 질서를 앞세워 어린이의 삶을 결정했다. 그런 아버지 앞에 어린이는 주눅 들고 무서움을 느꼈으며, 자신의 목소리나 인권을 주장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필립 아리에스나 가라타니 고진의 관점처럼, 근대적 발견으로서 어린이의 존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부각한 이래, 어린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으로 그 스스로의 의지와 주체성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 어린이가 이렇게 인식된 것은 어린이를 작은 어른으로 여기면서 가부장적 권위나 어른의 질서에 순응해야 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어린이에 대한 과거 역사와의 단절에 의해서이다. 어린이에 대한 과거 인식과의 단절에 의해 어린이의 인권과 의지, 주체성 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근대적인 발견 혹은 사건은 어린이다움이라는 성찰을 야기했다. 어린이다움에 대한 성찰은 청소년, 어른 등과는 구분되는 존재성을 지닌 어린이의 성장에 대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어린이의 성장 문제는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로 접어드는 통과의례와 관련되어 논의되는데, 어린이의 성장은 통과의례와는 완전히 다르다. 가라타니 고진에 따르면, 통과의례에서

어린이가 어른이 되는 것은 “가면을 바꾸어 쓰는 일이나 마찬가지로, 그 가면 밑에 충실한 ‘자기’가 숨어 있지는 않다”(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옮김, 2007:164-165). 어린이가 가져야 할 충실한 ‘자기’란 어린이다움에 의해 서서히 발전하고 성숙하는 ‘자기’이다. 이런 ‘자기’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숙을 지향하는 존재이며,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의 세계에 편입하는 통과례적 변신과는 다르다.

어린이가 성숙을 지향하는 존재로서 서서히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삶을 가르쳐주는 스승으로서 부모, 특히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는 가족의 질서와 권위를 대변하는 가부장적 존재로 어린이의 성숙과 삶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존재였기 때문이다. 옛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린이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는 그다지 긍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어린이보다는 그의 부모를, 그리고 자신을 옹호하는 태도로 어린이를 대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어린이의 인권이나 의지 등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하나의 그림자로 어린이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존재인 아버지는 권위적이거나 부재하는 존재였다. “모든 서사는 존재하지 않고, 숨겨져 있고, 실체화된 아버지를 무대에 올리는 것”(롤랑 바르트, 1974;윤소영, 2013:223에서 재인용)이라는 바르트의 언급처럼, 어린이의 삶에서 아버지는 현존보다는 부재하는 존재에 가까웠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더라도 아버지는 그 권위성에 의해 어린이와 직접적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어린이의 성장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인권이나 주체성이 크게 고려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어린이는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옮김, 2007:171) 왔다. 미성숙한 존재로 성숙을 지향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만드는 어린이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아버지는 주로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권위적인 존재로서 아버지는 어린이에게 삶의 방향을 직접 주입할뿐더러 어린이의 삶 자체를 규정해 왔다. 이런 존재로서 아버지는 가족의 중심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역사적 흐름 속에 어린이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는 조금씩 변해왔다. 그것의 직접적 계기는 2000년대 이후 전개된 가족 관계의 급격한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혈연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 관계의 해체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 관계 및 가족 문화의 형성으로 인해, 아버지는 과거처럼 어린이에 대해 권위적 태도로 일관할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 가족 내에서 아버지의 권위적 태도가 점차 해체된 것은 오늘날의 가족 관계 및 문화가 친밀성에 의해 상호존중과 주체적 의지를 발현하는 양상으로 변화하는 것과 관련된다. 가족 관계 및 문화가 친밀성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족 해체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친밀성이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저출생 및 어린이의 인권에 대한 인식의 고양 등으로 인해 어린이의 존재성 자체는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중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의 인권과 의지는 점차 존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화 작가들은 어린이의 주체성과 인권을 강조하는 작품들을 창작하고 있다. 어른과의 어린이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어린이에 대한 존중의 관점,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어린이의 주체성 등이 작품으로 표상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아버지와 어린이의 관계에 작동하는 권위성이나 인권 등을 표상한 작품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많은 동화 작품들은 어머니와 어린이, 어린이와 자연 사물 혹은 동물, 어린이가 꿈꾸는 환상세계 등을 표상하여, 어린이의 순수한 동심을 표상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동화 작품들은 아버지와 어린이의 관계를 인권이나 권위성과 직접적 연계하여 표상하지 않고 있

다. 그것은 아마도 오늘날 아버지의 권위성을 직접 내세우거나 어린이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아버지의 권위주의를 해체하는 것이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문학성을 얻기 어렵다고 여겨서일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주의 해체와 어린이의 인권 신장이 동화 작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어린이를 부모의 부속물로 여기거나 어린이의 존재성이나 인권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어린이의 존재성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왜 존중받아야 하는지, 어린이의 성장에 아버지의 권위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동화에 나타난 아버지의 권위주의와 어린이의 인권 문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역사적으로 가족 내에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는지, 아버지의 권위주의는 어떤 과정을 통해 변모해왔는지, 아버지의 권위주의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가족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주의 해체 과정에서 어린이의 인권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을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이 글은 아버지의 권위주의 해체와 어린이의 인권, 성장이 맺는 상관관계를 밝히고, 오늘날의 상황에서 어린이의 성장을 위해서는 친밀성에 의한 아버지와 어린이의 관계가 설정되어야 함을 강조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밝히기 위해 논의할 작품들은 이주홍의 「미옥이」, 이영호의 「보이나 아저씨」, 김중미의 「희망」, 이상교의 「아버지와 비둘기」, 정성란의 「마실 가신 아버지」, 이미례의 「돌맹이와 솔방울」 등이다. 이 작품들 가운데 이주홍, 이영호, 김중미 등의 동화는 가장으로서 권위를 내세우는 아버지에 대한 어린이의 부정적인 인식을 표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교, 정성란, 이미례 등의 동화는 권위주의를 내세우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어린이의 긍정적인 인식을 표상하고 있다. 특히 이미례의 동화는 친밀성에 의한 아버지와 어린이의 관계를 잘 표상하고 있다.

이 글의 논의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김영주(1998)와 윤소영(2013)을 들 수 있다. 김영주(1998)는 ‘전래동화와 창작동화에 나타난 아버지의 역할 비교’를 통해,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을 모색한 의의를 갖는다. 김영주(1998)의 논의는 이 글에서 아버지의 존재성을 권위주의와 관련지어 논의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단순히 아버지의 역할에만 초점을 둬으로써 어린이의 인권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윤소영(2013)은 아버지의 부재 속에 이루어지는 어린이의 성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아버지의 부재와 모성성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윤소영(2013)의 논의는 이 글에서, 어린이와 아버지의 관계를 밝히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이 글은 아버지의 존재성과 어린이의 인권, 동화에 나타난 아버지의 권위주의와 어린이의 성장, 친밀성에 의한 가족관계의 변화와 성장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권위주의가 사회적·시대적 변천에 따라 점차 해체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어린이의 인권이 존중되어 왔음을 밝힐 것이다.

## II. 아버지의 존재성과 어린이의 인권

인간 삶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많은 경우에 양가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식이 따라야 할 상징적 대상이면서도 극복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인간의 내면에 작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서이며 삶의 근간을 형성하

는 본질적 의미로 자리해 왔다(이수정·이승하, 2010:191). 이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에 대해 갖는 상(像)은 의식의 밑바닥에 가라앉아 무의식에 자리했다. 프로이트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식이 어린 시절에 가졌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그의 삶 전체를 통어하는 무의식적 상징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버지란 존재는 자식의 삶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아버지’라는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권위, 규율, 규범, 금기, 억압, 전통, 제도 등이 다(김철 엮음, 1991:292). 아버지라는 말이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세계가 표상하는 것이 이성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국가나 사회를 상징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이 갖는 원초적 이미지는 국가, 문명, 가족의 질서와 권위였다. 아버지가 갖는 절대적 질서와 권위에 복종하는 입사식(initiation)을 통과해야만 자식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다. 자식이 입사식을 통해 아버지가 갖는 절대적 질서와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그가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서 갖는 욕망이 사회적인 것으로 인정받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식의 욕망이 아버지의 질서와 권위에 위배되거나 그것을 넘어서고자 할 때, 다시 말하면 아버지라는 존재가 자신의 욕망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겨질 때, 자식은 아버지의 자리를 부정하면서 아버지를 넘어서고자 한다.

아버지와 어린이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자리 혹은 존재는 어린이의 무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어린이의 삶의 기원 혹은 욕망도 아버지로부터 비롯된다. 어린이에게 아버지는 그의 욕망을 정당화해주거나 방해하는 존재로 여겨지며, 삶의 기원이자 욕망의 출발점이 되는 아버지의 존재성은 어린이의 인정 여부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진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는 어린이에게 무의식적인 욕망의 대상이다. 무의식적 차원에서 아버지는 어린이에게 원초적 이미지의 이마고(imago)<sup>65</sup>이다. 원초적 이미지의 이마고로서 아버지는 어린이에게 숭배와 두려움의 대상이다. 숭배와 두려움의 대상으로서 아버지는 상징계(symbolique)의 질서를 대변한다. 그러나 어린이는 점차 아버지로 대변되는 상징계의 질서에 반항하는 욕망을 가지면서, 아버지를 부정하고자 한다.

상징계적 질서를 대변하는 아버지가 내세운 근거들은 어린이에게 내적 억압의 기저로 자리 잡으면서 그의 양심과 도덕의 형태로 작용하고(김석, 2017:36), 어린이의 무의식에 자리 잡으면서 초자아로 작동한다. 그러나 어린이는 점차 아버지의 것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점차 조력자가 아닌 방해자가 된다. 그 관계에서 어린이는 욕망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자신의 존재성을 인식하면서, 그러한 욕망을 향유하고자 한다. 욕망의 향유를 통해 어린이는 점차 아버지를 거세하고자 한다. 아버지의 존재는 자신의 욕망 실현을 위한 방해자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린이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인정에 대한 욕망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실현함으로써 향유가 가능해질 수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김석, 2017:50). 이를 위해 어린이는 아버지로 대변되는 상징계의 한계를 넘어서서 자신의 욕망을 향유하고자 하려는 의지를 불태운다. 이러한 의지 표명에 의해 아들은 점차 아버지를 부정하거나 대체하는 존재가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어린이는 아버지가 상징하는 국가, 권위, 질서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욕망하는 주체가 되거나, 아니면 아버지로 대변되는 상징계의 질서를 초월하는 자신의 욕망을 향유하고자 함으로써 아버지를 부정하거나 대체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아버지와 어린이의 관계는 어린이가 욕망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65) 이마고는 주체가 타자에 대해 배우는 방식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는 인물에 대한 무의식적인 원형이다(김석, 2017:33)

런데 부재하는 아버지는 어린이가 욕망을 통해 그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죽었거나 처음부터 부재하는 아버지는 어린이의 욕망과 비교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어린이의 아버지에 대한 욕망은 금지된다. 그 결과 어린이는 저항해야 할 상징계의 질서를 갖지 못하며, 자신의 욕망을 전개할 공간이나 의지도 갖지 못한다. 이런 어린이는 일종의 '궁핍화된 존재'로서 그 스스로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아버지가 됨으로써 어린이는 아버지에 대한 금지된 욕망을 '사회'에 대한 욕망으로 대체한다. 그런 대체 과정에서 어린이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 아버지를 재구성하기도 하는데, 아버지를 재구성함으로써 어린이는 지금까지 없었던 아버지의 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아버지를 이상화한다.

역사는 아버지들의 과거를 극화시킨 이야기이다(임옥희, 1998:2). 역사의 이야기들에 나타난 아버지들의 모습은 봉건적 가장이거나 부재하거나 자식들에 의해 부정당하거나 대체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는 봉건적인 가장으로서 그리고 역사의 담당자로서 가족 내의 긴장과 갈등을 만들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국가/민족 공동체의 법질서와 혈연가족의 가족 윤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 아버지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봉건적 가족 이데올로기에 따라 아버지가 가권과 국가의 질서를 상징하는 존재로 인정받아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는 바깥일을,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는 존재라는 개념이 당연하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아버지들이 부재하거나 존재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자 가족 내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하락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는 '잊혀진 아버지'(김인홍, 1997:73;이수정·이승하, 2010:192에서 재인용)가 되었으며, 사회적인 상징성을 점차 상실하였다.

역사적으로 아버지의 권위주의가 강하게 작용할수록 어린이의 인권은 존중될 수 없었다. 어린이는 아버지의 권위나 가족에 질서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다움이나 어린이의 인권, 주체성은 크게 고려되지 못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아버지의 권위가 하락하게 되자 어린이의 주체성과 존재성이 점차 부각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린이와 아버지의 관계는 새롭게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어린이는 어린이다움을 지닌 존재로 인정받게 되었고, 아버지도 과거처럼 권위주의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이전과는 다른 가족 문화를 생성해 해야 했고, 그 일환으로 친밀성에 의한 가족 문화를 생성하면서 어린이와 새로운 관계 설정을 도모하고 있다.

아버지는 공적 존재로서는 몰락하거나 부재하지만 사적 존재로서 현실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제 아버지는 사회적 역할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가족 구성원으로서 어린이와 친밀성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그 관계 형성의 양상에 따라 아버지는 긍정되거나 부정되고, 재구성되기도 한다.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 해방 공간, 한국 전쟁, 산업화 시대, 민주화 항쟁, 인터넷의 확산에 의한 의사소통 방식의 근본적인 변혁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아버지는 공적 존재로서는 점차 몰락했지만, 친밀성을 기반으로 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관계 형성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적 존재로서의 아버지는 절대적 권위나 억압이 아닌, 전혀 다른 위상을 만들어가고 있고, 만들어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의 인권은 과거와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존중받게 되었다.

### Ⅲ. 동화에 나타난 아버지의 권위주의와 어린이의 성장

동화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은 권위주의를 강하게 가지면서 어린이를 주눅 들게 만들어 어린이의 성장을 방해하는 아버지, 권위주의 해체로 어린이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아버지 등으로 나뉠 수 있다. 물론 어린이와 아버지의 관계에는 부재하는 아버지나 부정당하는 아버지도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이 글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 1. 권위적 태도로 어린이의 성장을 방해하는 아버지

어린이의 성장을 방해하는 아버지는 강력한 권위주의와 그로 인한 폭력성을 지니며,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어린이의 인권이나 주체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질서를 강요하면서 어린이를 작은 어른으로 여길 뿐이다. 어린이는 이런 아버지에 대한 부정의식을 갖지만,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강렬한 저항이나 부정의식을 드러내지는 못한다. 다만 아버지에 대한 부정의식을 무의식에 내화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연유하는 가족관계를 견딜 뿐이다. 권위적인 태도로 어린이의 성장을 방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주홍의 「미옥이」, 이영호의 「보이나 아저씨」, 김중미의 「희망」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주홍의 「미옥이」는 열 두 살 나이로 남의 집에 식모살이를 하고 있는 미옥이를 돈 벌이로만 생각하는 아버지의 폭력성과 미옥이를 이해하는 미옥이 식모살이를 하는 집 사람들 간의 차이를 통해, 미옥을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미옥 아버지의 폭력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여덟 살 때부터 남의집살이로 나온 미옥은 변변히 주인을 잘못 만나서 이 집에 오기 전 여섯 군데의 집에서는 많은 고생을 했었다.”(이주홍, 2013:88). 그런 미옥은 지금의 주인집에 와서는 비교적 무탈하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미옥의 아버지는 수시로 와서 돈을 더 달라고 행패를 부린다. “미옥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고 있는 교회당 뒤의 개골창가에 지어 놓은 거름간 같은 판잣집이었다. 육이오 동란 때 피난민들이 지어서 살다가 버리고 간 집이었다. 미옥이 아버지도 남들같이 지게라고 지고 리어카라도 끈다면 그렇게까지는 고생을 안 해도 될는지 모른다.”(이주홍, 2013:90) 미옥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얼굴이 새까맣게 타 있고 항상 술에 취해서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곤 술 마시는 일밖에 없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가족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미옥의 아버지는 소주를 사 마시기 위해 언제나 미옥의 월급을 상습적으로 선불해간다. 그런 아버지는 미옥에게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한 존재이다.

그러나 아직 어린 나이인 미옥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친권자인 아버지의 폭력과 억압을 견딜 뿐이다. 그 과정에서 미옥의 인권이나 의지는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그 상황에서도 미옥은 혈육인 아버지를 부정하거나 혐오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인 자신을 돈벌이 대상으로 여기고, 돈을 빼앗아가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인정한다. “미옥이는 아버지가 돈을 달라고 찾아온 것도 마음이 괴로웠고, 태아 엄마와 할머니한테서 욕을 먹고 있는 것도 마음이 괴로웠다. 아버지가 술을 안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미옥이는 그런 생각만 하고 또 하고 했다.”(이주홍, 2013:110)

이처럼 미옥은 자신의 인권과 의지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아버지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런 미옥의 모습은 아버지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에서 연유한다. 가장인 아버지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미옥은 자신을 학교에 보내기는커녕 식모살이를 시키고, 식모살이를 해서 번 돈을 술값으로 탕진하는 아버지를 부정하지 못한다. 그 과정에서 미옥

의 인권이나 의지는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인권이나 의지가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미옥의 상황은 근대적 어린이의 모습과는 매우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가라타니 고진이나 방정환이 어린이의 인격과 동심을 발견하고 존중한 이래, 어린이는 고유한 인격이나 주체성을 인정받는 존재로 여겨졌다. 고유한 인격이나 주체성을 인정받는 어린이는 근대적 주체로서의 어린이이며, 이런 어린이는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 성장을 도모하는 어린이이다. 그러나 이주홍의 「미옥이」에 표상된 미옥은 근대적 주체로서의 어린이의 모습과는 매우 다른 전근대적 아동이다. 미옥은 스스로의 의지나 인권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 가운데, 오로지 아버지의 술값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있으며, 그 상황에서도 자신을 그런 상황으로 몰아간 아버지에 대한 부정의식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미옥의 모습은 가장인 아버지의 절대적 권위를 무조건적으로 승인하는 데서 연유하며, 이 때문에 미옥은 근대적 어린이로 성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이영호의 「보이나 아저씨」는 어린 소년이 권위적인 아버지와 해방 이후 한센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보이나 아저씨는 일본에서 대학을 다녔고 해방이 되기 전까지 일본에서 살다가 해방 이후 고국으로 돌아왔다. 어린 소년의 동네에 살던 아저씨를 지칭하는 ‘보이나’는 한센인(작품에서는 문둥이로 지칭됨)을 뜻하는 일본말 ‘나이보’를 거꾸로 한 말로, 한센병을 겪고 있는 아저씨에 대한 당대 사회의 편견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보이나 아저씨는 자신을 매일 놀리는 아이들의 고함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면서도 한번도 문 밖으로 뛰쳐나와 욕을 하거나 겁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어린 소년이 살던 동네를 이사가기 전에 소년의 아버지를 찾아와 인사를 하고, 소년에게도 정답게 인사한다. 그는 소년에게 “네 친구들한테도 전해 주면 고맙겠어. 내가 너희들을 무척 사랑했다고 말야. 방에 가만히 앉아서 너희들의 ‘보이나 안 보이나’ 하는 소리만 듣고도 네 친구들의 재롱스럽고 귀여운 모습이 내겐 훤히 보였단다.”(184-185)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놀렸던 어린이들에게 호감을 드러낸다. 이런 그의 태도는 권위적인 어른의 모습이 아닌, 아동의 인권과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는 한센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편견을 받았던, 호모 사케르가 언급한, ‘벌거벗은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나 아저씨가 동네를 떠나기 위해 기차를 타다가 기차 차장에게 쫓겨 기차 지붕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소년은 그에 대한 안타까움에 “눈망울이 점차 흐릿해져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189) 태도를 보인다. 어린 소년의 이런 태도는 자신들이 놀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존중하는 보이나 아저씨의 태도에 감동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벌거벗은 상태’에 놓여 배척과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을 사랑했던 아저씨의 순수한 영혼에 감동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감동의 과정을 통해 어린 소년은 타자에 대한 이해에 대한 성찰의 가능성을 마련하면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이 작품에서 어린 소년의 아버지는 딱히 위악성을 드러내는 존재는 아니지만, 전형적인 권위주의에 의한 가부장적 모습을 보인다. 어린 소년이 보이나 아저씨 일가족이 이사를 간다고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을 때, 소년의 아버지는 소년을 혼냈기 때문이다.

“아버지, 보이나 아저씨가 이사를 간대요. 지금 막.”

아이는 숨을 쉰근거리며 냅다 고함을 지르다가 찢끔해져 입을 다물었다. 아이는 더럭 겁먹은 얼굴이 되었다. 너무 버릇없는 행동을 했다 싶었던 것이다.

“이노옴! 그게 무슨 쌍놈의 말버릇이냐 응, 고이연 놈 같으니라고!”

아니나 다를까 아이의 말이 끝나기가 바쁘게 아버지의 입에서 벼락 같은 불호령이 떨어졌다. 커다랗게 홑뜬 아버지의 눈은 무서웠다. 아이는 질린 얼굴을 아래로 푹 수그렸다. (중략)

화를 내는 아버지를 대하면 아이는 언제나 고양이 앞의 쥐처럼 몸뚱이를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185-186)

소년은 보이나 아저씨가 이사 간다는 사실에 놀라 아버지에게 고함을 질렀는데, 아버지는 그런 소년의 말하기를 꾸중한다. 아버지가 소년을 꾸중한 이유는, ‘보이나’라는 표현과 고함을 질러 아버지에게 말한 태도 때문이었다. 평소에도 권위적인 태도로 소년을 주눅들게 했던 아버지 앞에서 소년은 고양이 앞의 쥐처럼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무서움을 느낀다. 아버지와 소년의 이런 관계는 아버지의 절대적 권위와 그로 인한 소년의 주눅들음을 단적으로 표상하며, 가부장적 부자 관계 속에서 소년의 인권이나 주체성은 철저히 인정받지 못함을 드러낸다. 그 과정에서 소년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의한 성장을 도모할 수 없었다.

김중미의 「희망」은 어린 석이의 시점을 통해 무수한 날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환멸, 아버지로부터의 탈출을 표상하여, 가장의 무조건적인 권위를 내세우는 가족 구조 자체에 대한 부정의식을 표상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인 석이는 꿈에서조차 아버지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아버지가 없는 곳을 살만한 곳으로 여긴다. 석이의 꿈에서 아버지는 몽둥이로 엄마와 석이를 때리는 무서운 존재이며, 현실에서는 엄마가 아버지의 발길에 차여 넘어진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석이를 보고 공부는 안 하고 텔레비전만 본다고 호통부터 쳤다. 다짜고짜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 던졌다. 깜짝 놀란 엄마가 석이를 감싸 안자, 아버지는 이번엔 공부도 못하는 자식을 감싼다고 엄마에게 손찌검을 했다.”(김중미, 2013:127)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자식인 석이에게 없는 것만도 못한 존재로 여겨진다. 아버지는 오로지 가장으로서 권위를 앞세울 뿐 가족과의 대화나 이해가 전혀 없는 폭군이기 때문이다. 이런 폭군으로서의 아버지는 과시증적 폭력을 행사하는 존재로, 석이에게 절대적 악으로 여겨진다. 석이 아버지가 얼마나 석이에게 절대적 폭력을 행사하게 된 계기는 친할아버지가 물려준 인쇄소를 빚더미 때문에 문을 닫게 되자 그 탕을 엄마에게 돌렸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외갓집의 산비탈 땅이라도 팔아 빚을 갚았으면 모든 일이 잘 풀렸을 거라고 하면서 엄마를 구박했기 때문이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자신의 말과 행위에 대한 약속과 책임을 지는 존재로서 ‘나는 누구인가’를 성찰하는 진정성(authenticity)을 전혀 갖지 못함을 보여준다. 진정성을 갖지 못한 존재로서 아버지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타자에게 돌리는 무책임함에 의한 폭력성으로 자기 파멸의 길로 간다.

자기 파멸의 길로 가는 아버지로 인해 석이의 인권이나 성장은 심각한 방해로 받는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면서 사회화를 하고, 삶의 길을 개척하는 방도를 마련한다. 아버지는 아들의 스승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바람직한 삶의 방도를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존재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아들에게 철저하게 부정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가 있는 집에 갈 수 없다. “나 이제 학교도 안 갈 거야. 학교도 가기 싫고 집에도 있기 싫어.”(김중미, 2013:140)라고 말함으로써, 아들은 아버지에게 대한 환멸감을 노골화한다. 엄마는 아버지에게 대한 환멸감을 노골화하는 아들을 점차 이해하면서, 아들과 함께 남편을 버리고 떠난다. 엄마의 이런 행동은 아들 석이의 인권과 의지를 존중한 것으로, 더 이상 정상가족의 유지가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아들을 껴안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아들을 껴안는 엄마의 행동은 아버지와 달리 아들의 인권과 의지를 존중하여, 아들이 바람직한 성장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2. 권위주의 해체로 어린이의 성장을 조력하는 아버지

권위주의 해체로 어린이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아버지는 어린이의 주체성이나 의지,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어린이에게 긍정적인 대상으로 인식된다. 이런 아버지는 어린이에게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지며, 어린이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권위주의를 해체한 아버지는 가족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고자 함으로써, 어린이가 가족 내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가 스스로의 의지와 주체성에 의한 행동을 강화하여,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게 하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해체로 어린이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상교의 「아버지와 비둘기」, 정성란의 「마실 가신 아버지」, 이미례의 「돌맹이와 술방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상교의 「아버지와 비둘기」는 살기가 어려워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온 정수네 가족의 신산한 삶을 표상하고 있다. 정수네가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된 것은 정수의 아버지가 나이가 마흔 일곱인데다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며, 군에 가려고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돌아와 있던 큰형이 경운이 사고로 죽었기 때문이다. 정수 아버지가 다리 한쪽을 절게 된 것은 전에 탄광에서 일할 때 사고로 다리를 다쳤기 때문이다. 큰형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정수네는 시골 생활을 청산하고 서울로 올라왔지만, 서울에서 정수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정수 아버지는 돈이 없어 외상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자주 문 밖에 나왔던 모이를 쪼는 비둘기를 바라보았다.

정수 아버지는 다리를 다친 비둘기들을 거두어 부엌에서 돌보다가, 그 비둘기들을 풀어준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정수는 자신의 아버지도 서울이란 곳에서 벗어나 원래 살던 시골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버지, 우리도 시골로 다시 가요. 아버지는 다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쪽짓골로 마실 다니고 그러게요. 네, 아버지!”라고 말한다. 이런 정수에 말에 화답하면서 아버지는 다시 시골로 가기로 결정한다.

정수에게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드러내지 않는다. 아버지는 다리를 다친 자신의 상황과 비둘기의 상황을 은유화함으로써, 다리를 다쳤음에도 다시 날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낸다. 정수는 그런 아버지의 욕망을 존중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다시 시골에 가서 살자고 말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정수는 다리를 다쳤지만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처지를 인식하면서, 아버지의 삶을 응원한다. 이런 정수의 모습은 권위를 내세우는 아버지가 아닌, 함께 소통하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인권을 존중받고 점차 성장을 도모하는 어린이를 표상하고 있다.

정성란의 「마실 가신 아버지」는 마실갔다가 잘 익은 옥수수를 먹고 싶어 하는 딸을 위해 집에 잠깐 들르는 아버지를 통해 가장으로서 권위를 갖고 있지만, 자식의 의지와 인권을 나뉠 존중하려는 아버지를 표상하고 있다. 이 작품은 비가 오는 날 어머니가 옥수수를 삶자 그것을 먹고 싶어 하는 은실, 아버지가 마실갔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 없는 풍경을 보여준다.

“그래, 이제 뜬이 폭 들었겠다.”

“지금 먹으면 무척이나 맛이 좋을 텐데...”

은실이는 어머니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맛을 보셔야지.”(정성란, 2013:170)

옥수수가 맛있게 살아졌지만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옥수수를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의 입장은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승인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그 점은 딸인 은실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은실은 배가 고플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기다린다. 그러다 은실은 스스로 아버지를 찾아 나선다. 이런 은실의 행위는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적극성을 드러낸다. 그런 은실의 의지와 욕구를 존중하기에 아버지는 낫술을 먹다가 은실과 함께 집에 와서 옥수수를 먼저 먹은 다음, “자, 은실아. 이제 됐지? 맘 놓고 먹어라.”(정성란, 2013:175)라고 말한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가장으로서 권위를 존중받는 가운데, 딸의 의지와 욕구를 존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가족을 위하는 일이 먼저임을 자각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은실의 인권이나 의지는 손상되지 않는다. 오히려 아버지가 자식인 은실의 행위를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은실이 아버지의 권위를 지속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자식이 아버지의 권위를 지속적으로 존중하는 태도 형성은 아버지와 자식 간의 상호존중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그러한 관계는 어른인 아버지의 말과 행위를 통해 지속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식은 아버지를 성장을 위한 토대로 인식하면서, 성장을 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미례의 「돌멩이와 술방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살아가는 초등학교 2학년 차용희가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돌아가신 아버지와 내적 대화를 하는 양상을 표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아들과 아버지가 친밀성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아들과 함께 하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축구하고, 아들의 받아쓰기 시험 성적과 무관하게 아들을 존중하는 존재였다. 그런 아버지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가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반면에 엄마는 아들이 받아쓰기 시험에서 백점을 받았을 때만 ‘아들’이라고 부르고 피자를 시켜준다. 엄마는 아들이 받아쓰기에 백점을 받지 못했을 때는 ‘아들’이 아닌 ‘차용희’라고 부르면서 아들에 대한 태도를 달리한다. 이런 엄마의 태도는 아들의 인권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쓰기 시험 결과에 의해 아들을 달리 대하는 태도 변화와 관련된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아들의 인권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방식이 아닌, 결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취하는 억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엄마의 이런 억압적인 태도는 아들에게 엄마를 부담스러워 하고, 반대급부로 친밀성의 관계를 형성했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증폭시킨다.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증폭시키고 아버지와 내적 대화에 몰두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생의 스승으로 삶을 안내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인생의 스승이었던 아버지와 내적 대화를 지속하면서, 자신의 모든 심정을 아버지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이런 아들의 심리 상태는 아버지에 대한 친밀성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친밀성에 의한 부자관계가 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됨을 드러낸다.

친밀성에 의한 가족관계는 혈육에 의한 가족 유지와는 다른 정서적 교류와 행위의 함께 함을 기반으로 한다. 정서적 교류와 행위의 함께 함은 일시적으로 형성되지 않고, 지속적인

상호교류와 인정을 토대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아들은 아버지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상호교류와 인정을 잊지 못하며, 자신의 상황을 아버지에게 보고하고자 한다. 이러한 보고의 태도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아버지가 자신의 편일 것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친밀성을 기반으로 한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지향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아들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지향함을 보여주는 사건은 아들이 들개에게 쫓기는 들고양이를 살려주는 행위를 통해 확인된다. 아들은 받아쓰기에서 하나를 틀린 날, 집에 가면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일부러 집에 늦게 간다. 집에 가던 도중 아들은 들개에게 쫓겨 나무 위로 올라간 들고양이를 본다. 아들은 들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해 돌멩이를 던져 들개를 쫓아내고, 술방울로 들고양이와 축구를 한다. 이런 아들의 행위는 언제나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줬던 아버지에 대한 믿음에서 연유한다. 아들은 받아쓰기 성적과는 무관하게 언제나 자신을 지지했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들개를 쫓고 술방울로 들고양이와 축구를 하는 자신의 행위가 바람직한 것이었음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아들의 이런 인식은 위협에 처한 대상에 대한 연민과 그러한 연민을 행위로 표출하는 계기로 작동하며, 그러한 계기 마련에는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가 부재하는 상황에서도 바람직한 성장의 가능성을 마련할 수 있었다.

#### IV. 친밀성에 의한 가족관계의 변화와 성장

한국 사회에서 사적 존재로서 아버지의 모습 혹은 존재성의 변화는 그 위상의 하락이 아닌,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가족 내의 역할 변화 및 관계의 평등성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성적 역할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삶의 변화는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가족제도나 가족 관계가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의 가족 관계에 대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그 점은 가족 내에서 아버지의 위상에 대한 논의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 성(sexuality)의 해방, 성 역할의 변화(이혁구, 1999:224) 등에 따라 가족 관계는 더 이상 가족 부양이라는 전통적 관점이나 성 역할의 고정성 측면에서 설명되기 어려워졌다. 특히 오늘날에는 이혼, 혼외출산, 한부모 가족, 동거, 동성애가족, 대안가족 구성 등과 같이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 제도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 가족의 의미와 관계는 친밀성(intimacy)의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친밀성은 “구체적인 타자의 삶/생명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사이토 준이치, 윤대석 외 역, 2009:106)되는 것으로, 타자를 자신의 코드에 회수하지 않는 관계, 타자성에 대해 더욱 수용적인 사람 간의 관계를 발견할 계기를 포함하고 있다(사이토 준이치, 윤대석 외 역, 2009:110-112). 친밀성의 관점에서 볼 때, 가족은 혈연을 근간으로 하는 동일성의 원리에서 벗어나 차이를 바탕으로 한 공존의 모색을 추구해야 한다(이혁구, 1999:230).

동일성의 원리에 의한 가족 관계는 가족 구성원의 기능을 바탕으로 한다. 가족 구성원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가족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핵가족과 성별 분업을 기본적인 사회적으로 요구들, 즉 성행위 및 출산 규제의 필요성과 육아 및 그 사회의 가치로 자식들을 사회화시킬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장치로 본다(페이슨 R.엘리엇, 안병철·서동인 옮김, 1993:25). 그러나 친밀성에 의해 차이를 바탕으로 한 공존을 모색하는 새로운 가족 관계는 오랜 기간의 상

호의존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경제적 부양 혹은 책임에 의한 가족의 유지가 아니라, 가족 상호간의 '관계로서의 세계'(김혁구, 1999:235)를 추구한다. 그러한 관계로서의 세계는 순수한 친밀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는 평등을 기반으로 한다. 아울러 개인주의와 정의적 관계의 고양에 의해 가족 간의 친밀성의 강화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친밀성을 바탕으로 하는 가족 관계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전통적 관점에서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친밀성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 내에서 아버지는 권위나 질서를 상징하지 않으며, 친밀함을 도모하는 존재로서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재구성된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의 주체성이나 인권은 그 이전 시대와는 다르게 규정되고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권위주의를 해체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21세기의 가족 관계에서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오늘날의 가족 관계에서 많은 아버지들은 권위나 질서를 구현할 수 없을뿐더러, 친밀성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배제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가족과는 분리된 개인적 정체성이나 어린이의 인권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가족의식과 가장으로서의 권위에 대한 고수는 고루한 것이 되었다. 가족 구성원들은 자신의 욕망과 자율적 의지에 충실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혼자 살기'를 선호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부재하지 않고 가족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과의 상호작용과 신뢰에 의한 친밀성을 도모해야 한다. 싱글턴(singleton) 사회<sup>66)</sup>, 즉 혼자 사는 삶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2020년대의 사회적 상황에서 아버지가 가족 구성원들과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그 위상은 더 이상 보장될 수 없다.

2020년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상황에서 가족 내에서 혹은 가족 밖에서 아버지로 대변되는 존재의 전통, 권위와 금기들은 사라지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정통성과 기억들도 함께 사라져버렸다. 가족 구성원 간의 평등성과 친밀성,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사회 체계의 급격한 변화,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시대적 지각변동'(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채연숙 옮김, 2018:12) 등에 따라 가족 내에서 아버지의 위상은 급격한 변동을 맞이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족 토대의 단절, 가족적이고 세대를 포괄하는 이해기반과 이해능력이 상실되었으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공동 지식의 특정한 토대가 사라졌다(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채연숙 옮김, 2018:12). 그에 따라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되었으며, 과거 대가족 사회에서 삼대를 이어주는 구두로 전승된 가족사에 관한 회상의 소통적 기억도 사라졌다. 소통적 기억의 상실에 따라 가족 내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더욱 더 그 위상의 추락을 겪게 되었고, 자식들은 가족의 과거와 현재가 분리되는 '기억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그 결과 가족의 문화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멸한 과거와 현재의 뿌리내리지 못함 가운데서 추락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아버지라는 가장이 가족사를 통해 전승되어 온 문화적 기억을 말할 수 없고, 가족사의 기억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켜줄 존재로서 아버지에 의한 가족사 기억의 소멸은 어린이의 인권 신장에 역효과를 자아내고 있다. 어린이는 자신의 주체성이나 인권을 강하게 지켜줄 아버지의 역할 축소 속에, 그 스스로 주체성이나 인권을 지켜야 하는 더욱 험난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가 아닌, 친밀성에 의해 어린이

66) 싱글턴 사회가 등장하게 된 것은 여성의 취업과 지위 향상, 통신혁명, 대도시의 형성, 고령화(수명 연장) 등 때문이다(김혜경 외 12인, 2018:138). 여성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자 결혼보다는 일을 선택하고 있으며, 대도시와 디지털 기술혁명은 익명의 공간과 다양한 문화 현상, 혼자만의 다양한 여가를 공급하여 싱글턴 사회를 초래했다. 그리고 인간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혼자 여생을 보내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와 소통하고 어린이를 존중하는 아버지의 존재성이 새롭게 강조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어린이는 미성숙하지만 성숙을 지향하는 존재로서, 아버지라는 스승을 통해 올바른 사회화와 성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소멸되는 가족사의 기억은 탈색되고 상실되고 퇴색되면서, 아버지는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어린이는 자식이 아닌 그 스스로 '아버지 되기'를 강요받고 있다. 어린이는 가족에 관한 생생한 기억을 갖지 못한 채, 장차 스스로 가족을 꾸려나가야 하는 책임을 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의 해소를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린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동화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의 모습에 대한 기억을 통해 어린이는 가족 해체나 자기 해체의 문제에서 벗어나 자아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가족 내 아버지의 모습을 침묵하게 기억하여, 그것을 생생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아버지의 모습에 대한 기억의 왜곡이나 축소에서 벗어나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한 비판과 성찰을 통해 어린이는 202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가족 로망스를 만들거나 아버지의 모습을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V. 맺음말

가족 간의 친밀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아버지는 더 이상 가부장적 권위와 질서를 상징하지 못한다. 아버지는 더 이상 대가족 제도를 유지할 수 없는 사회 변동 속에서 가족들의 분리를 경험하면서 가족들과 친밀한 상호 관련을 맺는 것에 집중한다. 이런 아버지는 가부장적 가족 내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며, 아내나 어린이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들이 처음부터 가족 구성원들과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은 아니다. 한국의 가족 제도는 혈연과 성별 분업을 기초로 한 사회경제적 위계를 전제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들은 가족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존재로서 절대적 권위와 질서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 속에 아버지들은 가족의 질서와 안녕을 혼자서만 감당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런 경우들은 여성의 경제 참여와 더불어 가장들의 실직, 자녀의 경제 활동 참여 등으로 인해 더욱 빈번해졌다. “산업화 이후 자녀수의 감소, 높은 교육열, 기혼 여성의 취업률 증가, 경제 성장으로 인한 소득 수준 향상, 평등과 개인주의라는 의식의 변화 등에 의해”(이재경, 2008:22), 많은 아버지들은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의 분리와 가족 내의 위상 변화를 경험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족 내의 안녕을 위해서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가족 내에서 수평적 관계를 받아들여야 했다.

가족 내의 수평적 관계 형성은 사회적 변화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사회적 변화를 유발하기도 한다. 가족 관계의 변화와 가족의 분리는 사회적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게 만들고, 그러한 정책들의 실천 속에 공공선을 추구하는 사회적 변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한 목표 달성은 가족을 더 이상 사적 영역에서의 일차 집단으로 보지 않고, 가족 간의 연대, 가족 구성원 간의 연대를 통한 유대감의 형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가족 내의 친밀감을 기반으로 한 연대감의 형성 원리가 사회 전체의 연대감 형성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가족 이기주의나 가족의 해체 등과 같은 사회적 병폐들이 해소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아울러 주체성과 인권을 지닌 존재로서 어린이에 대한 존중의 가족 문화가 더욱 확산되어, 어린이가 어린이다움을 잃지 않는 친밀성에 의한 가족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 ※ 참고문헌

-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옮김(2007),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주)민음사.
- 김석(2017), 「아버지의 위상-금지와 향유의 기원」, 『기호학 연구』 제51집, 29-56.
- 김영주(1998), 「전래 동화와 창작 동화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 비교」, 『한국아동학회 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998권 1호』, 178-185.
- 김중미, 「희망」, 김명수·김민령·김옥·김일광·김종렬·김중미·남찬숙(2013), 『엄마 몰래 탈출하기』, 창비.
- 김철 위음(1991), 『아버지의 얼굴』, 국민서관.
- 김혜경 외 12인(2018), 『가족과 친밀성의 사회학』, 다산출판사.
- 사이토 준이치, 윤대석 외 역(2009), 『민주적 공공성』, 이음.
- 알라이다 야스만, 변학수·채연숙 옮김(2018),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개정판 5쇄), 그린비.
- 윤소영(2013), 「아버지의 부재와 아동의 성장에 관한 연구」, 『동화와번역』 제25집, 219-244.
- 이미례(2020), 「돌맹이와 솔방울」, 『시계 수리점의 아기 고양이』, 리틀씨앤북.
- 이상교, 「아버지와 비둘기」, 한국명작동화선정위원회 위음(2003), 『100년 후에도 읽고 싶은 한국명작동화: 1923-1978』, 예림당.
- 이수정·이승하(2010), 「아버지 상의 사적(私的) 변화 양상- 90년대 이후 소설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36호, 191-220.
- 이영호, 「보이나 아저씨」, 한국명작동화선정위원회 위음(2003), 『100년 후에도 읽고 싶은 한국명작동화: 1923-1978』, 예림당.
- 이재경(2008), 『가족의 이름으로』, 또하나의문화.
- 이주홍, 「미옥이」, 이숙현·이원수·이주홍·이준연·임길택(2013), 『뽕뜰, 꿈뜰』, 창비.
- 이혁구(1999), 「탈근대사회의 가족변화와 가족윤리」, 『한국가족복지학』 4, 219-242.
- 임옥희(1998), 「우리 시대 아버지의 우화」, 『문학동네』 제5권 제3호(통권 16호), (주)문학동네, 1-14.
- 정성란(2013), 「마실 가신 아버지」, 『정성란 동화선집』, 지식을만드는지식.
- 페이스 R.엘리엇, 안병철·서동인 옮김(1993), 『가족 사회학』, 을유문화사.

# 「권위적인 아버지의 해체와 어린이의 인권, 성장」에 대한 토론문

김태호(춘천교대)

근대적 인식 속에서 어린이가 ‘발견’된 이후 어린이 인권을 존중하려는 문화적 실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현실에서 어린이는 가족 이데올로기 속에서 아버지의 권위에 순응해야 하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보듯 어린이는 아버지의 세계를 수용하면서 성장합니다. 라캉의 오이디푸스 문화론에서 ‘아버지’는 사적 차원(가족)을 넘어 공적 차원(사회)으로 확장된 의미를 갖습니다. ‘아버지’는 사회 체제의 법과 규범, 언어적 질서 등 상징계적 질서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어린이가 아버지의 세계에 편입되거나 이를 극복한다는 것은 곧 어린이가 사회적 일원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주체적인 성장을 탐색하는 데 있어 ‘아버지’와의 관계성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입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권위적인 아버지가 변화하였음을 탐색하고 아동문학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어린이의 인권 존중 및 성장이 어떻게 발현되어야 하는가를 논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부장적인 가족 문화 속에서 권위적인 아버지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어린이 인권을 존중하려는 실천 속에서 아버지의 권위적인 태도가 점차 해체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가족 간의 상호 존중을 바라보고 어린이의 주체적 성장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동문학 작품 속에서는 어린이의 인권 및 성장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루지 않거나 아버지(사회)의 관련성을 소거한 채 피상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권위적인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내세운 작품, 친밀한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나타낸 작품들을 분석하고 친밀성에 기반한 가족 관계와 어린이의 성장을 모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어린이 인권과 성장, 아동문학의 문화적 실천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큰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논의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몇 가지 고민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첫째, 권위적인 아버지의 해체 속에서 어린이의 인권이 존중되었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점차 권위적인 아버지가 해체되고 어린이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자께서 지적하였듯이 여전히 어린이는 성인에 예속된 존재이고 다른 방식의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부모의 욕망을 강요받고 입시라는 굴레에 매여 살아갑니다. 어린이 인권이 물리적 폭력으로 점철된 1980년대 이전에 비해 나아진 상황이나, 여전히 다른 방식의 억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께서는 아동문학이 이 지점을 어떻게 반영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둘째, 작품 해석과 시대적 배경의 관련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연구자께서는 「미옥이」의 5편을 선정하여 분석하셨습니다. 권위적인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내세운 작

품 세 편, 친밀한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내세운 작품 세 편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의 배경이 된 시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례로 「미옥이」는 1981년 발간되었고 김중미의 「희망」은 2002년에 발간되었습니다. 두 작품은 시대적 배경 면에서 20여년의 시차가 존재하는데, 이는 작품 해석에 일정한 영향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1980년대에는 폭력적인 아버지가 시대적 전형일 수 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그러한 아버지상이 확연히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2000년대 이후 아동문학 작품에는 친밀성을 내세운 긍정적 아버지상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연구자의 고견을 청해봅니다.

셋째, 「보이나 아저씨」에서 보이나 아저씨에 대한 해석에 대한 고민입니다. 보이나 아저씨는 당대 성인들의 전형으로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보이나 아저씨는 어린이들에게 권위적이지 않고 자신을 배척한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가부장적인 소년의 아버지와 대조를 이룹니다. 제 소견으로는 보이나 아저씨가 이상적인 ‘아버지상’을 대변하고 그의 이사가 이상적인 아버지가 허용되지 않은 시대상에 대한 비판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연구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돌멩이와 솔방울」에서 아버지가 상징계적 질서를 대변하는 인물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연구자께서는 친밀감을 통해 어린이와 소통하고 어린이의 인권 및 성장을 도모하는 아버지상이 잘 나타난 작품으로 「돌멩이와 솔방울」을 언급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견해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 작품을 라캉의 오이디푸스 문화론에서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를 바꾸어 해석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품에서 어머니는 사회적 질서를 강요하는 ‘아버지’의 위치에 존재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자연이란 모성적 공간에서 화합하는 삶을 느끼게 한 ‘어머니’의 위치에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를 청해봅니다.

의미있는 연구를 먼저 읽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역량이 부족하여 연구를 오독한 지점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헤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 인 발 표

# 백석의 동화시에 드러난 공동체성 연구

상모초등학교 박중빈

## 목차

---

### I. 서론

### II. 백석 문학 속 공동체성의 의미

1. 백석의 시인의식과 공동체성
2. 아동문학관에 드러난 공동체성

### III. 백석의 동화시에 담긴 공동체성의 의미

1. 공동체성으로써 다양성의 의미
2. 공동체성으로써 애착의 의미

### IV. 결론

---

## I. 서론

### 1. 시대적 분위기

가. 일제 강점기: 민족적 정체성 상실

나. 사회주의 북한: 헤게모니 아래 문학적 개성 상실

다. 전통성과 근대성이 끊임없이 뒤섞이는 역동적인 현실

### 2. 백석 문학의 지향점: 공동체성

격동의 시대 속에서 문학 통해 지켜내고자 했던 가치

작품에 드러난 공동체성 또한 역동적 현실을 반영함.

## I. 서론

### 3. 연구 목적 및 방법

01 시대 변화에 따른 시인의 의식변화

02 해방 이전 시 작품 속에 담긴 공동체성  
아동문학 평론에 담긴 공동체성의 의미

03 **백석 동화시에 드러난 공동체성 분석**



**동화시 속에 담긴 공동체성의 가치와 의의의 지평 확장  
현실의 변화에 따른 건강한 공동체성에 대한 통찰 획득**

## II. 백석 문학 속 공동체성의 의미

### 01. 백석의 시인의식과 공동체성

시집 『사슴』의 세계는 그 시인의 기억 속에 쭈그리고 있는 동화와 전설의 나라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실로 속임없는 향토의 얼굴이 표정한다. 그렇건마는 우리는 거기서 아무러한 회상적인 감상주의에도, 불어오는 복고주의에도 만나지 않아서 더없이 유쾌하다. ...중략... 그 점에 『사슴』은 그 외관의 철저한 향토 취미에도 불구하고 주책없는 일련의 향토주의와는 명료하게 구별되는 '모더니티'를 품고 있는 것이다.

- 김기림, 『사슴을 안고-백석시집 독후감』, 조선일보, 1936.

### 공동체의식

- 집단 영역의 생활범위 안에서 성립하는 생활공동의 연대의식
- 시대에 따른 문학적 제약을 넘어선 백석 문학세계의 구심점

## II. 백석 문학 속 공동체성의 의미

### 02. 아동문학관에 드러난 공동체성

#### 가. 공동체와 동화문학의 특징

「동화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조선문학, 1956.5

##### (1) 동화문학의 내용

- ① 시정: 인간과 세계에 대한 감동적 태도
- ② 철학: 사상의 집약

##### (2) 동화문학의 특징: 과장과 환상을 통해 세계에 감동을 부여하는 것

##### (3) 동화문학의 소재

- ① 사상을 담고있는 실생활 속에서 진행되는 것들로 아동을 경탄케 하는 것
- ② 인민생활에 기초를 둔 구비문학의 전통과 인민이 살아가는 새로운 현실

##### (4) 아동문학의 지향점: 다채로운 버라이어티에 찬 세계, 다양성있는 공동체

## II. 백석 문학 속 공동체성의 의미

### 02. 아동문학관에 드러난 공동체성

#### 나. 공동체적 현실의 다양한 양상

『나의 향의 나의 제의』, 조선문학, 1956)

- 벽찬 현실이 하나의 표현으로 고정되는 것을 비판
- 다양한 소재와 감각적 표현에서 오는 개성의 중요성 강조
- 페이스: 정서적인 호소력이 있는 시적 요소, 벽찬 현실을 드러냄.
  - ▶ 생활 속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 시인의 감각적 인식으로 발견됨.
- 다양한 개성의 공존
  - ▶ 현실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어 건강한 현실 인식 제공.

## II. 백석 문학 속 공동체성의 의미

### 02. 아동문학관에 드러난 공동체성

#### 다. 아동의 세계관 형성과정 속 공동체성의 의미

##### (1) 교양성과 사상성

- 사상성 : '아동의 세계관의 위치 설정의 준비'
- 교양성 : 유년층 아동의 '생활 관찰의 능력 배양의 준비'

##### (2) 세계관의 형성과정

- 관찰: 아동이 세계를 인식하는 가장 초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
  - ▶ 관찰을 통해 느끼는 페이스(인식의 희열)를 통해 세계관 형성
  - ▶ 아동문학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공해야함.

## II. 백석 문학 속 공동체성의 의미

### 02. 아동문학관에 드러난 공동체성

#### 다. 아동의 세계관 형성과정 속 공동체성의 의미

현실적 소재 + 과장과 환상 = 인식의 희열

- ▶ 아동으로 하여금 '백찬 현실'을 마주하게 함.
- ▶ 현실 인식의 희열 : 올바른 세계관 형성의 필수요소

## II. 백석 문학 속 공동체성의 의미

### 02. 아동문학관에 드러난 공동체성

#### 다. 아동의 세계관 형성과정 속 공동체성의 의미

##### (3) 차연을 통한 개성의 조화

#### 현실의 역동성

끊임없이 새로운 것과 만나며 확장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

건강하고 견고한 정체성 형성

#### 상호텍스트성

텍스트가 텍스트 내외의 요소들과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것

새로운 타자성 발견

텍스트의 의미 확장

현실인식의 지평확장

## II. 백석 문학 속 공동체성의 의미

### 02. 아동문학관에 드러난 공동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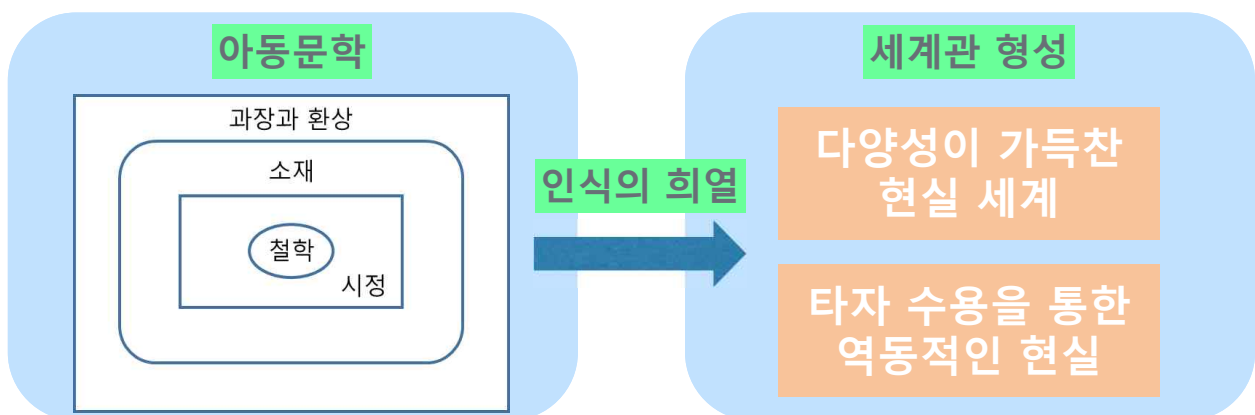
#### 다. 아동의 세계관 형성과정 속 공동체성의 의미

##### (4) 아동문학의 과업

- 생활 속의 익숙한 대상(주체)과 낯선 대상(타자)의 만남을 시도하고 새로운 모더니티를 발생시켜 아동들에게 건강한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
- '새로운 것'과 '전통적인 것'이 만나 끊임없는 상호관계 속에서 '벽찬 현실'이 짜여가며 역동적이고 건강한 세계관이 생겨난다.

## III. 백석의 동화시에 담긴 공동체성의 의미

### 동화문학 속에 담겨있는 공동체성의 의미



### III. 백석의 동화시에 담긴 공동체성의 의미

#### 01. 공동체성으로써 다양성의 의미

동화문학을 통해 발생하는 '새로운 모더니티'는 차연에 의해 새로운 의미가 발견됨으로써 끊임없이 연장되는 새로운 것이 아니면서 새로운 공동체성이다.

백석 아동문학 세계는 동화라는 새로운 이야기와 전설이라는 전해온 이야기가 함께 현실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 나가는 다양성 있는 공동체적 세계이다.

### III. 백석의 동화시에 담긴 공동체성의 의미

#### 01. 공동체성으로써 다양성의 의미

##### 가. 전통과 현대의 뒤섞임을 통해 확장하는 다양성

어느 깊은 산'골짜  
 뻑뻑한 나무판에  
 ...중략...

이깔나무, 잣나무,  
 붓나무, 참나무,  
 박달, 분비 그리고 보섭  
 어린 나무 동무들  
 즐거이 살아 갔네.

나무 동무 일곱 동무  
 밤마다 꿈꾸었네 -  
 과목이 되는 꿈  
 전선'대가 되는 꿈  
 배판장이 되는 꿈  
 연장이 되는 꿈  
 동발이 되는 꿈.  
 종이가 되는 꿈  
 문짜이 되는 꿈

이렇게 즐겁게도  
 꿈꾸며 자라는  
 나무 동무 일곱 동무  
 튼튼들도 해,  
 비'바람에도 끄떡 없이  
 눈보라에도 끄떡 없이  
 또 찌는 듯 더운 삼복에도  
 끄떡 없이 자라 갔네.

- 1 ~ 15연

### III. 백석의 동화시에 담긴 공동체성의 의미

#### 01. 공동체성으로써 다양성의 의미

<p>그것은 늦은가을 어느 아침 날, 세상 소식 잘 아는 건넌산늬은 까치, 푸루룩날아와 소식 전했네-</p>	<p>《나무 동무 일곱 동 무 너희들은 아느냐- 원썩들이우리 나라 쳐 들어 온 걸?》 ...중략...</p>	<p>나무 동무 한 동무 이깔나무는 짐부러진가지들에 지붕처럼 덮인 눈 내려 쏟아 원썩들께 눈벼락내렸네.</p>	<p>나무 동무 한 동무 붓나무는 미끄러운 등걸에 원썩놈들기대자 날쌔게 몸을 빠져 놈들을 곤두박았네.</p>
--	--	---	--

- 19 ~ 35연

### III. 백석의 동화시에 담긴 공동체성의 의미

#### 01. 공동체성으로써 다양성의 의미

<p>이리하여 나무 동무, 나무 동무 일곱 동무 나라에서 나오라는 기다리던 부름 받아 나서 자란 산을 떠나 갔네- 강물을 헤엄쳐내려 갔네, 기차를 타고 달려 갔네 화물 자동차에 실려 갔네.</p>	<p>그리하여 잣나무는 평양 거리 한복판 크나큰 극장의 문짝 되어 자랑스런 얼굴을 번쩍이며 수많은 사람을 들여 보내네, 내어 보내네.</p>	<p>그리하여 붓나무는 길주 제지 공장 찾아 가서 약물로 미역 감고 흐늑흐늑 녹 아 팔프가 되었다가 종이가 되어 그림과 옛말을 들고 나오네 산수 문제를 들고 나오네.</p>
---	--	--

- 53 ~ 60연

### Ⅲ. 백석의 동화시에 담긴 공동체성의 의미

#### 01. 공동체성으로써 다양성의 의미

##### 나. 공동체적 연대에 의한 다양성의 형상화

<개구리네 한솔밥>의 서사는 따뜻한 마음과 삶의 문제는 개인의 고유적인 특질을 발견하게 하고, 각자의 삶을 이어가고 확장시킴을 보여준다.

<개구리네 한솔밥>에서 동물 각자가 처한 어려움은 개구리의 마음을 움직이며 극복되고, 개구리의 위기는 동물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극복된다.

### Ⅲ. 백석의 동화시에 담긴 공동체성의 의미

#### 01. 공동체성으로써 다양성의 의미

##### 나. 공동체적 연대에 의한 다양성의 형상화

개구리 또 덩적덩적	방아다리 우는 것이	《길을 잃고
길을 가노라니	가엾기도 가엾어	갈 곳 몰라 운다.》
길 아래 논'두렁에	개구리는 뿌구국	개구리는 바쁜 길
우는 소리 들렸네.	물어 보았네-	잊어버리고
	《방아'다리야	길 잃은 방아'다리
개구리 뉘큼뛰여	너 왜 우니?》	길 가리켜 주었네.
논'두렁에가보니		
방아다리 한 마리	방아'다리 울다 말고	- 8~12연
영영 우네.	대답하였네-	

### Ⅲ. 백석의 동화시에 담긴 공동체성의 의미

#### 01. 공동체성으로써 다양성의 의미

##### 나. 공동체적 연대에 의한 다양성의 형상화

그러자 웬일인가, 개똥벌레 웅하니 날아 오더니 가쁜 숨 허덕허덕 말 물었네-	개구리 이 말에 뿌구국 대답했네- 《어두운 길 갈 수 없어 걱정한다.》	그랬더니 하늘소 무거운 짐 받아 지고 개구리 뒤따랐네.  그랬더니 방아'다리 이 다리 찌궁 저 다리 찌궁 벼 한 말을 다 짚었네.
《개구리야, 개구리야 무슨 걱정 하니?》	그랬더니 개똥벌레 등'불 받고 앞장 서, 어둡던 길 밝아졌네	

- 30~47연

### Ⅲ. 백석의 동화시에 담긴 공동체성의 의미

#### 01. 공동체성으로써 다양성의 의미

##### 나. 공동체적 연대에 의한 다양성의 형상화

장작 없이 밥을 지은 개구리는 좋아라고 뜰악에 멍석 깔고 모두들 앉히었네.	길을 치워 준 소똥굴이, 방아 짚어 준 방아'다리, 밥을 지어 준 소시랑게, 모두모두 둘러앉아 한술밥을 먹었네
불을 받아준 개똥벌레, 짐을 저다준 하늘소,	

- 53~54연

### III. 백석의 동화시에 담긴 공동체성의 의미

#### 02. 공동체성으로써 애착의 의미

백석의 동화시 속의 공동체 구성원은 각자 존재의 내부에 서로에 대한 타자성을 수용함으로써 응집하며 공동체를 구성하고 버라이어티에 가득 찬 세계를 구성한다.

타자수용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지니는 '애착'으로 인해 일어나며 공동체에 다양성을 부여한다.

### III. 백석의 동화시에 담긴 공동체성의 의미

#### 02. 공동체성으로써 애착의 의미

#### 가. '한'을 통한 타자 수용과 공동체의 확장

오월이는 어린아이  
한종일 굶은 아이,  
쉬찰밥한 덩이  
입으로 가져 갔네.

이 때에 주인 마님  
새'문벌컥 열었네,  
밥 한 덩이 입에 문  
오월이를 보았네.

한 덩이 찰밥을  
입에 문 채로  
오월이는 매 맞았네

매 맞고 쫓겨 났네.  
춡디추운 밖으로  
쫓겨 난 오월이  
캉캉한 어둔 밤에  
엄마 찾아 울었네.

행길로우물가로  
엄마 찾아 울다가  
앞터앞밭고랑에  
얼어붙고 말았네.

주인집 쉬밥덩이  
먹지도 못하고  
어린 종 오월이는  
얼어 죽고 말았네,  
엄마도 못 보고  
얼어 죽고 말았네.

- 6~11연

### III. 백석의 동화시에 담긴 공동체성의 의미

#### 02. 공동체성으로써 애착의 의미

그 이듬해 이른 봄  
얼었던 땅 풀리자  
오월이가 얼어 죽은  
앞터밭 고랑에  
남 먼저 머리 들고  
달래 한 알 나왔네.

이 달래 어떤 달래  
곱디고운 붉은 달래,  
다른 달래 다 흰데  
이 달래 붉은 달래,  
쉬찰밥이 붉듯이  
이 달래 붉은 달래.

쉬찰밥이 아니 잊혀  
쉬찰밥빛 그대로,  
엄마가 보고 싶어  
이른 봄에 나왔네.

사나운 주인에게  
쫓겨나 죽은  
불쌍한 오월이가  
죽어서 된 이 달래,  
세상 사람 이름 지어  
쫓기달래.

이 달래 가없어서  
이 달래 애처로워  
세상에선 이 달래를  
차마 못 먹네.

- 12~17연

### III. 백석의 동화시에 담긴 공동체성의 의미

#### 02. 공동체성으로써 애착의 의미

#### 나. 자아형성 과정에서 드러나는 공동체의 애착

준치는 옛날엔  
가시 없던 고기.  
준치는 가시가  
부러웠네,  
언제나 언제나  
가시가 부러웠네

준치는 어느 날  
생각다 못해

고기들이 모인 데로  
찾아 갔네,  
큰 고기, 작은 고기,  
푸른 고기, 붉은 고기,  
고기들이 모일 데로  
찾아 갔네.

고기들을 찾아 가  
준치는 말했네

가시를 하나씩만  
꽃아 달라고  
고기들은 준치를  
반겨 맞으며  
준치가 달라는  
가시 주었네,  
저마끔 가시들을  
꽃아 주었네.

- 1~3연

### III. 백석의 동화시에 담긴 공동체성의 의미

#### 02. 공동체성으로써 애착의 의미

그러나 고기들의  
아름다운 마음!  
가시 없던 준치에게  
가시를 더 주려  
간다는 준치를  
못 간다 했네.

그러나 준치는  
렴치 있는 고기,  
더 준다는 가시를  
마다하고,  
붙잡는 고기들을 뿌리치  
며  
온 길을 되돌아  
달아 났네.

그러나 고기들의  
아름다운 마음!  
가시 없던 준치에게  
가시를 더 주려  
달아나는 준치의  
꼬리를 따르며  
그 꼬리에 자꾸만  
가시를 꽃았네.  
그 꼬리에 자꾸만  
가시를 꽃았네.

이 때부터 준치는  
가시 많은 고기,  
꼬리에 더욱이  
가시 많은 고기.

준치를 먹을 때엔  
나물지말자.  
가시가 많다고  
나물지말자  
크고 작은 고기들의  
아름다운 마음인  
준치 가시를  
나물지말자.

- 6~10연

## IV. 결론

### 백석의 동화시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인가?

1. 백석이 동화시를 쓴 이유는 무엇인가?

공동체성을 지켜내는 것이다.

2.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동화시에 담긴 공동체성의 의미 탐색을 통해 알 수 있다.

3. 공동체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구성원들의 다양성과 구성원 간의 애착을 통해 짜여가는 연대의식이다.

4. 공동체성을 지켜내는 것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체성과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 백석의 동화시에 나타난 공동체의 진실은 무엇인가?

- 「백석의 동화시에 드러난 공동체성 연구」에 대한 토론문

지상선(성균관대학교)

1930년대 한국의 모더니즘 문학에 대한 연구는 서구의 모더니즘이 수입된 결과로 보는 측면이 있다. 이는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을 우선시하는 측면으로의 이동을 보여준다. 서구의 모더니즘적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한국 현실을 담아내기 위해 재창조했는가 하는 점에서, 30년대 후반 한국의 문학은 서구의 문학 정신과 전통적 문학 정신과 구별한다. 이로써 민족 현실에 대한 현실주의적 인식과 더불어 자기 동일성의 회복, 자아의 정체성 확인과 자기 반성적 등 토착적이며 향토적인 정서나 언어, 전통적 표현 방식을 취하고 있다.<sup>67)</sup> 하지만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문학이 지닌 한계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본고의 논의 대상인 백석이 활동한 시기도 이 지점에 있다. 그의 시 세계는 모더니즘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한 시인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백석은 재북 형식으로 북한을 선택했지만 북한 문예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다가 북한 문예계의 주류에서 벗어나게 된다. 백석에 대한 시 연구는 1980년대 초반부터 오늘날까지 지속하였고 그의 공동체적 삶에 기반 한 시 의식의 연구는 이동순, 최두석, 신범순, 고희진, 김재용 등으로 이어진다. 이동순은 백석의 시를 모국어 정신이 공동체적 삶에 기반을 둔 주체적 정서의 확립으로 보았고<sup>68)</sup> 최두석은 공동체 정서를 유년의 화자와 연결해 암울한 식민지 현실을 극복하고자 세계와 자아의 갈등이 없는 자기 충족적인 세계를 담고 있다고 보았다.<sup>69)</sup> 고희진도 모더니즘의 독창적 개척자로서 다채로운 감각적 이미지 결합과 공동체 삶의 원형을 이야기했다.<sup>70)</sup> 김재용은 해방 전 백석의 시가 공동체를 상실한 근대인의 소외감에서 출발했다고 보았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전근대의 민속에 관심을 가졌다고 보았다. 백석의 초기의 시의 특징은 친족 공간에서의 상실과 화해, 비극적 대비의 향토적 공간이 시적 긴장감을 형성했다면 후기로 나아 갈수록 긴장감이 허물어지고 감상적 자아가 시의 전면에 드러난다. 유년 시절에서 청년 시절의 공간 이동과 신화적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의 이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sup>71)</sup>

백석은 북한에서 발표된 대부분의 작품이 동화시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며 백석의 동화시와 마르샤크의 동화시에 공통으로 나타난 시적인 요소와 서사적 요소를 적극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박명옥 연구에서 시적인 측면은 반복과 대립, 병렬은 아동에

67) 광봉재, 「백석 문학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p.7-9

68) 이동순, 「민족시인 백석의 주체적 시정신」, 백석 시 전집, 창작과비평사, 1987, pp.11

69) 최두석, 「백석의 시세계와 창작방법」, 《우리시대의 문학》 6집, 문학과지성사, 1987, pp.174-176

70) 고희진, 「백석시를 읽는다는 것」, 문학동네, 2013.

71) 광봉재, 위의 논문 pp.11

게 리듬을 제공하고 낭독할 때 발생하는 언어의 유희, 의성어와 의태어 등이 있다면 서사적인 측면은 ‘민족 공동체의 지향성’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반영’을 투영으로 보았고 백석은 도식주의와 무갈등론을 배격하고 작가의 개성과 차원 높은 예술성을 작품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가 추구했던 민족 원형의 공동체적 사회를 새로운 형식의 동화 창작으로 이어갔으며 이는 마르샤크의 동화시의 구조와 동일하다. 그들은 그 시대의 흐름인 사회주의 이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의 집단이 요구하는 가치에 반응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들의 동화시에는 빈부귀천이 없고 합심하여 이상을 이루는 근대인들의 이상향을 나타내고 있다.<sup>72)</sup> 그것이 그들의 체제 속에서 그들만의 생존 방식에 따라 그들의 이상을 동화시를 통해 꿈꾸었다고 보여 진다.

백석이 북한문예정책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해방 공간을 번역과 동화시 창작에 있음을 김재용은 몇 가지 근거를 들어 주장하고 있다. 백석이 발표한 논문에서 혁명적 낭만주의로 나타난 도식주의와 서정성 결여 그리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 비판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계층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공동체 합일성을 추구하는 시의식이 사회주의 체제의 공동체 유토피아를 모색하는 것으로 변모된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백석이 북한 문학계에서 사라진 후에도 지속적 활동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한편 백석이 경직된 문학의 도식주의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1956년 발표된 「동화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나의 항쟁, 나의 제의」, 「큰 문제 작은 고찰」에서이다. 그는 동화작가가 직면해야 현실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인민의 창조적 노동과 연결 짓는다. 그는 동화시에 나타난 과장과 상상을 통해 시정과 철학을 전달하고자 했으며 인민 동화가 지닌 한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함을 역설했다. 그리고 이상화된 공동체에 대한 집착을 통해 대타적 위치에 서고자 했다<sup>73)</sup>

따라서 본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박중빈의 연구에서 백석의 동화시에 나타난 공동체를 또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았다. 그의 연구는 백석의 문학 속 공동체성의 의미를 분석하여 문학사적 위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고자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백석에게 아동문학은 당시 문단의 요구가 아닌, 자신의 문학과 정체성을 추구하는 과정에는 동의하나 그 중심에 있는 전체주의 또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어떻게 확연하게 구분되는 공동체인지 모호하다. 또한 연대의식이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 반목을 푸는 고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72) 박명옥, 「백석의 동화시와 마르샤크의 동화시 비교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2015.

73) 광봉재, 위의 논문 pp. 170-174

# 북한 『아동문학』의 우화시 연구

김영옥(대구교육대학교)

- I. 머리말
- II. 『아동문학』 수록 우화시의 형상화 기법
- III. 『아동문학』 수록 우화시의 주제
- IV. 맺음말

## I. 머리말

본 연구는 북한에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매월 발행되는 『아동문학』에 수록된 ‘우화시’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한의 상호배타적인 편차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이 문학임을 볼 때, 오랜 기간 동안 우리에게 전해져온 친숙한 이야기의 한 형태인 우화시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

통일 국가는 ‘언어공동체’이다. 그래서 ‘통일’은 우리 말과 글을 사용하는 남북한이 사회적·문화적으로 소통이 자유로운 상황으로 보기도 한다<sup>74)</sup>. 우리의 말과 글로 남과 북이 자유롭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국어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어교육 중에서도 남북한의 상호배타적인 편차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은 문학이다. 따라서 통일시대 주역의 한 축인 북한의 어린이가 어떤 아동문학 작품을 읽는지, 북한의 성인들은 어떤 아동문학 작품을 접하며 성장했는지 연구하는 것은 통일시대의 국어교육을 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북한 아동문학에 관한 연구는 적은 편이고 그 역사도 짧다.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연구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다. 북한 아동문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 이후, 특히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다. 오랫동안 아동문학사 연구에서 북한 아동문학은 원천 배제되었으며, 심지어 외국 문학으로 취급되기도 한다<sup>75)</sup>. 분단체제의 고착으로 북한 아동문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한국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연구자들 역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북한 문학은 체제문학이면서 선전교양에 충실한 목적문학이기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문학작품을 유통하는 방식이 관을 주도로 한 기관지 형식이었고, 이러한 북한 사회에서 우화는 교육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기에 우화를 하나의 장르로 인정하고 있다.

74) 진선희(2018), 『남북한 전래 동요 연구』, 미래엔, p. 9.

75) 유임하·오창은·김성수(2009), 「북한문학사의 쟁점」,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새 민족문학사 강좌2』, 창비, p. 402.

특히 우화에 운율이 들어간 독특한 형태인 우화시가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 아동문학의 장르로 우화를 따로 설정한 것은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어린이들이 우의적인 기법을 통해 반영된 현실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인식하도록 함과 아울러 교육의 수단으로서 우화를 활용하여 주제적 문예이론을 고양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북한 우화에 관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장르를 서술하는 경우 언급되거나 간단한 설명이 곁들여지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연구를 시도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북한 아동문학에 우화라는 장르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우화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전후 복구 건설시기에 우화 문학이 고유한 형태적 특성을 더욱 완성하면서 여러 주제에 걸쳐 창작되게 된다. 황금순<sup>76)</sup>은 이 시기 우화 문학을 표현하기를, “질풍같이 나아가는 영웅조선의 격동적인 현실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썩들의 추악하고 악랄한 본성을 폭로하는데 지면을 돌렸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주제 영역에서 도덕적 측면을 강조하던 데서 벗어나 당시의 시대상을 생생하게 반영한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화시에서 최우선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교훈성이다<sup>77)</sup>. 우화시는 경험이 부족한 아동들에게 인간이라면 갖추어야 할 보편적 덕목과 다양한 가치에 대해 아주 간결하면서도 집중적으로 알려준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장르보다 확실한 방법으로 성장기의 아동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아동에게 사상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북한에 효과적인 문학 장르가 되어주는 셈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이자 북한의 대표적인 아동문학 잡지인 월간 『아동문학』에 우화로 발표된 작품을 가려내고, 이 중 시의 형태를 가진 것만을 대상으로 정리하여 총 355편의 우화시를 형상화 기법과 주제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북한의 모든 문학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종자’를 어떻게 형상화하느냐에 따라 북한 고유의 이념성이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 우화시가 가진 기법 및 주제를 살피는 것은 향후 통일 국가에서 아동 텍스트로서의 가능성을 보는 그것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남북한의 동질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 II. 『아동문학』 수록 우화시의 형상화 기법

76) 황금순(2017), 「전후복구건설시기 새롭게 발전한 우화 문학에 대하여」, 『조선어문』, 제4호, p. 23. “이 시기 북한 우화작품들의 사상 주제적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적으로서의 개조, 도덕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성격의 인물 비판, 적대계급의 비인간적 본성과 탐욕성을 낱알이 밝히는 데 이바지하는 우화작품을 창작하는 것이었다.”

77) 원종찬(2012)은 『북한의 아동문학』에서 “우화는 맨 끝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교훈을 직접 서술해 보기도 하는데, 의미 층위가 두텁지 못한 탓에 풍부한 문학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서술하고 있기도 하다. p. 183.

형상화 방식을 중심으로 문학 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것은 형상화 방식의 명칭이나 추상적인 지식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의도로 사용되었는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지 이해한다는 의미이다<sup>78)</sup>. 『아동문학』에 수록된 우화시를 형상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서정적 요소와 서사적 요소가 결합된 시형식이라는 것이다. 벨린쓰끼는 우화를 ‘풍자로서의 진정한 하나의 시의 족속’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벨린쓰끼의 논의를 적극 수용하여 리원우는 우화시를 작가의 사상이 담긴 서정적 토로와 서사적 요소가 함께 담긴 서정·서사시적 풍자시라고 규정한다.

북한의 우화시는 정형시 보다는 운율의 법칙이나 일정한 어수(語數)의 틀이 없는 내재율을 지닌 자유시의 형태로 작품화되었다. 복잡한 사건의 흐름이나 등장인물의 성격 형성 과정을 보여주지 않아도 마치 한 편의 소설을 읽은 듯한 효과를 주고 있다. 긴 글이 힘든 어린 아동에게 짧은 시의 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우화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교훈)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로 ‘풍자와 해학’은 우화사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이다. 북한의 관점에 따르면, 해학의 수법으로 창조되는 형상은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해학적 인물의 성격 규정과 관련된다. 해학적 대상은 인물이 지닌 부정성으로 인해 비판되어야 할 낯고 뒤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하며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자부하면서 으스스대다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희극적 인물이다.<sup>79)</sup> 북한에서 창작되고 있는 우화는 부정적 인물을 해학적으로 그려서, 그 인물의 부정적 행동에 대한 독자의 비판을 기대하고 있다.

『아동문학』 2017년 11월호에서는 ‘문학교실’ 코너에서 <우화 문학에서 풍자, 해학의 수법은 무엇일까요?>라는 제목으로 아동들에게 ‘풍자’와 ‘해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우화는 ‘웃음 속에 심각한 교훈과 진리를 담고 있는 무게 있는 글’이라면서, “풍자란 계급적 원썩들을 증오와 조소(비웃음)의 감정으로 찌르는 것을 말하며 해학이란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부정적 현상에 대해서 익살스러운 웃음으로 비판하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리원우는 우화를 쓰기 위해서는 ‘고전들을 연구’해야 한다<sup>80)</sup>고 말한다. 풍자와 유머가 없이는 우화가 성립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조선 시대 창작된 소설들은 풍자적 요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계급적 문제의식이 많았던 소설들은 풍자적 요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계급적 문제의식이 많았던 봉건시대의 특징이고 이러한 요소는 사회주의에 알맞은 소재의 작품이 되어 북한 문학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고전은 우화는 아니지만, 우화와 마찬가지로 폭로 정신으로 불타며 사회적 문제를 건드리는 풍자와 해학적 웃음이 있다. 리원우는 이러한 고전들의 전통을 우화에 인입하여 인민성을 풍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남북한이 통일시대 동질감 회복을 위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하나가 오랜 세월을 한 민족으로서의 역사·사회·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우화는 남북한이 오랜 시간 함께 누려온 고전과 맞닿아 있다는

78) 이은주(2010), 「우화소설의 인물 교육 연구-인물 형상화 방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국어교육과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p. 41.

79) 장영·리연호(1995), 『동심과 아동문학 창작』, 문학예술출판사, p. 208.

80) 리원우(1956), 『아동문학 창작의 길』, 평양:국립출판사, p. 130.

데서 가치가 크다.

세 번째 형상화 기법으로 우화시가 선택한 언어는 입말체임을 든다. 아동문학에 있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언어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은 언어 형상의 문제를 언급하는 부분에서도 ‘작가는 언어문제가 단순히 작품의 형상문제인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 자기 인민의 자조성과도 관련되는 문제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언제나 주체적 립장에서 어휘를 고르고 문장을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아동문학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아동들의 일상언어인 입말체로 사용할 것을 제시하는데, 보통입말체어휘와 애칭어, 속된 말이 그것이다. 보통입말체는 특히 직관적이고 생동한 것을 좋아하는 아동에게 효과적인 언어 수단이라는 점에서, 애칭어는 대상에 대한 친근하거나 귀여운 감정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속된말은 부정적 감정을 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구된다<sup>81)</sup>.

우화시에 등장하는 속된말의 경우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동문학에서 사용하기 힘든 낱말일 수 있다. 세 편의 우화시 「재봉사 승냥이」(『아동문학』, 2016, 3월호), 「말거미와 두꺼비」(『아동문학』, 2016, 9월호, 「명명이가 준 지팡이」(『아동문학』, 2017, 6월호)의 표현을 봐도 알 수 있다. ‘네 놈의 수의나 지어 입어라’, ‘남을 등쳐먹는데 이골이 난’, ‘뒤통수를 후려갈길 중’, ‘새끼승냥이 씨벌여댔네’ 라는 표현에서 ‘수의’, ‘등쳐먹다’, ‘이골이 나다’, ‘후려갈기다’, ‘씨벌여대다’ 등은 남한 아동문학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에서 이러한 낱말이 사용되는 이유는 우화라는 장르에 예속된 풍자라는 기제가 그 형식에 있어서 문체와 낱말을 과격하게 만드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는 점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고<sup>82)</sup>, 또 다른 이유로는 북한 아동문학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문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후대들을 혁명의 대를 이을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 사업”<sup>83)</sup>이기에 ‘사상적 무기’라는 강한 목적성과 기능성을 띠게 된다. 그 때문에 일반 문학보다 더욱 치열하게 사회주의 교육학에 기반한 능동적 무기로 사상교육에 매진하려는 것이 아동문학의 핵심적 역할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성인 문학부터 아동문학까지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법이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우화시의 작품들이 가진 공통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 주인공들이 대부분 동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캐릭터를 부여받은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삼는 의인화의 기법은 인간을 직접적으로 등장시키는 것에 비해 훨씬 더 강렬하고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어떤 캐릭터를 가진 상대와 만나게 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상황, 서로 다른 갈등과 대립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우화시에는 상세한 배경 설명이 생략되어 있으나 독자들은 이미 어떤 동물이 등장하는가에 따라 이야기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간파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네 번째 기법인 비유의 묘미를 볼 수 있다. 우화시가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비유적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직관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동물 의인화 기법에 힘입은 바 크다<sup>84)</sup>.

81) 서동수(2005), 「북한 아동문학의 장르 인식과 형상화 원리」, 『동화와 번역』 제9호,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p. 109.

82) 김보경(2014), 「리원우의 아동문학론 연구-『아동 문학 창작의 길』(1956)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아동문학 석사학위논문, p. 53.

83) 정룡진(1991), 『아동문학의 새로운 발전』, 평양:문예출판사, 머리말 참조.

84) 장정호(2019), 「이솝우화의 교육적 해석:우화로서의 특징과 그 교육적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제

우화의 가치는 그것이 지닌 비유적 힘을 이해할 때에 더욱 분명하게 부각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의인화된 등장인물을 위시하여 흥미로운 상황 설정, 재치있는 전개와 반전 등 우화에서 나타나는 모든 요소는 하나의 우화적 비유를 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형상화 기법으로 교육적 결말을 든다. 우화의 구조는 세 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 단계는 시작 상황으로 주인공과 상대방이 간단하게 소개되는 동시에 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는 도입부에 해당한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의 분쟁이 야기되는 부분으로서, 여기에서는 주요 등장인물들의 대화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야기되었던 분쟁이 해결되는 단계로서, 대부분 승자의 패자가 구분되고, 이 과정을 통해 우화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이 드러난다<sup>85)</sup>. 그리고 그 결론에는 풍자적인 웃음이 담겨있다.

흥미로운 점은 등장인물의 말을 빌려 교훈 즉, 주제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우화시 말미에 ‘x’ 표시를 하고 작가가 주제를 직접 덧붙이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x

무엇이든 실속은 알 생각 않고

겉만 보고 저만 아는 척 뽐내는 아이

이 이야기 듣고 생각할 건 없을까? (리일복, 「토끼의 선물」, 『아동문학』 1963년 3월호)

리일복의 「토끼의 선물」에서는 친절하게 그 결론을 작가가 말해주고 있다. “무엇이든 실속은 알 생각 않고/ 겉만 보고 저만 아는 척 뽐내는 아이/ 이 이야기 듣고 생각할 건 없을까?” 하고 저만 아는 척 뽐내는 아이가 이 글을 읽고 반성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북한에서 우화시의 목적이 옳은 것을 위해 투쟁하는 정신을 갖고 사회생활 속에 있는 부정적 현상을 풍자하는 데 있다고 볼 때, 우화에서 마지막에 드러나는 교훈성은 작가가 독자(아동)들이 이야기 재미에 빠져 정작 전달하고 싶은 본질 즉, 북한이 목적하는 이념성을 파악하지 못할까 봐 덧붙여진 글이라 할 수 있다.

### Ⅲ. 『아동문학』 수록 우화시의 주제

#### 1. 정치사상적 교양

본 연구에서 논의할 것으로 분류된 『아동문학』에 게재된 우화시를 정치사상적 교양 주제 우화와 정서 교양 주제 우화로 나누었다. 그 결과 정치사상적 교양 주제를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형상화한 우화는 총 53편이었다. 53편의 우화의 내용은 크게 보면 모두 ‘원썩’라는 대상에 대한 적개심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원썩’에 대한 대상이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33권 제4호, 한국교육사상학회, pp. 164-165.

85) 장정호(2018), 「옛이야기의 세계와 그 아동 교육적 함의-한국전래동화, 그림형제 동화 및 이솝우화를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6.

냐의 기주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지는데, 하나는 지주·자본가·제국주의에 대한 경계에 맞서는 계급의식과 투쟁정신의 고양이고, 다른 하나는 ‘원썩’을 무찌르기 위해 경계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 가. 지주·자본가·제국주의에 대한 경계-계급의식과 투쟁정신의 고양

북한에서는 당성과 계급성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부합하도록 자본가, 자본가 계급, 제국주의 등에 대한 증오를 갖도록 지도한다. 주된 내용이 “지주, 자본가, 제국주의침략자들은 가장 악독한 나쁜 놈이며 원썩들을 무서워하는 것은 매우 비겁한 행동이라는 사상을 강조함으로써 계급적 원썩에 대한 증오심과 비타협적 투쟁정신”<sup>86)</sup>을 기르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증오는 사회주의 조국과 노동자 농민 계급에 대한 애착과 애국주의 정신을 심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지주, 자본가, 제국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표현한 우화시는 제목에서부터 이념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지주, 미국, 남한과 미국의 대통령 등이 등장하는 것이 그것이다. 「나무짐에 깔려 죽은 지주놈」, 「벼락맞은 지주」, 「손해를 본 박첨지」, 「말문막힌 선교사」, 「《대통령》의 제일친구」, 「허수아비와 로태우」, 「《대통령》의 허리병」, 「말거미의 《그네줄》-백악관의 《거미》 들에게」, 「박제품 대통령」, 「박서장놈의 《종북》 소동」, 「미친 미국소」, 「트럼프와 반디벌레」의 제목에서 볼 수 있는 지주의 모습은, 보통 나무짐에 깔려 죽고, 벼락을 맞고, 손해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교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말문이 막히고, 대통령은 허리병이 있거나 박제품이며, 미국소는 미쳐 있다. 「말거미의 그네줄」이라는 제목에는 ‘백악관의 거미들에게’라고 굳이 부제를 달아 백악관의 거미와 말거미 사이의 일을 암시하기까지 한다. 「대통령의 제일친구」와 「허수아비 로태우」, 「트럼프와 반디벌레」도 대통령을 제목으로 하여 자본주의 국가, 특히 남한과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담긴 내용임을 짐작케 한다.

북한의 사회체제에서는 지주와 자본가는 부정적인 인물이며 미워하도록 교양해야 할 것이 된다. 우화시가 부정적인 것을 비판하며 그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작품 속 지주와 자본가는 그들의 행동이 더욱 과장되고 해학성이 짙어진다. 관련된 우화시는 「황지주네가 잡은 도적놈」, 「나무짐에 깔려 죽은 지주놈」, 「벼락맞은 지주」, 「손해를 본 박첨지」, 「농부와 소도적놈」, 「올챙이와 새끼도마뱀」, 「물에 뛰여든 신사」, 「꿈에 본 날도적놈」, 「벼와 돌피」, 「땅이 열기 전에」, 「소와 말 하늘소」, 「말거미와 두꺼비」로 12편이다.

우화시에 등장하는 지주는 모두 재산에 대한 욕심이 많고 소작인과 열심히 일하는 농민(노동자)을 착취하고 못살게 구는 인물이다. 북한에서 지주라는 존재는 증오하고 미워해야 하는 존재다. 우화는 부정적인 인물의 성격을 확대·과장하여 보여주고 그 과장된 행동에서 웃음을 발견하게 한다. 악한 것, 그른 것, 미운 것 등 부정적인 것을 비판하며 그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풍자, 해학의 양식을 띠고 했다. 지주는 결국 피지배층 즉 소작인과 농민 등의 노동자에게 당하고야 마는 모습을

86) 정룡진(1994), 「아동문학의 형태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그 구현에서 나서는 문제」, 『조선문학』, 평양:문학예술출판사, p. 47.

보여주는 것으로 적대계급의 결말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지주와 자본가를 소재로 한 우화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를 소재로 갖긴 하지만 미국을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한 우화는 그 모습을 약간 달리하고 있다. 오늘날 미제국주의란, 미국이 세계 질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 신보수주의자들이 추진하는 미국의 공격적인 정책에 반대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sup>87)</sup> 최근 그 뜻이 한층 더 넓어져 초강대국이나 강대국에 대해 과거 로마 제국 등과 비교하는 등 야유적인 조소가 담겨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문학』의 우화시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의 문예이론은 어린이들을 설득하고 교양하는 목적성을 강하게 갖기 때문에 남과 북의 이질성은 여실히 드러날 수 밖에 없다. 2012년에 이르러서는 정치색이 더욱 강해지고 남한에 대한 풍자가 더욱 날카로워진다. 남한의 대통령에 대한 언급에도 거침이 없다.

### 나. ‘원썩’에 대한 경각심 교양-자력갱생의 혁명적 원칙 교양

제목이나 내용에 미국, 지주자본가, 남한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원썩’로 칭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경계가 나타나는 우화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에서의 계급주의 교양 교육은 적을 미워하도록 교육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공식적으로 ‘원썩’에 대한 분노와 증오, 투쟁정신을 갖도록 교육한다.<sup>88)</sup> 이때의 ‘원썩’은 적개심의 대상이며 ‘남녘 괴뢰군, 일제, 미국놈, 지주자본가, 봉건주의자’ 등으로 북한 교과서에 규정되어 있다.<sup>89)</sup> 원한과 증오의 감정을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고 상대를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자신은 그러한 절대 악에 맞서 숭고한 투쟁을 하는 절대 선으로 상대화하여 ‘원썩’에 대한 투쟁적 결의를 다진다.

우화시에서 ‘원썩’은 무찔러야 하는 대상으로 표현된다. ‘원썩’은 주로 거짓된 모습으로 접근해 오기 때문에 ‘원썩’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경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는 우화시가 창작되고 있다.

「승냥이와 노루」, 「거미와 매미」, 「인정많은 양아지미」, 「웃음짓던 황새」, 「개미와 장다리꽃」, 「승냥이 안마의사」, 「털 한줌」, 「울리지 못한 방울소리」, 「약침맞은 얼룩 황소」, 「밥조개의 후회」, 「그물웃」, 「승냥이와 사냥개」, 「잡지않고 쫓다가」, 「너구리의 교훈」, 「얼룩곰이 당한 봉변」, 「승냥이의 젖은 손수건」 총 16편의 우화시에서 주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우화시는 마지막에 직접적인 메시지로 교훈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작품이 하려는 말을 듣기 위해 우화들의 끝부분을 모아보면, ① 동지들! 경각성 없이 승냥이를 찾아 간/ 노루의 운명을 동정치 말자! ② 원썩은 교활한 범/ 우리 언제나 놈들의 피임수에/

87) 위키백과:미제국주의

88) 지다슬(2015), 「북한이탈청소년의 북한 소학교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초등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지다슬은 10명의 북한 이탈 청소년의 소학교 경험에 관해 질적 연구하였다. 계급주의 교양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언어 참여자들은 사상교육을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중략-김일성, 김정일의 ‘위대함’에 대해 감정적인 확신을 형성하고, 미국, 일본에 대한 강력한 적대감을 내면화하였다고 말한다. 또 특정한 인물이나 대상에 대해 ‘원썩’로 여기는 감정적인 태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이었다고 증언하였다.

89) 엄인영(2020), 「북한 국어교과서 계급주의 교양 교육의 ‘원썩’ 의식화 교육 내용분석」, 『국어교육학연구』 제 55집 제1호, 국어교육학회, p. 111.

절대로 넘어가는 일 업어야 하리 ③ 인정은 많을수록 좋은것/ 허나 벗과 원썩을 가리지 못하면/ 랑패를 보기마련이라네 ④ 똑똑히 알아 두라/ 달콤한 웃음속에 칼을 품고/ 함부로 덤벼 치다가는/ 오히려 제 운명이 끝장난다는 것을! ⑤ 분수 넘는 칭찬속엔 칼이 숨어있고 / 가식없는 충고엔 진정이 있다는 것을/ 내가 왜 미처 깨닫지 못했을까? ⑥ 어리석은 토끼 두마리가 단 번에 걸려들었군 ⑦ 나쁜 놈들이 배푸는/ 값죽은 선심속엔/ 피 묻는 칼이 감추어져 있는 법/ 풀먹은 승냥이가 없듯이/ 인정 있는 여우도 없는 법이구나 ⑧ 도적놈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렇게 되기 마련이야/ 이제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경각성을 높여 마음속에 새 방울을 달거라 ⑨ 교훈이 되리라 얼룩황소 이야기/ 원썩들의 달콤한 수작에 녹아 몸뚱이에 쉬 쓰는줄도 모르다가는/ 봉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⑩ 아, 원썩놈이 멀리 갔다 마음을 놓고/ 해이된탓에 이 지경 되었으니/ 누구를 원망하라/ 나를 원망할 수 밖에 ⑪ 우리가 그만큼 말해주었는데도 듣지 않더니 ⑫ 이젠 네놈을 먹어치우자/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 ⑬ 우리 목장의 안전을 위해선/ 오직 단호히 사울 준비 하고 있으리라! ⑭ 남의 피를 즐기는 원썩놈들은/ 쫓지말고 모조리 때려잡아 없애야 한단다 ⑮ 너구리 자넨 각성이 무더/ 우리를 해치려는 놈은/ 그것이 큰놈이건 작은놈이건/ 사정을 봐주거나/ 용서해 주어서는 안되네 ⑯ 교활한 자의 도움을 받다가는/ 이런 봉변 당한다는 것을, 과같이 경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처단해야 할 ‘원썩’은 그것이 큰 놈이건 작은 놈이건 사정을 봐주거나 용서해 줘서도 안되고 교활한 자의 도움은 받아봤자 뒤에 봉변을 당한다고 쓰고 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미제와 계급적 원썩들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지나간 옛 생활과 잃어버린 땅과 가산을 찾기 위한 원썩들의 악랄한 행동은 계속된다는 것을 구체적인 인물 형상을 통하여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다.

## 2. 정서 교양

상대적으로 이념성이 낮은 우화시라고 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목적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우화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과 악의 대결 구도 역시도 순서 정서 교양과는 혁명적 원칙 대 사대주의 간의 대결이라던가 지주, 자본가, 제국주의자 대 계급의식과 투쟁 정신 간의 대결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작품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묘사하여 성실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당과 수령이 마련해준 이 사회주의 체도에서 살며 일하는 끝없는 기쁨’<sup>90)</sup>이라는 이념을 내재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우화시를 각각의 보편적 가치 주제로 나누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텍스트 중에는 북한 사회의 사상성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어 주목하게 된다. 지혜와 성실, 근면, 협동심 등의 도덕적 가치는 북한 사회에 체제유지를 위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덕목들이다. 이러한 가치와 덕목들은 남한의 어린이들에게도 유용한 것들이다. 다만 형상화하는 방법에 있어 지나치게 사상성을 앞세우거나 개인의 가치를 떠나 집단주의나 연대의식만을 강조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북한의 우화시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여도 될 것이다.

90) 『조선문학』, 평양:문학예술출판사, 1990년 9월호, 머릿글 참조.

## 가. 인과응보의 교훈성

인과응보란 일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인 즉,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노력하면 성과를 거둔다거나 씨를 뿌리면 수확하게 되고 그물을 치면 물고기를 잡는 것 등이 모두 그런 이치라 할 수 있다. 반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뜻으로 자신의 운명은 자신의 행동에 따라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화시에 있어서 긍정 인물은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명민한 인민으로, 겸손한 지식인으로, 부지런한 노동자로 등장하여 쓴소리로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한다. 대부분 승자와 패자가 구분되고, 이 과정을 통해 우화시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이 드러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를 예로 들면, 「여우와 학」에서 여우는 학을 식사에 초대해 놓고 넓적하고 평평한 접시에 스프를 담아 대접한다. 그 결과 여우는 학에 의해 똑같은 양감을 당하게 되는데, 목이 길고 가느다란 항아리에 고기스튜를 담아 여우에게 대접함으로써 되갚음을 한 것이다. 좋지 않은 의도를 품고 타인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마침내 자신도 동일한 보답을 받게 되고야 만다는 인과응보의 교훈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곰, 노루, 토끼, 너구리들 모여  
 피약별을 참아 가며 놀이터를 닦다가  
 나무 그늘 밑에서 땀을 들일 때  
 너구리 형제 결눈질 힐끔힐끔  
 슬그머니 집으로 뺄소니쳤네

마침 이 때 나들이 갔던 흰 토끼  
 놀이터를 닦는다는 소문 듣고서  
 얼음 과자 한 짐 선물로 지고 왔네  
 《이 복덕위에 수고들 하십니다  
 시원한 얼음과자 가져 왔으니  
 녹기 전에 어서들 나누어 드세요》

짐승들 모두 흰 토끼를 맞고 나  
 얼음과자 같이 들려고 하니  
 너구리 형제가 온 데 간 데 없었네

부르고 또 불러도 대답이 없어  
 작업 종을 때리니 그래도 감감…

이 때 큰 너구린 자기 집에서  
 자리에 누워 낮잠을 청하다가  
 찾는 소리에 동생 집을 넘겨 봤네

《홍, 아직은 동생도 까딱 않는걸-》

작은 너구리도 형네 집 넘겨 보며  
 《홍, 아직은 형님도 까딱 않는걸-》  
 그리고는 자리에 주저앉는데  
 또다시 울리는 종소리 종소리…

큰 너구리 투덜대며 자리에서 일어났네  
 《내가 하나 없다고 일을 시작 안 하나?》  
 작은 너구리도 불이 부어 웅얼웅얼  
 《나 하나 빠진다고 일이 안 되냐?》

그런데 작업장을 바라 봤을 땐  
 모두들 하얀 것을 먹고 있었네

그제야 너구리들 엮어질듯 달려 가니  
 흰 토끼는 젖은 흙을 쥐여 주며 말했네  
 《이것이 늦어진 선물입니다  
 많은 몫을 남겨 놓았는데  
 기다리는 사이에 이렇게 녹았지요  
 성의니 이거라도 받아 주세요.》

그러자 와그르르 웃음 터졌네  
 (「늦어진 선물」, 김선지, 1964년 12월호)

위의 우화시는 동물들이 모두 피약별에서 놀이터를 만들기에 한창인데 너구리 형제는

피를 내어 집으로 뺏소니친다. 놀이터 만들기에 한창인 동물들을 위해 흰토끼는 얼음과자(아이스크림)를 가져오고, 동물들은 너구리 형제들을 부르기 위해 작업종까지 치지만 너구리 형제는 일하러 오라는 것으로 알고 가지 않는다. 결국, 얼음과자가 다 녹고 나서야 일터로 돌아간 너구리 형제에게 남은 것은 젖은 흙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이처럼 우화시의 주제는 좋지 않은 의도를 품고 타인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마침내 자신도 동일한 보답을 받게 되고야 만다는 인과응보의 교훈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 전개를 통해 부메랑처럼 되돌아 오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명확하게 각인시키게 되는 것이다.

## 나. 현실주의적 세계관

인과응보를 주제로 한, 선은 언제나 승리하고 보상을 받으며, 악은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이상주의적인 세계관이 표현된 우화시도 있지만 모순적이게도 선이 항상 보상받는 것은 아니며, 힘 있고 지혜로운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현실주의적, 상대주의적인 세계관을 드러내기도 한다.<sup>91)</sup>

우화시의 교훈들은 매우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향해 있다. 예컨대, 강자에게 항거할 수 없는 약자 편에서의 부당함이 사회 속에 엄연히 존재함을 알려주며 허약한 자의 어리석음과 불한당들 사이의 행태 등이 어떤 것인가를 해학적으로 말해준다. 현실 속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통용되는 현실적 논리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이같이 우화시는 인간 삶의 다양한 사건과 그 사건에 통용되는 현실적 논리를 가감없이 보여주며, 여기에서 강조하는 교훈 역시 선과 악의 존재와는 무관한 것이다. 우화시가 전하는 교훈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원칙과 논리가 존재하는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되, 독자가 그에 대한 현명한 분별과 통찰을 촉구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선이 항상 보상받는 것은 아니며, 힘 있고 지혜로운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현실주의적, 상대주의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등장인물 또한 그것이 인간이건 동물이건 간에 선악으로 양극화된 인물이 아닌, 현실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sup>92)</sup> 결국 우화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 삶의 생생한 현실 속을 살아나가는 유연한 처세에 관한 이해와 통찰이다. 다양한 인간의 삶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 존재에 대한 철저한 각성인 것이다.

실지로 아동들은 이미 어른과 공존하는 현실의 세계에 몸담고 있으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렵פות한 예감과 방향성을 갖고 있다. 아동들의 삶 역시 현실 속에서 영위되며, 따라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현실에 대한 궁금증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에서의 충족감을 추구하기도 한다. 아직 미성년인 아동들에게 있어서도, 실제로 발생하는 온갖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고 해결해야 하는가의 현실적 문제는 인생 최대의 과제가 된다.

91) 심향분(1996), 「이솝우화의 아동문학 교육적 가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92) 김세희·현은자(1996), 「전래동화와 이솝우화의 인물에 대한 유아의 반응」, 『유아교육연구』 제 16집 제2호, 한국유아교육학회, pp. 8-9.

## IV. 맺음말

본 연구는 북한에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매월 발행되는 『아동문학』에 수록된 우화시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북한의 아동문학 장르 구분에서 특이한 점은 우화를 따로 설정한 것이다.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어린이들이 우의적인 수법에 의해 반영된 현실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인식하도록 함과 아울러 교육의 수단으로서 우화를 활용하여 주체적 문예이론을 고양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의 교양 교육은 정치적 사상과 이념,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 등을 의미하며, 정치사상 교양과 정서 교양을 포함한다. 북한의 모든 문학은 일차적으로 당의 문학으로 공산주의 인간형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고 볼 때 이념성이 텍스트의 표면에 그대로 드러날 수도 있고, 텍스트의 표면에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 이면에는 선택과 배치라는 보다 정교한 방법이 동원되었을 수도 있다.

정치사상 교양을 주제로 한 우화는 그것이 아무리 의인화 등의 환상기법을 사용하여 쓰였다 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목적 즉, 아동에게 하여금 혁명정신을 양양하고 적개심을 고취한다는 목적 아래 ‘원썩’로 지칭되는 미 제국주의와 그에 의해 식민화되었다고 보는 남한에 대해 언급한 작품을 볼 수 있었다.

북한사회의 사상성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작품에서 인류 보편적 도덕 가치가 어떻게 형상화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통상 ‘교훈’은 보편적으로 바람직한 것 즉, 정의로움이나 윤리 도덕, 심오한 철학이나 진리 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화시에서의 교훈은 이러한 일반적 의미의 교훈을 포함한 현실적 논리를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음에 주의를 요한다. 도덕률과 권선징악을 강조하는 우화시도 다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원칙과 논리가 존재하는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되, 독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현명한 분별과 통찰을 촉구하는 데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우화시는 현대를 살아가는 아동에게 내놓아도 손색없을 정도의 도덕적 안목을 가진 우화들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북한이 이념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체사상을 길러내는 데 문학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문학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한의 이념을 끼워 맞추기 보다는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악을 알지 못하면 선을 가르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삶에 대한 현실 감각을 도외시한 채 이상적 가치나 상상력, 창의력만을 배양한다는 것은 공허한 것이 될 수 있다. 자신이 살아가야 할 현실 세계의 원리를 인식하고 그에 적합한 처세의 방법을 습득하는 일은 아동이 성취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우화시는 인류가 그들의 삶 속에서 쌓아 올린 지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우화시를 무조건적인 선과 악의 대립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적 통찰에서 오는 지혜로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 참고문헌

-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아동문학』, 1954년 3월호~2018년 12월호.
- 김보경(2014), 「리원우의 아동문학론 연구-『아동 문학 창작의 길』(1956)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아동문학 석사학위논문.
- 김세희·현은자(1996), 「전래동화와 이솝우화의 인물에 대한 유아의 반응」, 『유아교육연구』 제16집 제2호, 한국유아교육학회.
- 리원우(1956), 『아동문학 창작의 길』, 평양:국립출판사.
- 서동수(2005), 「북한 아동문학의 장르인식과 형상화 원리」, 『동화와 번역』 제9호,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 심향분(1996), 「이솝우화의 아동문학 교육적 가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엄인영(2020), 「북한 국어교과서 계급주의 교양 교육의 ‘원쑤’ 의식화 교육 내용분석」, 『국어교육학연구』 제55집 제1호, 국어교육학회.
- 원종찬(2012), 『북한의 아동문학』, 청동거울.
- 유임하·오창은·김성수(2009), 「북한문학사의 쟁점」,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새 민족문학사 강좌2』, 창비.
- 이은주(2010), 「우화소설의 인물 교육 연구-인물 형상화 방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국어교육과(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장영·리연호(1995), 『동심과 아동문학 창작』, 문학예술출판사.
- 장정호(2018), 「옛이야기의 세계와 그 아동 교육적 함의-한국전래동화, 그림형제 동화 및 이솝우화를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정호(2019), 「이솝우화의 교육적 해석:우화로서의 특징과 그 교육적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제33권 제4호, 한국교육사상학회.
- 정룡진(1991), 『아동문학의 새로운 발전』, 평양:문예출판사.
- 정룡진(1994), 「아동문학의 형태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그 구현에서 나서는 문제」, 『조선문학』, 평양: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평양:문학예술출판사, 1990년 9월호.
- 지다슬(2015), 「북한이탈청소년의 북한 소학교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초등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진선희(2018), 『남북한 전래 동요 연구』, 미래엔.
- 황금순(2017), 「전후북구건설시기 새롭게 발전한 우화문학에 대하여」, 『조선어문』, 제4호.

# ‘북한 『아동문학』의 우화시 연구’에 대한 토론문

하근희(대구 포산초등학교)

북한 아동문학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생소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가 풍부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연구자의 말처럼 북한 아동문학은 통일시대 국어교육을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필요하지만 쉽게 시작하기 어려웠던 분야에 대한 연구를 선구적으로 시작한 연구자의 용기와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토론을 맡은 저 역시도 북한 아동문학, 특히 북한의 우화시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논문을 읽으며 공부의 양이 되었고 잘 알지 못했던 분야라 재미도 있었습니다. 읽으면서 기록해 둔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분석 대상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구자께서는 『아동문학』에 수록된 355편의 우화시를 분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수록 시기, 연도별 수록 편수 등을 알려 주시면 그 자체에서도 하나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항목별 예시 작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자께서는 II장에서는 우화시의 형상화 기법을, III장에서는 우화시의 주제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III장 2절 가 항의 ‘인과응보의 교훈성’외에는 예시 작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시 작품을 함께 읽으면 연구자가 제시한 각 항목의 내용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고, 타당성도 함께 가늠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3. 우화시의 형상화 기법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구자께서 제시한 우화시의 형상화 기법은 상당 부분 우화의 형상화 기법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가 제시한 5가지 형상화 기법 중 풍자와 해학, 동물로 형상화된 주인공에게서 나타나는 비유의 묘미, 교육적 결말 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화의 형상화 기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 제외한 형상화 기법으로 서정적 요소와 서사적 요소가 결합된 시형식이라는 점과 입말체인 점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우화시라는 갈래 자체의 특성이라면 입말체임은 좀 더 세부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같은 층위로 둘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러한 의문은 다섯 가지 형상화 기법이 도출된 과정을 독자가 알지 못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형상화 기법을 도출한 과정을 좀 더 논리적으로 제시해 주신다면 독자의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4. 우화시의 주제를 설정하신 과정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맺음말에서 ‘북한에서의 교양 교육은 정치적 사상과 이념,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 등을 의미

하며, 정치사상 교양과 정서 교양을 포함한다.’고 쓰셨습니다. 우화시의 주제를 ‘정치사상적 교양’과 ‘정서 교양’으로 나누어 제시하신 것은 맺음말에서 쓰신 부분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맺음말에서 제시하신 부분이 어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북한 문학이나 교양 교육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5. 형상화 기법과 주제의 상관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구자의 말처럼 우화시는 주제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갈래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 작가는 적절한 형상화 기법을 선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제와 형상화 기법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형상화 기법과 주제의 상관성에 대해 연구자께서 어렵פות이라도 느끼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자의 논문에 수록된 북한 우화시를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아동문학에 대해 더 공부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을 마치며 제가 우화시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서, 또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어색한 질문을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통일시대를 살아갈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북한 우화시 연구를 해 주신 연구자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토론을 마칩니다.

